

조행일록



발간사

국립해양박물관에서는 소장 자료 중 해제되지 않은 역사적 가치가 있는 자료를 대상으로 매년 번역총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간하는 『조행일록』은 현존하는 조운 일기漕運日記 중 가장 오래된 기록으로, 부산광역시 문화재자료 제108호로 지정된 자료입니다.

익산지역 함열현감咸悅縣監을 지낸 임교진林喬鎭이 1862년 11월부터 1863년 5월까지 세곡을 배로 운반하는 과정의 세곡 내역과 노정을 날짜별로 기록한 일기로, 세곡의 수집과 납부, 항해 과정에서 일어난 사고 등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조선 후기 조운제도 연구에 있어, 희소성이 있는 귀중한 자료입니다.

또한, 본문의 도판으로 활용한 <해좌전도海座全圖> 역시 우리 박물관 소장 자료로, 19세기 중엽 조선 후기 당시의 지명과 산맥, 하천, 호수, 도로, 역驛, 진陣, 포浦 등이 표현되어 있어 『조행일록』에 나타난 조운 경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조행일록』의 발간이 많은 연구자와 독자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장하고 있는 조행일록의 문화재적, 학술적 가치에 대한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총서 발간을 위해 원문에 충실한 번역을 해주신 이문현 선생님과 감수를 해주신 하영휘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번역총서 발간을 위해 노력한 국립해양박물관 유물관리팀, 학술연구팀 직원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2020. 12.

국립해양박물관장

들어가며

『조행일록漕行日錄』은 1863년에 전라도의 세곡稅穀을 운반하였던 과정을 기록한 일기이다. 저자는 함열현감咸悅縣監이자 성당창괄읍조세영운관聖堂倉八邑漕稅領運官이었던 임교진林喬鎭이다. 1862년 11월부터 세곡을 거두기 시작하여 다음 해 3월 15일 성당창을 출발하였고, 5월 2일에 한양의 서강西江에 도착하였다. 일기에는 이 일정을 중심으로 임교진이 부임한 뒤 세곡을 모으는 과정과 서울에 도착한 뒤 호조戶曹와 선혜청宣惠廳 등 여러 관청에 세곡을 납부하는 일이 모두 기록되어 있다. 전라도에서 거두어들인 곡물은 관리의 녹봉祿俸과 군인들의 급료를 비롯한 재정의 바탕이 되었기에, 세곡을 운반하는 조운漕運은 국가의 중요한 업무가 되었다.

임교진1803~1865은 본관이 나주이고, 자는 백신伯臣으로 현종 3년1837에 진사進士에 급제하였다. 1862년 5월 29일에 함열현감에 임명되면서 성당창의 세곡을 운반하는 역할도 함께 맡았다. 조운을 마친 뒤 1864년 6월에 익산군수益山郡守에 임명되었으나 1년 만에 죽었고, 조정에서는 효자의 정려旌閭를 내려주었다.

성당창에 세곡을 모았던 전라도의 군현郡縣은 남원南原, 진산珍山, 익산益山, 금산錦山, 고산高山, 운봉雲峰, 용담龍潭, 함열咸悅로 모두 8개였다. 성당창은 함열현의 관아가 있던 곳에서 동북東北쪽으로 20리가량 떨어진 곳에 있었다. 여기에 창고를 갖추고 각 군현의 전세田稅와 대동미大同米를 모았는데, 약 5개월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세곡을 운반한 조운선은 12척을 마련하였는데, 1척은 새로 만들었고 2척은 임대하여 충당하였다. 임교진이 탔던 상선上船, 第一馘字船을 비롯하여 각각의 배에는 평균 1,160석의 쌀과 콩을 실었다.

세곡을 운반하는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다. 우선 성당창을 출발하여 본격적인 조운이 시작되었던 옹포熊浦까지 가는 길은 물이 얇은 곳이 많아 7~8일이 걸렸다. 4월 6일에는 배 1척이 암초에 걸려 세곡을 잃을 위기를 맞기도 하였다. 이런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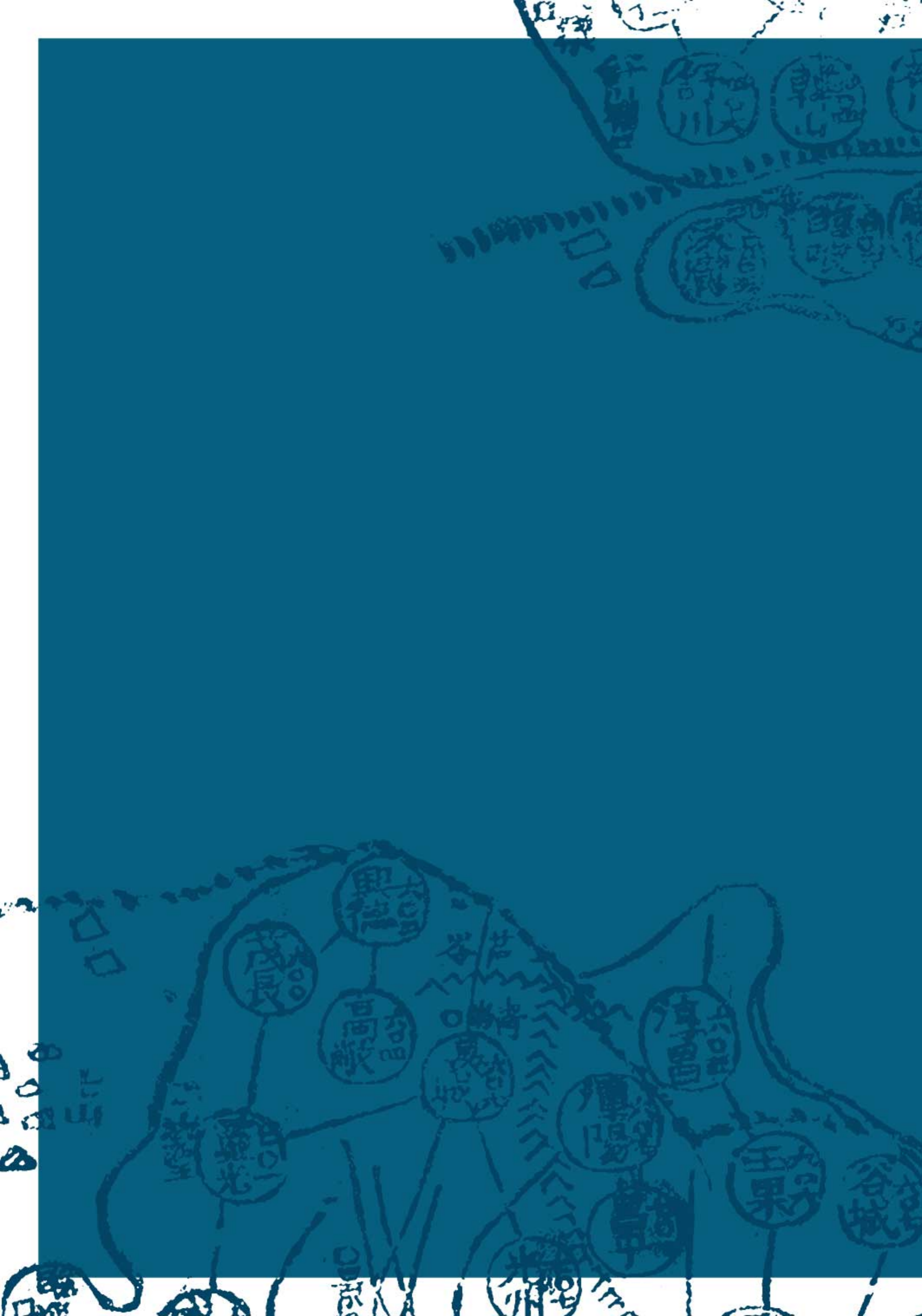
이 많은 사공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운항하였다. 또한 거처가는 군현에서 수로를 잘 아는 사람들을 호송리護送吏로 보내 조운선을 인도하고 과거장過去狀을 받아가기도 하였다. 이러한 일들을 상세하게 적은 『조행일록』은 다른 어느 기록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내용을 담고 있다.

조운 과정에 대한 기록으로 『조행일록』보다 12년 뒤에 작성된 『을해조행록乙亥漕行錄』이 있다. 이 일기는 1875년에 조희백趙熙百: 1825~1900이 작성하였으며,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이 일기와 비교하면 『조행일록』은 한양에 도착한 후 조세를 납부하는 과정이 상세하게 기록된 점이 크게 다르다. 세곡의 납부를 위한 행정 처리 과정과 운반된 곡물의 상태와 수량을 확인하는 일, 사공들의 향후 업무를 추천하는 일 등이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조행일록』은 필사본으로 서두에 해당하는 기록이 중복되어 있는데, 이것을 모두 엮어서 책으로 만들었다. 일기의 특성상 조운 과정에서 매일매일 기록한 원본의 일기가 있었을 것이며, 이것을 다시 옮겨 적은 책이 현재의 『조행일록』이다. 맨 앞의 행초서行草書로 기록한 첫 면은 다른 부분과 서체가 다르며, 본문의 중간중간에 교정한 서체는 같은 글씨로 보인다. 따라서 이 일기는 임교진이 정서를 시작했다가 다른 사람에게 필사를 맡기고, 그것을 교정하여 완성한 책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조운을 마치고 함열로 돌아간 이후의 시간부터 그가 죽기 전까지, 즉 1863~1865년 사이에 필사된 일기로 볼 수 있다.

임교진의 『조행일록』은 조선시대의 조운 행정을 상세하게 살펴볼 수 있는 자료로 가치가 높다. 조운 도중에 있었던 사고를 증명하기 위해서 임교진에게 필요한 기록이었으며, 후일 같은 조운 업무를 담당할 관리를 위한 참고자료로도 훌륭한 역할을 했을 것이다.

이문현





漕行日錄

조행일록



조행일록 漕行日錄

1. 임교진(林喬鎭, 1803~1865)은 본관이 나주(羅州)이고, 자는 백신(伯臣)으로 헌종 3년(1837)에 진사(進士)에 급제하였다. 1862년 5월에 함열현감(咸悅縣監)에 임명되면서 성당창(聖堂倉)의 세곡(稅穀)을 운반하는 역할도 함께 맡았다. 1864년 6월에 익산군수(益山郡守)에 임명되었으나 1년 만에 죽었고, 조정에서는 호자의 정려(旌閭)를 내려주었다. 임교진의 생애에 대해서는 문경호의 「임교진의 『조행일록』을 통해 본 1863년 성당창의 조운 실태」(진단학보 128, 2017.6.) 54~58쪽 참조.
2.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철종(哲宗) 13년 5월 29일 庚戌, “林喬鎭爲咸悅縣監”
3. 이 책은 앞부분 일부가 중복되어 필사되어 있다. 행초(行草)로 쓰인 첫 장은 교정된 곳이 한 군데도 없어 임교진이 직접 쓴 것으로 추정된다. 중복 필사된 앞의 기록에는 진산군의 자리에 금산군이 기록되어 있다. 전체적인 흐름을 존중하여 뒷부분의 완전한 기록을 기초로 정리하였다.
4. 『만기요람(萬機要覽)』 2권, 재용(財用) 조창(漕倉)의 성당창의 내용에 따르면, 함열(咸悅)에 있으며, 세종(世宗) 10년(1428)에 설치하였다. 본래 용안(龍安)의 덕성창(德成倉)이었는데 수로가 막혀 성당창으로 옮겼다. 조선(漕船)은 14척이었는데, 『만기요람』을 편찬할 때에 2척을 감하여 12척이 되었다. 함열(咸悅)·고산(高山)·진산(珍山)·운봉(雲峰)·익산(益山)·금산(錦山)·용담(龍潭)·남원(南原) 8개 군현의 전세(田稅)와 대동(大同)을 싣는데 군산의 첨절제사(僉節制使)가 담당하게 하였다가, 정

임술년(壬戌年, 1862) 여름 5월 29일, 내¹⁾ 나이 60세에 함열현감(咸悅縣監) 겸(兼) 성당창팔읍조세영운관(聖堂倉八邑漕稅領運官)에 임명되는 성은(聖恩)을 입었다.²⁾ 성당창에 세곡을 납부하는 팔읍(八邑)은 남원부(南原府), 진산군(珍山郡)³⁾, 익산군(益山郡), 금산군(錦山郡), 고산현(高山縣), 운봉현(雲峰縣), 용담현(龍潭縣), 함열현(咸悅縣)이다. 성당창(聖堂倉)⁴⁾은 함열현 관아⁵⁾에서 동북(東北)쪽으로 20리 떨어져 있었다.

余六十歲之壬戌夏 五月二十九日 蒙 恩 除咸悅縣監兼聖堂倉八邑漕稅領運官八邑南原珍山益山錦山高山雲峰龍潭咸悅也 聖堂倉在縣治東北二十里

6월 13일, 함열현에 도착하였다. 이 해에는 홍수의 피해⁶⁾로 곡식이 여물지 않아 마을마다 굶주림을 걱정했다. 향리들이 세금 걷을 일을 걱정해서, 내가 “백성들 또한 정당한 세금을 바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알고 있으니, 힘이 부치더라도 스스로 마련하여 납부할 것이다.”라고 했다.

六月十三日 到縣 是歲被澇失稔 村里往往有飢愁 吏鄉以稅事憂 余曰 民亦知正供之重雖力艱自當辦納

11월 2일, 성당창에 가서 창고를 열고 세금을 거두기 시작했다.

다만 이재민들에게 채찍으로 독촉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여, 향리들을 각 고을에 나누어 보내 권장하여 이끌어 타일러서 받아내게 했다. 매년 날짜를 정하여 받아들였는데 12월까지 7번 개좌⁷⁾開坐⁷⁾했고, 다음 해 계해년¹⁸⁶³ 봄에는 연달아 개좌하다가 간혹 함열 관아로 돌아오기도 하였다.

이전에는 곡상^{斛上⁸⁾}이 너무 많고, 타석^{打石⁹⁾}도 넘치도록 받고, 색승^{色升¹⁰⁾}이 커서 백성들의 불만이 컸다. 내가 곡상과 색승을 정확하게 바로 잡아 3분의 1로 줄여주었다. 타석도 색승과 마찬가지로 바로 잡았다. 성당창 마당에 방아^{舂具}를 설치하여 도정이 덜된 추미^{麩米}를 가져온 사람은 다시 방아를 찧어 납부하게 하였다. 운봉, 남원, 금산 세 고을의 창고는 이미 가득 차서 곡식을 마당에 쌓아두었다. 이것을 적납^{積納}이라고 하는데 모두 아홉 곳으로, 그 높이가 모두 큰 나무보다 높다. 함열현과 익산군은 2월 말에 거두는 일을 마쳤고, 나머지 여섯 고을은 그 뒤 20일 동안 차례로 마쳤다.

遂以十一月初二日詣聖堂開倉始捧顧災民不可以鞭箠督也乃分遣吏使勸(勒)導之誨責之每定日爲納限至臘月凡七開坐翌年癸亥春連坐間或還衙

在前斛上厚打石濫色升大民以爲言余乃精削斛上色升較前減三分之一打石準色升設舂具於庭有納麩米者使更舂之隨納儲雲峰南原錦山三庫庫既盈露積於庭畔名曰積納凡九處其高皆出大樹上本縣與益山二月晦畢捧六邑後二旬次第告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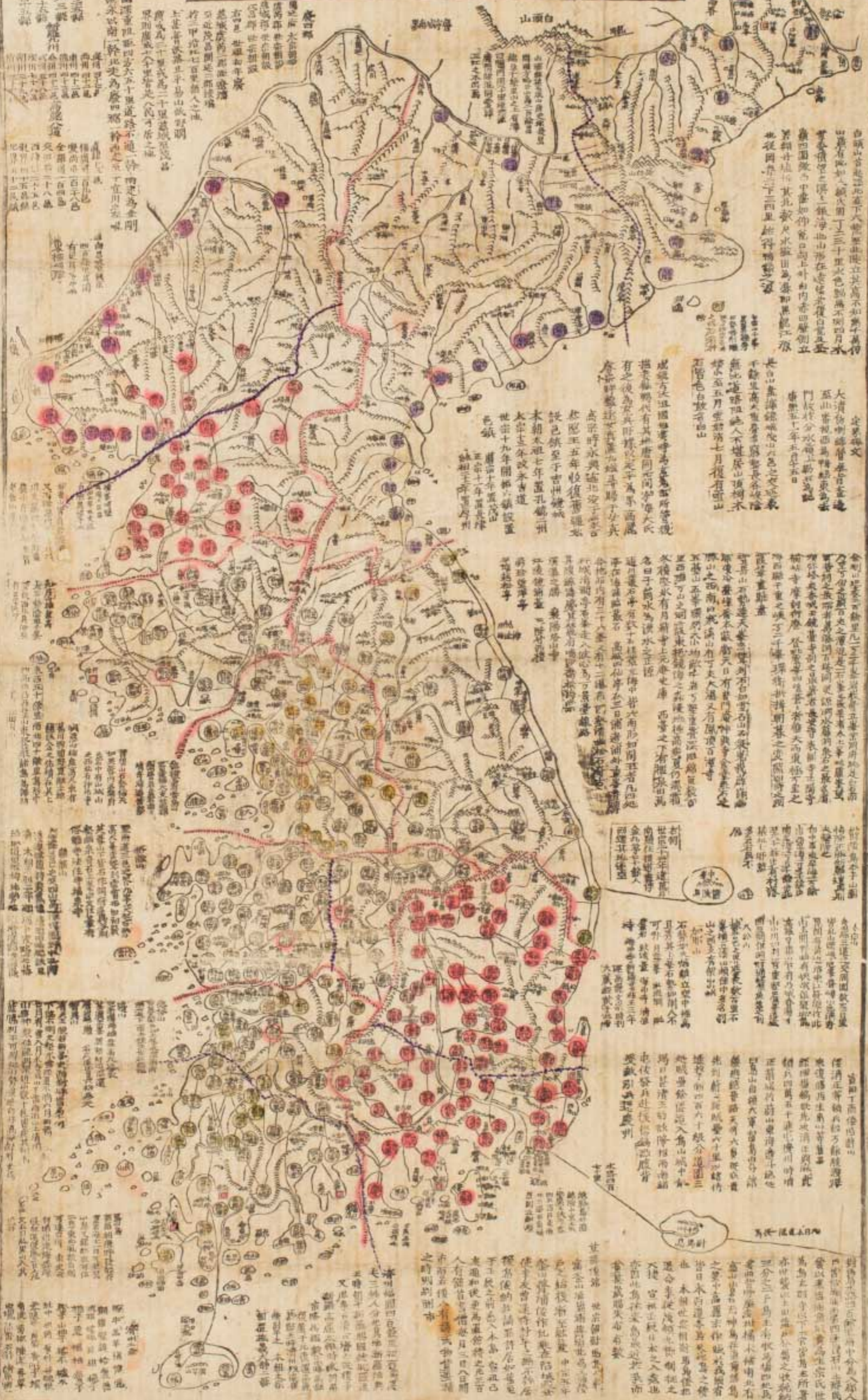
함열 전세^{田稅} 미^米 890석^石 4승^升 4합^合 1작^勺
 태^{太¹¹⁾} 193석 10두^斗 8승 1합 7작 3리^里
 대동^{大同} 미^米 875석 11두

조(正祖) 15년(1791)에 관찰사의 요청에 따라 함열현감으로 바뀌었다. 현재의 전북 익산시 성당면 성당리의 성당포구 일대로 추정되며, 수령 5~600년 된 느티나무가 남아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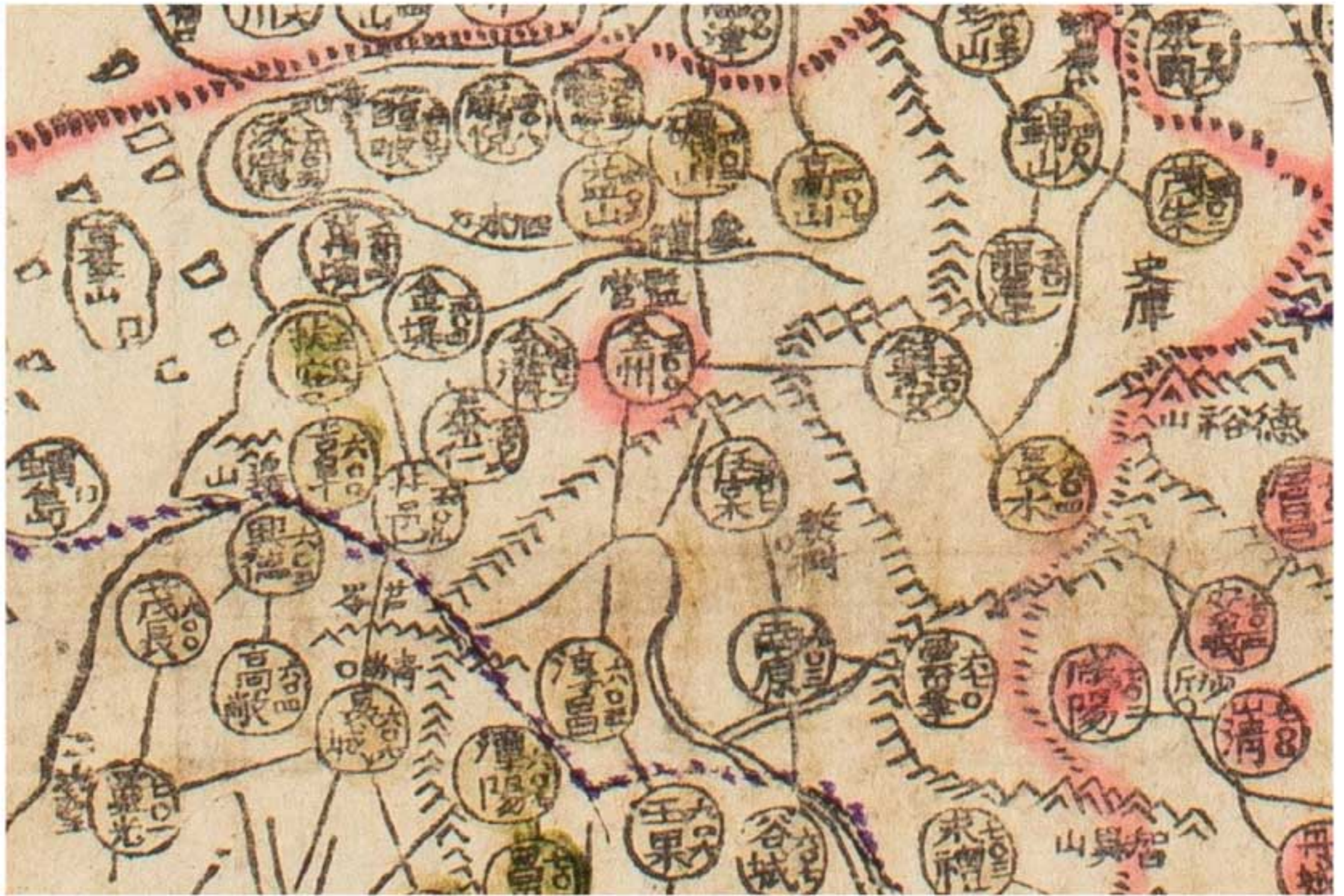
5. 전북 익산시 함라면 함열리에 함열현의 치소(治所)가 있었다.
6. 『철종실록(哲宗實錄)』 14권, 철종 13년 8월 4일 갑인, “給全州泰仁益山任實等邑漂戶滄死人恤典”
7. 관리들이 모여 사무를 보는 일을 말하는데, 여기에서는 세곡을 받아내는 업무를 말한다.
8. 세미(稅米)를 받을 때 미리 손실을 감안하여 한 섬에 얼마씩 더 받는 곡식으로, 대개 3승(升)씩 받았는데 그 액수가 많아져 폐단이 되었다.
9. 세미를 받을 때 말질(斗量)하는 사람에게 주는 삿으로, 부풀려 받아 폐단이 되었다.
10. 색리(色吏)의 되라는 뜻으로 담당 향리들이 사용하였는데, 규격보다 커서 폐단이 되었다.

11. 콩의 한자말. 세곡(稅穀)을 미(米)와 태(太)로 거두어 관료에게 주는 녹봉(祿俸)도 미와 태로 주었다.

濠洲圖



▲ 국립해양박물관 소장, <해좌진도海座全圖>, 19세기



▲ 해좌전도의 전라북도 부분

남원 전세	미 3,137석 3두 9승 2합 3작
	태 1,032석 3두 3승 1합 5작 6리
진산 전세	미 162석 1두 8승 4합 1작 6리
	태 153석 11두 8승 4합 8리
익산 전세	미 1,013석 6두 9승 7합 1작 4리
	태 296석 10두 7승 3합 5리
대동大同	미 1,561석 10두
운봉 전세	미 512석 2두 7승 9합 2작 3리
	태 137석 10두 9승 2합 8작 1리

금산 전세 미 674석 13두 9승 6합 7작 5리
 태 527석 9두 1승 2작 1리

고산 전세 미 540석 14두 2승 6작 8리
 태 382석 3승 6작 5리

용담 전세 미 275석 11두 1승 7합 8작
 태 223석 1두 4승 5합 5작 5리

12. 원문의 뒷부분에는 ‘합미(合米)’라고 되어 있으나 내용상 앞부분에 ‘합미태(合米太)’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따랐다.

13. 대동미는 함열과 익산에서만 거두었는데, 다른 군현의 대동미는 유치미(留置米)로 활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14. 본래 납부하기로 정해진 액수를 말한다.

15. 궁방은 수진궁·명례궁 등의 ‘궁(宮)’과 양녕대군방 등의 ‘방(房)’의 합성어로, 각지에 궁방전(宮房田)을 두었으며 이 토지에서 나온 곡물을 한양으로 운반하였다.

16. ‘정미(情米)’, ‘인정미(人情米)’라고도 한다. 세곡을 거둘 때 아전들이 비공식적으로 수수료 명목으로 덧붙여 받아내던 것을 말하는데, 세곡과 관련된 기관들에 상납했던 것으로 보인다.

17. 1875년의 『을해조행록(乙亥漕行錄)』에는 16,000여 석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궁방 상납 등을 모두 합하면 비슷한 규모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미와 태를 모두 합한 것이¹²⁾ 12,598석 14두 8승 9합이고, 그 가운데 전세미는 7,214석 10두 3승 2합 1작 6리이고, 태는 2,946석 13두 5승 6합 8작 4리이고, 대동미¹³⁾는 2,437석 6두이다. 이상이 원상납元上納¹⁴⁾이다. 이 밖에 각 궁방宮房¹⁵⁾에 상납하는 것과 후미後米¹⁶⁾와 선원들의 식량으로 쓸 양미糧米¹⁷⁾가 있었다.

咸悅	田稅	米 八百九十石四升四合一勺 太 一百九十三石十斗八升一合七勺三里
	大同	米 八百七十五石十一斗
南原	田稅	米 三千一百三十七石三斗九升二合三勺 太 一千三十二石三斗三升一合五勺六里
珍山	田稅	米 一百六十二石一斗八升四合一勺六里 太 一百五十三石十一斗八升四合一勺八里
益山	田稅	米 一千十三石六斗九升七合一勺(合)四里 太 二百九十六石十斗七升三合一勺五里
	大同	米 一千五百六十一石十斗

雲峰 田稅 米 五百十二石二斗七升九合二勺三里
太 一百三十七石十斗九升二合八勺一里

錦山 田稅 米 六百七十四石十三斗九升六合七勺五里
太 五百二十七石 九斗一升二勺一里

高山 田稅 米 五百四十石十四斗二升六勺八里
太 三百八十二石三升六勺五里

龍潭 田稅 米 二百七十五石十一斗一升七合八勺
太 二百二十三石一斗四升五合五勺五里

合米太 一萬二千五百九十八石十四斗八升九合內 田稅 米 七千二百十四石十斗三升二合一勺六里 太二千九百四十六石十三斗五升六合八勺四里 大同 米 二千四百三十七石六斗 此元上納也 又有各宮房上納及後(情)米及(交周)糧米

군현	전세 미	전세 태	대동 미
함열현	890석 4승 4합 1작	193석 10두 8승 1합 7작 3리	875석 11두
남원부	3,137석 3두 9승 2합 3작	1,032석 3두 3승 1합 5작 6리	
진산군	162석 1두 8승 4합 1작 6리	153석 11두 8승 4합 8리	
익산군	1,013석 6두 9승 7합 1작 4리	296석 10두 7승 3합 5리	1,561석 10두
운봉현	512석 2두 7승 9합 2작 3리	137석 10두 9승 2합 8작 1리	
금산군	674석 13두 9승 6합 7작 5리	527석 9두 1승 2작 1리	
고산현	540석 14두 2승 6작 8리	382석 3승 6작 5리	
용담현	275석 11두 1승 7합 8작	223석 1두 4승 5합 5작 5리	
계	7,214석 10두 3승 2합 1작 6리	2,946석 13두 5승 6합 8작 4리	2,437석 6두
총계	12,598석 14두 8승 9합		

〈 표 1. 1863년 성당창에서 거둔 세곡(稅穀) 〉

3월 1일. 첫 선적분을 상선^{上船}에 먼저 실었다.

三月初一日 初分載先上船

18. 배가 무사하게 운항하기를 바라며 올리던 제사로, 성당창 근처에 용왕당이 있었다고 한다.

3월 5일. 순풍제^{順風祭}¹⁸⁾를 지냈다.

初五日 行順風祭

3월 13일. 조운할 세곡을 대부분 실었다.

19. 배의 이름은 천자문의 한 글자로 표기하였는데, '함(醢)' 자는 천자문 66번째에 해당한다.

제1 함자선^{醢字船}¹⁹⁾. 새로 임명한 도사공^{都沙工} 금남열^{琴南烈}, 관례에 따라 함열현^{本縣}의 전세미^{田稅米} 1,136석 14두 1승 3합을 실었다.²⁰⁾

20. 함열현의 전세는 미 890석 4승 4합 1작과 태 193석 10두 8승 1합 7작 3리였으므로, 합한 숫자는 1,083석 11두 2승 5합 8작 3리다. 그런데 함자선에 실은 곡물은 1,136석 14두 1승 3합으로 거의 53석이나 많다. 차이가 나는 숫자는 각 궁방에 상납하는 것과 후미, 양미로 추정된다.

제2 서자선^{書字船}. 도사공^{都沙工} 전종환^{全宗煥}²¹⁾, 관례에 따라 함열현 대동미^{大同米} 1,185석 4두 5승 3합 6작을 실었다.

21. 1875년의 『을해조행록(乙亥漕行錄)』에도 보이는 사공으로, 1876년에는 도사공으로 뽑힌 것이다.

제3 항자선^{恒字船}. 사공^{沙工} 박태혁^{朴泰赫}, 제비를 뽑은^{抽籤} 남원^{南原}의 전세미 863석 3두 9승 3합 4작, 태^太 295석 3두 6승 1합 6작을 실었다.

제4 귀자선^{歸字船}. 사공 안필재^{安弼在}, 제비를 뽑은 남원의 전세미 833석 10두 7승 2합 5작, 태 294석 11두 7승 5작을 실었다.

제5 백자선^{白字船}. 덕적도^{德積島}에서 세를 주고 빌린 배^{賃船}로, 사공 최득수^{崔得壽}, 제비를 뽑은 남원 전세미 848석 6두 5승 9합 7작, 태 295석 2두 6승 2합 7작을 실었다.

제6 구자선^{駒字船}. 사공 안필록^{安弼錄}, 제비를 뽑은 익산 전세미 849석 12두 3승 6합 1작, 태 295석 5두 7승 7합 3작을 실었다.

제7 만자선萬字船. 사공 박규섭朴奎燮, 제비로 뽑은 금산 전세미 850석 10두 9승 1합 9작, 태 2,904석 5두 3승 2합 5작을 실었다.

제8 여자선黎字船. 사공 정기은鄭基殷, 장무掌務이기 때문에 관례에 따라 고산의 전세미 916석 4두 2승 8합 1작, 태 305석 7합 7작을 실었다.

제9 공자선貢字船. 새로 만든 배. 사공 서국현徐國賢, 제비로 뽑은 운봉 전세미 850석 1승 6합 3작, 태 295석 1두 3승 9합 6작을 실었다.

제10 천자선天字船. 낙안樂安에서 세를 주고 빌린 배 사공 배권석裨權錫, 제비로 뽑은 용담 전세미 827석 13두 6승 3합, 태 309석 2두 6승 5합 5작을 싣고 익산 대동미 132석 4두를 더 실었다.

제11 덕자선德字船. 사공 윤자중尹滋中, 제비로 뽑은 익산 대동미 812석 11두 4승, 태 294석 11두 6승 5합 6작을 실었다.

제12 주자선宙字船. 사공 양종하梁宗廈, 제비로 뽑은 익산 대동미 833석 4두 3합, 태 295석 1두 5승 1합을 실었다.

배 12척²²⁾에 실은 미는 모두 10,937석 10두 2승 3합이고, 태는 모두 2,974석 9승 4합이다. 각 배의 조졸漕卒²³⁾은 15명이고, 8읍의 감색監色들이 각각 자기 고을의 세금을 실은 배를 담당하였다.

十三日 大分載

第一醜字船 新差都沙工琴南烈 例載(受)本縣田稅載(爻周)

米 一千一百三十六石十四斗一升三合

22. 1875년의 『을해조행록(乙亥漕行錄)』에는 주자선(宙字船), 서자선(晷字船), 여자선(黎字船), 만자선(萬字船), 덕자선(德字船), 항자선(恒字船)이 남아 있었고 나머지 배들은 격포에서 새로 건조하였다고 하였다.

23. 조운선(漕運船)에 승선하던 선원으로 '조군(漕軍)'이라고도 하였다.

第二暑字船 都沙工全宗煥 例載本縣大同

米 一千一百八十五石四斗五升三升²⁴⁾六勺

第三恒字船 沙工朴泰赫 抽籤得南原田稅載

米 八百六十三石三斗九升三合四勺 太 二百九十五石三斗六升一合六勺

第四歸字船 沙工安弼在 籤得南原田稅載

米 八百三十三石十斗七升二合五勺 太 二百九十四石十一斗七升五勺

第五白字船 德積賃船 沙工崔得壽 籤得南原田稅載

米 八百四十八石六斗五升九合七勺 太 二百九十五石二斗六升二合七勺

第六駒字船 沙工安弼錄 籤得益山田稅載

米 八百四十九石十二斗三升六合一勺 太 二百九十五石五斗七升七合三勺

第七萬字船 沙工朴奎燮 籤得錦山田稅載

米 八百五十石十斗九升一合九勺 太 二百九十四石五斗三升二合五勺

第八黎字船 沙工鄭基殷 以掌務例載高山田稅

米 九百十六石四斗二升八合一勺 太 三百五石七合七勺

第九貢字船 新造也 沙工徐國賢 籤得雲峰田稅載

米 八百五十石一升六合三勺 太 二百九十五石一斗三升九合六勺

第十天字 樂安賃船 沙工裴權錫 籤得龍潭田稅載

米 八百二十七石十三斗六升三合太 三百九石二斗六升五合五勺

加載益山大同 米 一百三十二石四斗

第十一德字船 沙工尹滋中 籤得益山大同載

米 八百十二石十一斗四升 太 二百九十四石十一斗六升五合六勺

第十二宙字船 沙工梁宗厦 籤得益山大同載

米 八百三十三石四斗三合 太 二百九十五石一斗五升一合

十二船合米 一萬九百三十七石十斗二升三合

合太 二千九百七十四石九升四合

每船漕卒十五名 八邑監色各掌其船

선차 (船次)	자호 (字號)	도사공 (都沙工)	해당 군현(郡縣)과 세종(稅種)	적재량
제1선	함(鹹)	금남열 (琴南烈)	함열현 전세	미 1,136석 14두 1승 3합
제2선	서(暑)	전종환 (全宗煥)	함열현 대동	미 1,185석 4두 5승 3합 6작
제3선	항(恒)	박태혁 (朴泰赫)	남원부 전세	미 863석 3두 9승 3합 4작 태 295석 3두 6승 1합 6작
제4선	귀(歸)	안필재 (安弼在)	남원부 전세	미 833석 10두 7승 2합 5작 태 294석 11두 7승 5작
제5선	백(白) 덕적에서 빌린 배 [德積賃船]	최득수 (崔得壽)	남원부 전세	미 848석 6두 5승 9합 7작 태 295석 2두 6승 2합 7작
제6선	구(駒)	안필록 (安弼錄)	익산군 전세	미 849석 12두 3승 6합 1작 태 295석 5두 7승 7합 3작
제7선	만(萬)	박규섭 (朴奎燮)	금산군 전세	미 850석 10두 9승 1합 9작 태 2904석 5두 3승 2합 5작
제8선	여(黎)	정기은 (鄭基殷)	고산현 전세	미 916석 4두 2승 8합 1작 태 305석 7합 7작
제9선	공(貢) 새로 만든 배[新造]	서국현 (徐國賢)	운봉현 전세	미 850석 1승 6합 3작 태 295석 1두 3승 9합 6작
제10선	천(天) 낙안에서 빌린 배 [樂安賃船]	배권석 (裵權錫)	용담현 전세	미 827석 13두 6승 3합 태 309석 2두 6승 5합 5작
			익산군 대동	미 132석 4두
제11선	덕(德)	윤자중 (尹滋中)	익산군 대동	미 812석 11두 4승 태 294석 11두 6승 5합 6작
제12선	주(宙)	윤자중 (尹滋中)	익산군 대동	미 833석 4두 3합 태 295석 1두 5승 1합
계				합 미 10,937석 10두 2승 3합 합 태 2,974석 9승 4합

〈 표 2. 성당창 12조선의 현황 〉

25. 지금의 전북 익산시 웅포면 웅포리
곰개나루로 추정된다.

3월 15일. 배를 다 띄워 강 위에서 맞아 웅포²⁵⁾로 내려갔다.
웅포는 함열현에서 서쪽으로 10리 떨어져 있고, 성당창에서는 20리
거리다. 그 사이에 얇은 곳이 많아 작은 배를 이용하여 곡물을 부
려서 옮기느라 7, 8일이 걸렸다.

十五日 并浮出 江上得風 移下熊浦 熊浦在邑西十里 聖堂爲二十里
間多淺水 用小船卸運 費七八日

3월 22일. 배가 모두 웅포에 정박하였다. 26일이 웅포의 장날이다.
사공들과 조군들이 반찬거리^{饌物}와 삿갓^{簾笠}, 짚신^{草鞋}을 사기 위해
그날을 기다렸다. 나는 함열 관아에 돌아와 기다렸다.

二十二日 齊泊熊浦 二十六日 熊浦市也 沙工漕卒待以買饌物簾笠
草鞋 故余亦還衙以待之

3월 26일. 오전 늦게 향리가 준비를 마쳤다고 알려 와서, 나는 가
마에 올라 웅포로 가라고 명하였다. 웅포의 호^戶는 거의 400여 호
로 집들이 즐비하게 늘어섰는데, 형국이 완전하고 기운이 밝다. 앞
으로 흐르는 진강^{鎭江}은 크기로는 거의 우리나라의 으뜸이라 할 만
하다. 장사하는 배들이 끊임없이 오가는 참으로 이름난 포구다. 가
마에서 내려 민가에 머물렀다. 세 아이²⁶⁾가 다 따라오고, 상주^{尙州}
묵방^{墨坊}의 사인^{士人} 김정식^{金鼎植}²⁷⁾이 동행하기로 약속했기에 때맞추
어 도착하였다. 한산군수^{韓山郡守} 서상학^{徐相學}²⁸⁾, 용안^{龍安}의 책객<sup>冊
客</sup>으로 있던 선달^{先達} 김봉집^{金鳳集}, 임천^{林川} 사람 선달^{先達} 문석찬<sup>文
錫瓚</sup> 숙질^{叔侄}과 이재후^{李載厚}, 그리고 김정식의 아들 김흥손^{金興孫}이
작별하기 위해 왔다. 함열현의 삼반^{三班}²⁹⁾도 전례대로 모두 와서 송
별하려 했으나, 내가 관아가 빌 것을 염려하여 오지 말라고 명하였
다. 오로지 7, 8명의 향리와 세 명의 부노^{父老}³⁰⁾가 와서 인사하였다.

26. 나주임씨 대동보에 따르면 임찬
수(林瓚洙, 1830~1883), 임건수
(林健洙, 1839~1876), 임회수(林
繪洙, 1845~1898)라는 세 아들
이 있다.

27. 자(字)는 치항(稚恒)이다. 이하
모두 '치항'이라고 기록되어 있지
만, 번역문에서는 모두 '김정식'으
로 표기하였다.

28. 1823~?. 본관은 대구(大邱)이고,
자는 경전(敬典)으로 헌종 15년
(1849)에 진사(進士)에 급제하였
다. 1862년 7월에 한산군수에 임
명되었다.

임천군(林川郡)의 향리가 호송하기 위해 왔다가 과거장(過去狀³¹)을 받아 갔다. 어젯밤에 바람이 세게 불어, 나는 침상에 누워 그 소리를 듣고 걱정하였다. 옹포에 도착하여 사공에게 물으니 대답하기를 “벧길의 처음에는 동풍(東風)이 좋은데, 근래에 서풍이 많았습니다. 어젯밤에 바람이 불었지만 앞으로 서풍에서 동풍으로 바뀔 것입니다. 바람이 세게 부는 것은 좋은 조짐입니다.”라고 하였다. 이날 과연 동풍이 불었다.

二十六日 晩朝 吏告行事備 余乃命駕出熊浦 浦戶蓋四百餘 有櫛比形 局完氣明 前臨鎮江 江(追記)之大 殆冠於一國 商帆來去 儘名浦也 下轎民舍留宿 時三兒俱從 尙州墨坊士人金鼎(昇)植 字稚恒 有同行約趨到 韓山守徐相學 龍安冊客金先達鳳集 林川人文先達錫瓚 叔侄及李載厚 及稚恒 子興孫爲敘別來 邑中三班例皆來送 余念官衙空虛 命勿來 惟七八吏校 三數父老來辭 林川郡吏爲護送來 受過去狀而去 昨日夜有大風 余於枕上聞而憂之 到熊浦問梢工 曰 船初發宜東風 而近多西吹 昨夜之風 將反西爲東 故大吹此好兆也 是日果有東風

3월 27일. 정오 무렵 조수가 물러나려 할 때 내가 남여(藍輿)를 타고 나가는데, 영악(伶樂³²)이 앞에서 인도하고 수종자(隨從者)가 아주 많았다. 구경하는 남녀노소가 길을 가득 메우고 산처럼 둘러서서 수천 명은 될 것 같았다. 나루에 도착하여 종선(從船³³)에 올랐다. 제일 함자선(鹹字船) 아래에 정박하여 사다리를 놓아 함자선에 올랐다. 이 배가 크고 견고하기 때문에 영운관(領運官)이 타는 배로 정하고, ‘상선(上船)’이라고 한다. 세 아이와 김정식이 뒤따라 배에 올랐다. 조복감관(漕復監官³⁴)인 좌수(座首) 김해복(金海福), 배리(陪吏) 왕종팔(王鍾八), 영선장교(領船將校) 조득주(趙得柱), 통인(通引) 왕만택(王萬澤)과 이복익(李福翊), 사령(使令) 김근홍(金根洪)·유봉갑(庾奉甲)·김잉순(金莛順)·김만순(金萬淳)·박수복(朴

29. 지방 군현의 장교(將校), 군노(軍奴), 사령(使令)을 통틀어 이르던 말이다.

30. 향청(鄉廳)의 나이가 많은 어른을 이르던 말이다.

31. 호송리들이 해당 지역의 호송을 마치고 영운관으로부터 호송을 마쳤다는 확인을 받은 문서로 보인다.(문경호, 「임교진의 『조행일록』을 통해 본 1863년 성당창의 조운 실태」(진단학보 128, 2017.6.) 64쪽)

32. 광대와 악공을 말한다.

33. 큰 배에 딸린 작은 배. 여기서는 조운선까지 왕래하도록 준비한 작은 배를 말한다.

34. ‘조복(漕復)’은 조군(漕軍)에게 주는 면세 전결을 말하는데, 뒤에는 쌀을 나누어주는 것으로 바뀌었다. ‘조복감관’은 조군 전체를 통솔하는 역할을 맡았던 것으로 보인다.

壽福, 금창及唱 손갑孫甲과 태산太山, 도자刀子 부록夫祿, 방자房子 용손龍孫이 뒤따랐다. 좌수와 배리 및 도사공都沙工을 곧바로 서천舒川의 용당진龍堂津³⁵에 보내어 밤이 되기를 기다려 제祭를 지내게 했는데, 제문祭文은 내가 지었다.

상선上船은 배의 깊이가 5장丈이고 길이가 12칸間이며 너비가 2칸 반이다. 배 가운데 방樓 한 칸이 있는데, 위아래와 4면이 모두 판자로 되어 있고 종이로 발랐다. 앞면에 쌍호雙戶³⁶가 있고 오른쪽에 창窓이 하나 있다. 편액은 ‘凌波樓^{능파루}’라고 썼다. 벽에는 ‘봄 물에 배 띄우니 천상에 앉은 듯하고, 노년의 꽃은 안개 속에서 보는 듯하네. [春水船如天上坐 老年花似霧中看]’라는 구절의 한 부분이다.『杜少陵詩集』卷23)

36. 문짝이 두 개인 문을 말한다.

37. 두보(杜甫)의 ‘소한식주중작(小寒食舟中作)’이라는 시의 “봄 물에 배 띄우니 천상에 앉은 듯하고, 노년의 꽃은 안개 속에서 보는 듯하네. [春水船如天上坐 老年花似霧中看]”라는 구절의 한 부분이다.『杜少陵詩集』卷23)

38. 옥령은 점을 치는 거북이를 말한다.

39. ‘하백(河伯)’과 ‘해약(海若)’은 모두 물의 신으로, 『장자(莊子)』 외편(外篇) 추수에 보인다.

40. 주(周)나라 성왕(成王) 때 주공(周公)이 섭정하여 천하가 태평해지자, 교지(交趾) 남쪽에서 월상씨(越裳氏)가 주공에게 흰 꿩(白雉)을 바치며, “저희가 우리나라 장로들의 말을 듣건대, ‘하늘에는 거센 바람과 굶은 비가 없고 바다에는 큰 파도가 일어나지 않은 지 3년이 되었다. 이는 아마도 중국에 성인이 계시기 때문일 것이다.’ 하였습니다.(吾受命國之黃耆 天無烈風淫雨 海不揚波 三年矣 意者中國有聖人乎)”라고 하자, 주공이 그들을 성왕에게 보내고 그 꿩을 종묘에 올렸다는 고사가 있다.『十八史略』卷1, 周)

이 방은 영운관領運官이 거처하는 곳이다. 쌀 포대로 빙 둘러 담을 쌓았는데, 계단처럼 층이 지게 만들었다. 방 안의 앉는 자리에는 바닥에 담배 풀南草을 깔고 그 위에 쪽으로 만든 요艾褥를 뒀는데, 냉기와 습기를 막기 위한 것이다. 방의 높이가 뱃전과 같아 방 안에 앉으면 밖이 보이지 않고 육지에 있는 듯 편안하여, 배가 움직여 나아가는 것을 느끼지 못한다. 옥상屋上에는 자리를 깔고 취막翠幕, 푸른 휘장을 둘러 영운관이 나가 앉을 자리를 만들었다. 여기에 오르면 물을 보고 멀리 조망할 수 있다. 나는 배에 올라 먼저 방 위의 취막에 앉았다. 영교領校가 사령使令에게 포砲를 쏘고 북을 치고 나발을 불게 하자, 모든 배가 동시에 돛을 올리고 앞으로 나갔다. 이날 천기가 맑고 동풍이 계속 불어 한산韓山 기포岐浦의 동쪽, 임피臨陂 서포西浦의 서쪽까지 이르렀다. 강 가운데에 닻을 내리고 밤을 지냈다. 웅포熊浦에서 이곳까지 헤아려보니 20리쯤 된다. 밤에 다시 옥상에 올라 물 밖을 바라보니 여러 마을의 등불이 점점으로 보이

고, 까만 하늘에 달도 없어 어느 땅인지 알 수 없었다. 4경⁴¹에 임피현감이 향리를 시켜 편지와 함께 떡, 면^麵, 술, 고기로 큰 상을 차려 보냈다. 편지에 “송별하기 위해 서포촌^{西浦村}에 나왔는데, 강 가운데 있다고 들었습니다. 밤이 깊어 갈 수 없습니다. ‘물을 거슬러 올라가려 해도 길이 막히고 또한 멀어, 이른바 그대는 완전히 물 가운데 있다.’⁴²는 것과 같습니다.”라고 하였다. 그 뜻이 매우 고마웠다. 상을 받아 아이들, 손님과 함께 먹었다. 임피현감이 나를 위해 멀리 와서 지척^{咫尺}의 거리에 있는데 가서 사례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하여 작은 배로 가려고 하였으나, 사공이 밤이 어둡고 바람이 불어 노를 저어 갈 수 없다고 하여 그만두었다.

41. 새벽 1시~3시 사이를 말한다.

42. 『시경(詩經)』 국풍(國風) 진풍(秦風) 겸가(蒹葭)의 “蒹葭蒼蒼 白露爲霜 所謂伊人 在水一方 溯洄從之 道阻且長 溯游從之 宛在水中央”의 구절에서 따온 것이다.

二十七日 午 潮將退 余以藍輿出 伶樂前導 隨從甚衆 男女老少 觀者滿路 遍山可以幾千計 到津乘從船 泊于第一鹹字船下 緣梯而上 鹹字船 大而堅 故定爲領運官乘 是謂之上船 三兒及金稚恒從登 漕復監官座首 金海福 陪吏 王鍾八 領船將校 趙得柱 通引 王萬澤 李福翊 使令 金根洪 庾奉甲 金苧順 金萬淳 朴壽福 吸⁴³唱 孫甲 太山 刀子 夫祿 房子 龍孫 并隨 座首陪吏及都沙工 卽送于舒川龍堂 待夜設祭 祭文自製

43. 及의 誤

上船深五丈 長十二間 廣二間半 中有一間屋 屋之上下四面 皆板塗以紙 前雙戶 右獨窓 書額曰 凌波樓 書壁曰 春水船如天上坐 又曰 玉靈攸暨 木道坦坦 又曰 河伯海若 隨處護送 達于千里 速於一瞬 又曰 天無烈風海不揚波

是領運官居也 以米包還積爲堵 層排爲堵 屋內坐處 下鋪南草 上展艾褥 爲禦冷濕也 屋之高與舷齊 坐屋內不見外 安重如處陸 不知船之動而去 屋上設筵 張(結)翠幕 爲出坐之所 登此乃可觀水望遠 余既登(追記)船先坐屋上翠幕下 領校教使令放砲作鼓(聲)吹 諸船一

時舉帆前進 是日天氣晴朗 東風連吹 行至韓山岐浦東 臨陂西浦西
 下碇中江而宿 自熊浦至此 計可二十里夜復登屋上 以望水外 諸村
 燈火點點 昏黑無月 莫辨其爲何地也 四更臨陂倅遣吏致書 送餅麵
 酒肉一大卓 其書曰 爲敘別來坐西浦村 聞在中江直 夜深莫可往 眞
 所謂 溯回從之道阻 且長所謂 伊人宛在水中央 其意蓋款厚矣 受卓
 與兒輩及客共飽 人既爲我遠來 我在咫尺之地 不可無往謝 欲以輕
 舟進 梢工曰 夜黑風動 不可動橈 遂止

3월 28일. 하늘이 맑고 동풍이 불었다. 날이 밝아올 즈음에 작은 배를 타고 서포촌에 가서 임피현감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 사이에 술상이 나와서 조금 술을 마시고 나니 아침을 내오고 추위를 녹이는 기구도 있었다. 마치자마자 돌아왔다. 임피현감이 선소(船所⁴⁴)까지 따라 왔다가, 내가 떠나자 바로 갔다. 사시(巳時⁴⁵)에 조수를 기다렸다가 배를 움직여 조금 나아가는데 바람이 갑자기 서쪽에서 불어 돛을 내렸다. 신시(申時⁴⁶)에 퇴조(退潮)를 따라 다시 나아가 한산군과 임피현의 마지막 경계를 지났다. 과거장을 작성하여 한산군과 임피현의 호송리(護送吏)에게 주었다. 좌수와 배리 그리고 도사공이 용당진에서 제사를 지내고 돌아와 알현하였다. 신시 말에 옥구현(沃溝縣)의 군산진(群山鎭⁴⁷)을 지났다. 군산진 앞의 강물은 바다와 같이 넓었다. 군산진 역시 호남(湖南)의 세 조창(漕倉) 가운데 하나다. 강가의 작은 봉우리 아래에 군산진의 관아가 있다. 봉우리의 뒤쪽에는 창고가 줄지어 있었다. 18척의 배가 군산진 앞에 매어져 있는데, 다음달 12일이나 13일에 세곡을 싣고 떠난다고 하였다. 유시(酉時⁴⁸)에 서천포(舒川浦)에 도착하여 정박하였다. 세 아이와 김정식을 데리고 장암진(長巖鎭⁴⁹)으로 나가 민가에서 묵었다. 장암진은 서천군 소속이다. 장암진에서 송어(秀魚)와 대하(大蝦)를 보냈다. 각 읍과 진을 지날 때마다 편의대로 물고기와 해물을 보내 반찬거리를 돕는 것이 상례다. 군산진과 장암진의 호송리는 각각 고을의 마지막 경계까지

44. 배 댄 곳

45. 오전 9시~11시 사이를 말한다.

46. 오후 3시~5시 사이를 말한다.

47. 전북 군산시 장미동에 군산진 사적비가 세워져 있다.

48. 오후 5시~7시 사이를 말한다.

49. 충남 서천군 장항읍 장암리에 있었다.

따라왔다가 과거장을 받아 돌아갔다.

二十八日 天朗東風起 平明 乘從舟往西浦村 見臨陂倅 談話間酒盤
進 少飲訖飯至(追記) 兼有煖寒具喫 罷即還 臨陂倅隨到船所 移時
而去 巳時待潮行船少進 風忽西吹停帆 申時乘退潮復行 過韓山臨
陂兩邑終界 作過去狀 授兩邑護送吏 座首陪吏都沙工 行龍堂祭還
現 申末過沃溝地 群山鎮前江水闊如海 群山亦湖南三漕倉之一也
濱江小巒下 鎮軒在焉 巒之背倉厥列峙 十八艘船繫在其前 聞來月
十二三日 可載發云 酉時 到舒川浦止泊 携三兒及稚恒出長巖鎮民
舍宿 鎮屬舒川地 長巖鎮送秀魚大蝦 所過各邑鎮 隨宜送魚鮮 以助
饌需 例也 群山長巖吏校 各於其終境 受過去狀而去

3월 29일. 자시子時⁵⁰에 선소에 돌아왔다. 늦은 아침에 다시 동풍
이 불어 조운선을 운행하여 옥구의 추해桴海에 도착하였다. 앞에
차제遮堤⁵¹가 있는데, 조수가 불어나지 않으면 넘어갈 수 없어서 추해
에 닻을 내리고 정박했다. 여기는 소해小海다. 여기서 북쪽으로 가면
대해大海로 곧장 나가게 되는데 물이 얇아 위험하다고 사공이 말했다.
그래서 그 뱃길을 버리고 서쪽으로 오죽도烏竹島⁵²와 조도烏島⁵³ 두
섬 사이를 지나 비스듬히 돌아 북쪽으로 나가면 대해를 만나게 되
는데, 대해로 나아가는 데에는 오직 남풍이 유리하다고 했다. 미시
未時⁵⁴ 말에 조수가 밀려와 다시 조운선을 운행하여 신시申時에 가도
駕島⁵⁵ 앞에 도착하여 정박하였다. 가도는 오죽도와 조도 두 섬 사
이에 있는데, 역시 옥구현에 속한다. 가도 밖으로 나가면 바로 대해
다. 영남과 호남 6창倉의 조운선이 모두 이곳에 와서 남풍이 불기를
기다렸다가 출발한다. 이때 하늘이 약간⁵⁶ 흐리고 서풍이 불기 시
작했다. 밤에 2경更⁵⁷에는 비가 내렸다. 3경에 해약제海若祭⁵⁸를 선상
에서 지냈다. 제문은 내가 지었다. 향리가 의제宜祭⁵⁹가 끝났다고 고
한 후 입고 있던 흘저고리를 벗어 제물로 쓴 돼지를 싸서 물에 던졌

- 50. 밤 11시~새벽 1시 사이를 말한다.
- 51. 모래턱으로 추정된다.
- 52. 전북 군산시 오식도동에 있던 오식도(箕箕島)로 추정된다. 1875년의 『을해조행록(乙亥漕行錄)』에는 오식도(烏息島)로 기록하였다.
- 53. 1875년의 『을해조행록(乙亥漕行錄)』에 서천(舒川)의 종계(終界)로 표현되어 있어 충남 서천군 장항읍 송림리의 유부도로 추정된다. 유부도는 철새 도래지로 유명하다.
- 54. 오후 1시~3시 사이를 말한다.
- 55. 전북 군산시 오식도동에 가도공원이 있는데, 새만금사업으로 현재 육지가 되었다. 『군산도서지(群山島嶼誌)』(2018, 군산시) 참조.
- 56. ‘漸’자를 썼다가 ‘微’자로 고쳐 썼는데, 이런 곳이 여러 군데 보인다. 행초서로 쓰여졌던 임교진의 글을 옮겨 적었는데, 이를 교정한 것임을 알 수 있다.
- 57. 밤 9시~11시 사이를 말한다.
- 58. 해약은 바다의 신으로, 『장자(莊子)』 외편(外篇) 추수(秋水)에 하백(河伯)과 함께 나온다.
- 59. 토지신에게 올리는 제사를 말한다.

는데, 관례를 따른 것이다. 제를 마친 후에 세 아이, 김정식과 함께 비를 무릅쓰고 종선從船을 타고 가 가도의 민가에서 숙박하였다. 옥구 관아에서 도미어道味魚와 준어鰻魚를 보냈다.

二十九日子時還船所晚朝又得東風行船到沃溝楸海中前有遮堤非潮漲不可越故住碇楸海小海也稍工言自此北出可直抵大海而水淺而險故將捨其路西由烏竹島烏島(追記)兩間而出迤回向北而抵大海大海渡涉惟南爲利云未末潮至復行船申時到駕島前止泊駕島在烏島兩兩島之間亦沃溝地島外即大海故嶺湖六(之)倉漕船皆到此候得南風而後發時天微(漸)陰風西起夜二更雨灑三更行海若祭於船上祭文自製吏告宜祭畢脫所着單襦裹(黑)豕牲投水中間之例也從之祭後與三兒及稚恒冒雨乘從船就駕島村舍宿沃溝官送道味魚鰻魚

3월 30일. 계속 가도에 머물렀다. 비가 연이어 내리고 동풍이 크게 불어 조수의 물결이 거세지더니, 늦은 오전부터 더욱 심해졌다. 바로 눈앞에 보이는 배에도 오갈 수 없었다. 식량과 반찬거리가 배 안에 있어 점심을 걸렀다. 신시 초에 비가 그치고 바람도 조금 잦아 들었지만 비구름은 아직 걷히지 않았다. 내일 세 아이를 함열현 관아로 돌려보내려고 한다. 날이 개어도 배를 운행하는 일이 걱정되는데, 하물며 바람과 비가 심하니 어찌 될지 알 수 없다. 왕유王維의 귀산시歸山詩가 벽에 있기에 그 운韻을 따라 시를 지었다.

긴 바람 몰아치고 거센 파도 날아드니	長風翻打海潮飛
오죽도 앞바다엔 배들도 드물구나	烏竹島前舟楫稀
천 리 길 내 항해는 두렵지 않아도	不怕吾行千里涉
내일 보낼 아이들의 돌아갈 일이 걱정이네	却憂來日送兒歸

우리 항해가 다시 시작되려면 오직 남풍이 불어야 하는데, 남풍은 불지 않고 비만 심하게 내린다. 게다가 다음달 8일⁶⁰⁾ 전후로 3일간은 늘 바람과 파도가 거세어 조운선을 운항할 수 없다고 하니, 여기에 머물며 여러 날 허비할까 두렵다. 사공을 불러 날씨에 대해 물으니, “내일도 비가 올 것 같아 걱정입니다. 이 비가 그치면 내달 2, 3일에는 남풍이 불 것입니다.”라고 대답하였다. 내가 옹포에 있을 때 문_文 선달_{先達}에게 앞일에 대해 점_占을 쳤는데, 4월 2일에 반드시 순풍을 얻어 항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지금 비가 내리는 것이 그의 말과 맞아 떨어지니, 점이 맞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옥구의 향리에게 특별히 완벽한 배를 잡아 대기하라고 분부하였다. 세 아이를 보내기 위해서다. 용담의 색리_{色吏}와 익산의 세대동_{色里}稅大同色吏⁶¹⁾가 뒤따라 도착하여 나타나고, 사공 윤자중_{尹滋中}과 안필록_{安弼錄}은 도중에 알리지 않고 돌아갔다가 이제야 다시 왔다. 모두 따로 별점을 주었다.

60. ‘등석(燈夕)’은 4월 8일로, 석가의 탄생일인 관등절(觀燈節)을 말한다.

61. 전세와 대동미를 담당하는 향리로 보인다.

三十日 仍留駕島 雨連下 東風大吹 潮浪翻白 晚後益甚 雖咫尺間 不得往來 糧饌在船中 闕午炊 至申初雨止 風亦少減 而濕雲猶未解 來日將送三兒還衙中 雖霽日船行爲慮(兼) 況風雨未可知乎 見壁書 王維歸山詩 步其韻曰 長風翻打海潮飛 烏竹島前舟楫稀 不怕吾行 千里涉 却憂來日送兒歸 吾行之發 惟待南風 而南風未易得 今雨又 如此 且聞來月燈夕前後 各三日 例有風濤 不可行船 恐留此費多日 招梢工問日事 曰 雨犯明日可慮也 此雨止 而至初二三日 則南風可 得 余在熊浦 文先達言 吾爲行事卜之 來月初二日 必得順風 一帆利 達 今兩言相符 其將有中耶 分付沃溝吏 別捉完船以待 爲送三兒也 龍潭色吏 益山稅大同色吏 追到現身 沙工 尹滋中 安弼錄 到中路不 告而歸 今始復來 并別付過

4월 1일. 바람은 잦아들었지만 구름이 끼고 흐린 것은 어제와 같다.

62. 각 군현의 호장(戶長), 이방(吏房), 수형리(首刑吏)를 말한다.

초하루에 조운선을 운행하는 것은 의례 피하는 일이기에 가도에 계속 머물렀다. 옥구현감이 또 생 오징어와 병어와 생 대하를 보냈다. 사시 말에 함열현의 공형(公兄)⁶²과 삼반(三班) 40여 명이 하직하기 위해 왔다. 이전에 오지 말라고 분부했는데, 수하에 있는 사람의 도리로 어찌 오지 않을 수 있겠냐고 말했다. 영악(伶樂) 한 무리도 따라와서 내 앞에서 연주했다. 근심과 울적함을 달래기에 족하다. 점심을 먹고 나서 세 아이를 함열현 관아로 돌려보냈다. 큰아이는 출발할 때 열병이 있었는데, 갑자기 악화되어 김정식에게 약방문을 구했다. 아이들과 함께 가는 삼반도 작별 인사를 하였다. 세 아이는 옥구현에서 마련한 배에 오르고, 영악도 삼반을 따라 그들이 타고 온 배에 올랐다. 두 배가 모두 돛을 올렸다. 이때 서풍이 약간 불었고 만조(晩潮)가 들기 시작했다. 물이 잔잔하고 파도가 없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두 배가 빨리 나아갈 수 있어, 해 질 무렵에는 옹포에 무사히 도착할 것이라고 하였다. 어제만 해도 바람과 파도 때문에 걱정스러웠는데, 오늘 이와 같이 날이 좋으니 참으로 다행이다. 오직 큰아이의 병이 걱정이다. 아이들을 보낸 후 두 배가 점점 멀어지는 것을 앉아서 바라보았다. 추해(楸海)를 무사히 건너 장암진(長巖鎭)의 경계에 이른 후에는 섬들에 가려서 보이지 않았다. 내일 무사히 도착했다는 소식을 들을 수 있는 인편이 올 것이다. 기선색리(騎船色吏)를 부르고, 각 군현의 감색(監色)을 점고(點考)하였다. 익산, 고산, 용담의 감색 가운데 각각 한 사람이 오지 않았다. 이문(移文)⁶³을 보내거나 해당 군현의 감색에게 명령하여 빨리 오게 하였다. 신시에 서북쪽에 구름이 개고 햇빛이 나서 기쁘다. 함열의 문안사로 엇그제 출발한 사람이 오늘 오시에 도착하였고, 어제 출발한 사람은 사시 말에 도착했다. 어제 풍량이 심했기 때문이다. 저녁을 먹고 김정식과 함께 지팡이를 짚고 섬의 꼭대기에 올라 바라보니, 안개가 끼어 바다의 전체 형세와 뭇 섬의 진면목이 모두 희미하다. 오직 남쪽으로 부안의 변산(邊山)이 높이 솟아 크고 넓게 펼쳐졌고, 서남쪽으로 고

63. 동등한 기관 사이에 주고받는 공문을 말한다.

군산古群山 비양도飛梁島가 나란히 서 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변산은 너비가 40리, 길이가 80리라고 하였다. 해가 지려 하고 안개가 짙어져 지척 간도 알아볼 수 없다.

四月初一日 風勢頓息 而雲陰如昨 行船例忌 初一日連留駕島 沃溝官又送生烏賊魚 屏魚 生大蝦 巳未 邑中公兄三班四十餘人 爲下直來 曾以勿來分付 在下道理 不敢不來云 伶樂一部伴至 使作於前 足以破愁鬱 午飯後 送三兒還衙中 長兒宿疴臨發 忽有微(追記)漸涉(爻周) 得方於稚恒 帶去三班亦辭歸 三兒登沃溝捉待船 伶樂從三班 乘其乘來船 兩船皆有帆 是時西風微(漸)吹 晚潮初入(至) 水晏無波 人皆言 兩船可趁 晡後穩達熊浦 在昨日 以風濤憂 今日如此甚幸 而惟長兒疴症爲慮矣 送去後 坐望雙帆漸遠 無事度楸海 至(向)長巖界 其(爻周)後爲島巒所遮 不可見 明日有便可聞 安稅之報 招騎船色吏 點考各邑監色 益山 高山 龍潭監色 各一人不待 或移文 或飭該邑監色 使之趁速來現 申時 西北雲開 日光出可喜 邑問安使再昨發者 今日午時到 昨日發者 申未到 皆以昨日有風浪也 夕飯訖 與稚恒扶筇 上島巔以望時霧起 大海全形 群島眞面皆入迷昧 有見水之南 扶安邊山 高聳闊張 西南古群山飛梁島并峙 人言 邊山廣四十里 長八十里 日將入霧大漲 咫尺不可辨

4월 2일. 안개가 어제와 같이 짙어서 연이어 가도에 머물렀다. 항자선恒字船에 딸린 배가 구자선駒字船에 부딪혀 배 가장자리의 판자가 상했다. 항자선의 사공 박태혁朴泰赫이 새로운 판을 구해 바꾸고 수리하였다. 사공들을 불러 오전 늦게 안개가 개면 배를 출항할 수 있을지 물으니, “이 섬 앞에는 물이 얇아 조수가 들어와야 출항할 수 있습니다. 이 섬 외에는 원산진元山鎭만이 정박할 수 있으며, 원산진 전에 마량진馬梁鎭이 있지만 원산진만큼 안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조운선이 출발하려면 조조早潮를 타고 종일 가서 곧

바로 원산진에 닿을 수 있어야 걱정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 안개가 개더라도 늦어지면 결코 출발할 수 없습니다. 내일 날이 맑고 남풍이 분다면 큰 다행입니다. 남풍이 불지 않아도 아침에 동풍이 불고 저녁에 서풍이 불면 역시 조운선을 운항하기에 적당하며, 이렇게 되면 마량진에서 하룻밤을 지나더라도 원산진에 닿을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말하였다. 사시에 어제 출발한 함열의 문안사가 도착해서 내아(內衙)에서 보낸 편지를 보고, 어르신과 어린아이 모두 병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돌아가는 편에 아이들에게 편지를 부쳤다. 조(曹)통인(通仁)의 무리 가운데 어제 알현하지 않았던 자들이 하직하기 위해 왔다. 조군색(漕軍色) 조준국(趙俊國)이 전례에 따라 조운선에 탔어야 했는데, 일이 있어 돌아갔다가 이제야 나타났다. 그가 말하기를 “어제 해질 무렵 세 아이의 행차를 보았는데, 어렵지 않게 옹포에 도착하여 점사(店舍)에서 휴식하고, 저물기 전에 관아까지 이를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걱정하던 차에 매우 다행이다. 큰아이의 병세가 점점 심해진다고 하는데 곧바로 소식을 알 수 없어서 걱정이다. 정오 무렵 안개가 잠깐 흩어졌다가 다시 짙어졌다. 저녁 무렵 점차 개었는데 서쪽으로 바다 위를 바라보니 오히려 하늘이 가려지고 개이지 않았다. 새벽에 출발한 함열현의 문안사가 또 와서 아이들이 지난밤에 쓴 편지를 받았다. 일행은 과연 저물기 전에 무사히 도착했다고 했다. 다만 큰아이의 병세는 전날 배에 오른 후 진통이 생겨 관아로 가는 도중에 자리에 누웠다고 하여, 멀리 떨어져 있어 걱정이 많다. 김정식이 우선 약방문을 지었는데, 양위탕(養胃湯)에 시호(柴胡), 황령(黃耆), 갈근(葛根)을 보태서 보냈다. 이 약을 복용하고 바로 낫는다면 다행이지만 함열현에는 의논할 만한 의원이 없으니, 이것이 더욱 걱정이다. 옥구의 향리가 다시 도미(道味) 등의 물고기를 바쳤지만, 어머니의 친기(親忌)⁶⁴가 다가와 입재(入齋)⁶⁵하느라 이날부터 소식(素食)⁶⁶하였다.

64. '친기(親忌)'는 어머니의 기일로, 나주 임씨 족보에 따르면 임교진의 어머니 파평 윤씨 기일은 4월 4일이다.

65. 제사를 앞두고 마음과 몸을 깨끗하게 하며 부정한 일을 멀리 하는 일을 말한다.

66. 생선이나 고기 반찬이 없는 간소한 밥을 말한다.

初二日 霧漲如昨樣 連留駕島 恒字從船爲駒船所拍 邊板傷 恒船沙
 工朴泰赫 求新板改修 招諸梢工問 晚若霧捲 可發船否 曰 此島下
 水淺 潮至可泛船(爻周) 此島以外 惟元山鎮 可以停纜 元山以內 有
 馬梁稍可 而亦不如元山之穩 故自此起發 須乘早潮 終日而行直抵
 元山 可無憂也 今日雖霧捲 必晚不可發 明日若晴和 兼有南風 則大
 幸 不得南風 則雖朝東風暮西風 亦可隨宜行船如此 則當過一夜於
 馬梁 而抵元山也 巳時 邑問使昨日發者至 見內衙書 知老幼無恙 其
 回付書兒 曹通引輩 昨日未來者 爲 下直來 漕軍色 趙俊國例當騎
 船 而有所由還 今始來現言 昨日晡後 見三兒行 無撓到熊浦 下憩店
 舍 抵衙可趁未暮 慮餘甚幸 而長兒店証甚苦云 卽謹(繼)未可知 是
 爲念也 午際 霧乍銷 旋復漲塞 向夕始漸捲 而西望海上 猶遮蔽不開
 邑問安使早發者又至 得兒(■爻周)去夜書 一行果趁未暮安稅 但長
 兒店証 昨日登船後作(送)痛 還衙中 因委席 遠外憂念多矣 稚恒先
 裁一方 以送養胃湯加柴胡黃芩葛根 服(快)此卽瘳則幸 而邑無可議
 之醫 此尤(又)爲悶 沃溝吏又納道味等魚 以親忌入齋 自是日行素

4월 3일. 연이어 가도에 머물렀다. 날씨가 청명하지는 않지만 안
 개가 걷히고 해가 났다. 남풍이 조금 불어 항해하기에 적당하였지
 만 신중을 기하기 위해 출발하지 않았다. 어제 도착한 함열현의 문
 안사와 통인이 돌아간다고 아뢰기에 아이들에게 편지를 부쳤다. 옥
 구의 향리가 또 전어(箭魚)와 생 대하를 바쳤다.

初三日 連留駕島 天氣雖未清明 霧收日出 南風乍吹 時宜泛海猶有
 審慎 未果發 邑問安使及通引昨日來者告還 付書于兒輩 沃溝吏又
 納箭魚生大蝦

4월 4일. 지난밤에 하늘이 맑고 별이 밝았다. 남풍이 약간 불다
 가 새벽이 되니 갑자기 다시 구름이 졌다. 하늘은 맑지만 오랫동안

해가 나지 않고, 또 바람 한 점 없어 운항하는 일이 매우 걱정된다. 그러나 사공들이 말하기를 “오늘 출발하지 않으면 8일 이후까지 머물러야 출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출발한 후에 구름이 개고 바람이 불면 조운선을 운항해서 마량진에 이를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각 배에 명령하여 돛을 올리고 물러나는 조수를 타고 가도 밖으로 나아가 기다리게 하였다. 오늘은 어머니의 기일이다. 아이들에게 미리 이르기, 조운선을 통솔하여 한양에 가야 하기 때문에 축문과 과일 등은 미리 준비했고 함열현에서 제수를 상납할 것이라고 하였다. 내가 처음으로 제사를 직접 지낼 수 없어서 말할 수 없이 슬프다. 공무를 맡아 향해 중이라 망곡⁶⁷을 할 수도 없다. 자시 초가 되어 제사를 모실 시간에 관세⁶⁸하고 관복⁶⁹을 입고 앉은 채로 보냈다. 어제 큰아이의 병세가 심해져 밤까지 진통이 있었으니 제사는 둘째 아이가 맡아 지냈을 것이다. 사시에 구름이 조금 개자 사공이 출발해야 한다고 와서 고하였다. 나는 종선을 타고 이미 큰 바다에 나가 있는 큰 배로 나아갔다. 상선에 올라 사방을 둘러보니, 푸른 물결이 일색으로 크고 넓어 가도 없고 끝도 없이 곧바로 하늘에 닿았다. 크고 작은 섬들이 여기저기 바둑돌처럼 놓여 있어 일대 장관이었다. 그때 갑자기 북풍이 불어 배가 거꾸로 가려 하였으나 조수의 흐름은 순탄하였다. 사공의 말이 틀리지 않았지만 운행이 지체되어 멀리 가지는 못했다. 오죽도의 서쪽을 지나면 옥구현 지경의 끝이고 서천군의 서쪽 경계다. 옥구현의 향리가 과거장을 받아 갔다. 오죽도의 밖에는 비홍이도⁷⁰가 있는데 작은 섬이다. 그 서쪽이 바로 고군산도⁷¹다. 그 산세는 남북이 길고, 바다를 사이에 두고 멀리 만경현⁷²을 바라보는 큰 섬이다. 고군산도의 북쪽에는 동발우도⁷³가 있다. 김정식이 말하기를 “전에 이 섬에 대해 들었는데 사는 사람은 없고 무덤 자리가 있는데, 금계포란형⁷⁴이라고 떠들며 길지라고 칭송한다.”고 하였다. 돛 밖으로 동북쪽에 유난히 우뚝 솟은 산이 멀리 보였다.

67. 먼 곳에서 어버이의 상사(喪事)나 제사를 맞았지만 달려갈 수 없어 그곳을 바라보고 슬피 우는 일을 말한다.

68. 제례 때 대야에 물을 담아서 손을 씻는 의식을 말한다.

물으니 홍주목洪州牧와 서천군의 경계에 있는 연도烟島라고 하였다. 돌아가는 길에는 당연히 그 아래를 지나야 한다. 배 앞 몇 리쯤에 바다의 모양이 홀연 높아져 제방처럼 보이는데 그 아래가 어살漁箭을 설치한 곳이다. 고기잡이배가 100척 정도 되었다. 모두 돛을 올리고 바다를 가로지르며 늘어서서 ‘一’ 자형을 이루었는데 이 또한 기이한 장관이다. 오후에 서북풍이 불어 나아갈 수 없어 신시 말⁶⁹⁾에 개화도開花島⁷⁰⁾로 향했다. 이곳은 죽도竹島⁷¹⁾ 옆의 섬으로 서천군에 속한다. 서천군의 호송리 한 사람이 여기에 이르러 비로소 알현해서, 바로 잡아들여 서천군 경계의 기점에서 기다리지 않은 것과 장교도 없이 홀로 온 죄를 물었다. 저녁을 먹고 나서 작은 배를 타고 개화도에 들어갔다. 마을이 섬의 위아래에 있었다. 하촌下村은 24~25호이고, 문은 모두 바다를 향해 열려 있다. 어선 60~70척이 높은 돛대에 돛을 내리고 마을 앞에 줄지어 매여 있다. 풍기風旗가 연달아 펄럭이고 사람들의 소리가 왁자지껄하여 시장과 같다. 상촌上村은 100여 호로 언덕이 감싸고 있어 바다가 보이지 않으나, 밀물과 썰물은 항구로 드나들곤 한다. 섬 안에는 논水田 두둑이 이어져 3섬지기 정도가 될 듯하니, 역시 이름난 섬이다. 나는 배에서 내려 남여藍輿를 타고 하촌으로 향했다. 길가에 상투머리를 한 6, 7명이 서로 말하기를 “우리 현감님이 오셨다.”고 하였다. 살펴보니 함열 사람들로 물고기를 잡으러 온 것이었다. 민가를 잡아 묵었다. 가도에서 여기까지 10리 정도의 거리지만, 배로 운항한 거리는 거의 20리가 되었다. 바람을 맞이하기 위하여 조수의 출입에 맞추어 우회한 것이다.

初四日 去夜天清星明 南風微(漸)吹 至曉忽復雲陰 天明久而不見日 又無一點風 行事甚悶 然沙工輩言 今日未發 則勢將留過燈夕而後發 今發後 若雲開風生 猶可行船 抵馬梁鎮 令各船舉帆 乘退潮出島外 以待從之 是日先妣忌祀也 先諭兒輩 使以領漕赴京 措辭祝

- 69. 오후 5시에 가까운 시간이다.
- 70. 현재 전북 군산시 옥도면 개야도로 추정된다.
- 71. 현재 전북 군산시 옥도면 죽도로 개야도 가까이에 있다.

中果品 已有備置 以邑俸供祀需 卽吾初有而未得躬 將祀事兼洩不泊之慟 方帶公役 在旅舍 又不可爲望哭 子初可行祀時 盥洗冠(巾)服而坐以送 昨日爲長兒疝直若至夜作痛 則祀事應屬之仲兒以行也 巳時雲陰稍開 沙工告當發 余乘從船而進 諸大船已出 在大洋中 登上船四顧 一色碧波 滔滔汪汪 無涯無際直與天接 大小島嶼 往往碁置 儘大觀也 時忽有北風 船將逆去(在) 然潮勢則順 故梢工以不妨言 但行遲不可遠去 過烏竹之西 是沃溝終境 舒川西界 沃溝吏受(追記)過去狀而去 烏島之外 有飛鴻二島 小島也 其西卽古群山 山勢長袤 隔水立瞻(曠)萬頃縣 大島也 古群山之北 有同鉢孟島 稚恒言 嘗聞是島 無人居 有葬穴喝作 金鷄抱卵形 稱爲大地 帆外東北(西) 遙見有特巒卓立 問之洪州舒川界 烟島也 去路當過其下 帆前數里許 海形忽高 如堤 其下漁箭設處也 有漁艇百許艘 皆掛帆橫海 羅立作一字形亦奇觀也 晚後有西北風 不可進行 申末 向開花島 是(追記)竹島之(追記)隣島舒川地也 舒川護送吏一人 至此始來現 故捉入責其初境不待無校獨來之罪 夕飯訖 以小船入島 島村有上下村二十四五家 門皆臨水而開 有漁船六七十隻 高檣落帆列繫於前 風旗聯飄 衆囂如市 上村百餘戶 崗麓拱抱 不見海洋 亦有潮汐水進退於巷口 其內水田連陸 可爲數三石落 亦名島也 余既(爻周)下船 乘藍輿 向下村 道側有椎髻六七八人相告曰 吾案前主來 料是咸悅民爲漁來者也 就民舍而宿 自駕島至此 厖十里 而船行則殆二十里 以遇迎風 故順潮出入 而爲迂回也

4월 5일. 지난밤 사방이 흐렸지만 천성^天토이^土이 밝아 내일은 청명할 것이라고 하였다. 새벽에 일어나 보니 구름이 하늘에 가득하다. 어제와 오늘은 경진일과 신사일⁷²⁾이다. 비가 올까 두려웠다. 사공들이 서서 말하기를 “하늘에 구름이 끼고 흐리지만, 남풍이 막 불어 오니 이때를 놓칠 수 없습니다.”라고 하였다. 상선에 오르기를 청하기에 나는 작은 배를 타고 죽도 앞으로 향하니 모든 조운선들이 이

72. 1863년 4월 4일과 5일은 계해(癸亥)년 정사(丁巳)월 경진(庚辰)과 신사(申巳)일에 해당하여 진사(辰巳)일이라고 표현하였다. 날의 간지가 진이나 사인 날은 흔히 날이 꺾다 하여, 이날에 내리는 눈이나 비를 진사치라고 한다.

미 나와 섬 밖에 있었다. 노를 부지런히 젓게 하여 조운선에 다다랐더니, 갑자기 다시 돛을 돌렸다. 물으니 “잠시 남풍이 불어 나아가려 했으니 지금 건방풍乾方風, 북서풍을 만나 운행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였다. 따라서 모든 배를 돌려 개화도와 죽도 두 섬 사이에 정박하였다. 나는 죽도의 민가에 들어가 쉬었다. 죽도는 동쪽을 향해 열려 있고, 대숲에 싸여 있었다. 땅이 좁아서 사는 사람은 6, 7호戶였다. 사시에 비가 장마처럼 내리다가 정오가 되어 그쳤다. 그러나 구름은 걷히지 않고 건방풍도 그치지 않아 계속 머물렀다.

初五日 去夜四垂雖陰 醫中天星朗 謂來日可清明 早起視之 雲陰滿天 昨今辰巳日也 恐有雨 沙工立告曰 天雖雲陰 南風方起 時不可失 請出上船 余乘小船 向竹島前 諸大船已出在島外 方促棹忙赴諸大船 忽復回帆 問之 曰 俄得南風而進 今遇乾方風 不可行 故還諸船 停纜於花竹兩島之間 余入竹島民舍而憩 島向東而開竹藪被焉 基址窄 居民厪六七戶 巳時 雨霏灑 至午乃止 而雲陰未開 乾風不止 仍留宿

4월 6일. 밤부터 다시 비가 내려 아침까지 이어졌다. 조수가 들어올 무렵 건방풍이 갑자기 크게 불고 파도가 거세게 일었다. 사공 박규섭朴圭燮이 말았던 만자선萬字船이 풍랑에 휩쓸려 닻을 잃고 남쪽으로 달리는데 그 빠르기가 화살 같았다. 배를 멈출 수 없었는데, 마침 가운데에 있던 암탄巖灘에 걸려 멈추었다. 배가 부서져서 즉각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 급하게 모든 배의 사공과 조졸漕卒을 모아 일제히 종선의 노를 저어 달려갔다. 또 섬 주변의 고기잡이 배들도 모아 보냈다. 바람과 파도를 무릅쓰고 만자선 아래에 들어서 정박한 후에 곡물을 배에서 내려 옮겨 왔다. 어떤 사람은 만자선이 반드시 부서지고 말 것이라고 말하였다. 곡물은 지방관이 도착해서 모이기를 기다렸다가 함께 감독하여 내려야 뒷말이 없는 법이

었다. 내가 이르기를 “이 곡물은 한양에서 애타게 기다리는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힘을 다하여 마련한 것이다. 나 역시 세곡을 납부하는 일에 마음을 쓰는 사람이다. 한두 섬이라고 물에 젖지 않은 것을 배에서 내리는 것이 당연한 일이니, 어찌 물에 빠져 젖어 가는데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앉아서 바라볼 수 있겠는가. 뒷말을 면하기만 바라면서 지체하여 지방관이 오기를 기다린다면 반드시 아무 것도 하지 못할 것이다. 또한 내가 영운관領運官인데, 내가 맡아 운반하는 일에 지방관 아무개를 반드시 기다려야만 하겠는가. 나는 오직 나의 직무를 위할 뿐 뒷말은 두려워할 바가 아니다.”라고 하였다. 마침 내 비를 무릅쓰고 풍랑의 앞머리에 서서 큰 소리로 독려하였다. 곡물을 나르던 사람들의 말을 들으니 곡물 섬 가운데 젖은 것이 적어도 백 수십 섬 이상이며, 배도 전체가 파손되는 것을 면하지 못할 것이며 뒤틀어졌다고 하였다. 잠시 후에 조수가 물러나고 암탄이 뽕족하게 노출된 곳을 바라보니, 높고 낮은 것이 일정하지 않았다. 배가 그 위에 걸려있는데 물가에서 1장 쯤 떨어져 있었다. 내가 더 이상 물에 젖을 염려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계속 작은 배들을 독려하여 만자선 가까이 가게 하였다. 바쁘게 날라 나르는 일을 마친 뒤, 포대를 하나하나 검사해보니 모두 마르고 깨끗하여 조금도 물에 젖지 않았다. 포대 수를 맞추어보니 남는 것은 인정으로 쓸 후곡後穀이었고, 양식으로 쓸 곡식 수십 섬만이 간혹 물에 젖었다. 배가 이렇게 암탄에 걸렸는데 곡물이 이처럼 완전한 것은 전에는 없던 일이라고 사람들이 말했다. 참으로 천만다행이다. 섬 마을의 깨끗한 곳에 곡물을 쌓게 하였다. 다시 작은 배들을 보내 힘을 합해 만자선을 끌어오게 하여 살펴보니 뒤틀어진 형태는 이미 바로 잡혀있었다. 다만 옆면의 여러 곳에 판이 어그러지고 터져 있었다. 조금 수리하고 부재를 갈면 다시 쓸 수 있을 것 같다. 이 배는 큰 배라서 갑자기 수리할 수 없기에 어쩔 수 없이 배를 다시 빌릴 계획을 세웠다. 들으니 근래 각 포의 모든 큰 배들이 먼 곳으로 다 흩

어저 나가서 600~700섬을 실을 수 있는 배도 쉽게 구할 수 없고, 1,000섬을 실을 수 있는 배는 더욱 구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형세를 보니 앞으로 배가 구해지는 대로 곡물을 실어야 하고, 나머지 곡식은 임시로 각각의 배에 나누어 실을 수 밖에 없었다. 이러한 사정을 모두 기록하여 우선 순영巡營, 전라감영과 금영錦營, 충청감영, 호조戶曹, 선혜청宣惠廳, 광흥창廣興倉에 보고하고, 지방관地方官에 이문移文을 보내 빨리 임선賃船, 샛배을 구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 도사공 전종환全宗煥을 응포와 강경의 두 포구로 보내 배를 구하게 했다. 사공 박규섭朴圭燮이 임무를 맡을 수 없게 되어, 박태우朴泰祐를 대신 임명하였다. 오전 늦게 비가 그쳤다. 풍랑風浪도 같이 잦아들었다. 계속해서 머물렀다.

初六日 自夜復雨 至朝連下方潮入時 乾風忽大作 波濤洶湧 沙工朴圭燮所掌萬字船 爲風浪所暴 拍拖碇南走 其疾如箭 勢不可住 適掛於中流巖灘而止 破敗在即罔措莫甚 急促諸船沙工漕卒一齊棹從船而進 又捉島近諸漁船以送 冒入風濤 圍泊於萬字船下卸載穀物以來 人或言 船必破敗矣 穀物待地方官來會 眼同卸下 可無後言 余曰 此穀京師所懸待 衆民所竭力 余亦費心收捧者也 雖一二包 及其未沈而卸下 爲當然事 何可坐視其 沒入沈濕而不爲之計乎 徒欲免後言 遲待地方官來會 則其必無及矣 且余是領運官 吾所領運者 何必待地方官謀乎 吾惟爲吾職耳 後言非所畏也 遂冒雨出立於風浪之頭 喝聲以督之 聞卸運者言曰 穀包被濕者 必不下百數十 船亦未免觸傷全體 有反張形 少頃潮落 望見灘巖露尖 高低不齊 船掛其上 離水丈餘 余謂 今可無添濕之患 連督諸小船 使之迨此 忙運及盡運 逐包檢之 皆乾淨 無沾濕數較勘合 而有剩剩者 後穀也 惟糧米(追記)數十石 間多被水者 人皆以船既掛灘 穀如是完 前所未見 言誠萬幸也 因積于島村淨地 復情費也 惟糧米(爻周) 遣諸小船 使并力曳掛船以來 視之反張之形 已復正矣 但傍下數處板戾而朴綻 略加修改

可復入用 而此巨艦也 非倉卒可爲 故不得已爲賃船之計 聞近日各浦諸大船 皆散出遠地 雖六七百石容載者 未易求 至於(況)千石可載者 其得尤難 勢將隨所執登載 而(追記)餘穀則從權播載各船 具此由先報于巡營 錦營 戶曹 宣惠廳 廣興倉 移文于地方官 托速捉賃船 又遣都沙工全宗煥於熊鏡兩浦之間 以求之 沙工朴圭燮不可任 使以朴泰祐改差 至晚雨至 風浪亦向息 仍留宿

4월 7일. 구름이 개고 해가 밝게 나왔다. 오시에 서천군수舒川郡守 조병완趙秉完⁷³⁾이 어제의 일을 듣고 왔다. 나는 임선으로 아무리 큰 배를 얻는다 해도 반드시 600~700석 이상을 실지 못하므로, 임선에 실지 못하는 곡식은 결국 다른 배들에 실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또 들리는 말에, 이곳의 바다 안에는 암탄이 있어 모든 배들이 오랫동안 머물 수 없으므로 일찍 떠나는 것이 낫다고 하였다. 그래서 모든 사공들에게 분부하여 우선 내려놓은 곡식 270여 섬을 각각의 조운선으로 나르게 하고, 내일 아침까지 기다렸다가 원산진元山鎭⁷⁴⁾의 파도를 피할 수 있는 곳으로 가게 하였다. 그리고 남겨진 곡식은 샅배가 오기를 기다렸다가 배에 실어서 원산으로 쫓아오게 했다. 막 나누어 실으려 할 때, 마침 서천군수와 향리 여러 명이 와서 지방관이 오는 것을 기다리지 않고 급하게 먼저 곡식을 실었다고 책망하며, 조운선이 부서진 일致敗⁷⁵⁾을 함께 살피고 관계된 모든 사람을 잡아다가 심문해야 한다고 하였다. 나 역시 보내주지 않았다. 그러나 이는 아무 일도 없는데 일을 만드는 것이었다. 대개 조운선이 부서져 곡물이 물에 젖으면 흠축欠縮⁷⁶⁾이 생긴 것을 논하는 것인데, 이번에는 물에 젖지도 않았고 흠축도 없었다. 책임을 맡은 차사원差使員이 조운을 스스로 감독하고 있는데, 지방관이 어찌 억지로 치패의 책임을 물을 수 있겠는가. 저 곡물 가운데 반드시 물에 젖은 곡물이 없지 않을 것이 걱정이지만 그렇지 않았다. 곡물을 살펴보니 마르고 깨끗한 것이 상납해야 할 숫자보다 많았다. 곡식을 나를 때

73. 1862년 5월 14일에 서천군수에 임명되었다. 뒤의 기록에 보이는 것과 같이 조두순(趙斗淳) 집안의 사람이었다.

74. 충남 보령시 오천면 원산도에 진촌이 있다.

75. 치패(致敗)는 여지없이 결단이 난 것을 말하며, 주로 조운선의 사고를 말한다.『續大典』2, 戶典 漕轉, “凡漕運船致敗 地方官聞即不計昏夜 親往擲奸拯出”) ”

76. 본래의 양에서 부족분이 생긴 것을 말한다.

개화도와 죽도의 도민이 모두 보아서 알고 있어, 이것으로 증명할 수 있었다. 만일 흙축이 걱정이라면 이것 역시 그렇지 않았다. 다른 배에 옮겨 실은 곡식이 얼마인지 마침 향리들이 와서 보았다. 옮겨 실은 곡식 외에 890여 섬은 섬 마을에 쌓아 놓았는데, 향리들이 숫자를 헤아려볼 수 있었다. 그들의 수령에게 보고하기를, 장부와 대조하여 보니 남은 곡식이 있다고 하였다. 수령이 된 자로서 어찌 다시 의문을 갖는다 말인가. 설령 약간의 젖은 곡식과 흙축이 있더라도 이는 영운관이 근심해야 할 일이지 지방관과 관계된 일이 아니었다. 하물며 본래 젖은 곡식과 흙축이 없는데 어찌란 말인가. 곡식을 다른 배에 옮겨 실은 일은 비록 법에 어긋난다 하여도 내 스스로 법을 어겼으니 역시 어찌 지방관에게 책임을 미루겠는가. 조운하는 중로에 배를 빌리고, 남은 곡물을 다른 배에 옮겨 실은 일도 형세의 부득이함에서 나온 일이었다. 경사^{京司}⁷⁷⁾도 양해하여 허락한 일인데, 서천군수가 어찌 허물로 잡으려 하는가. 섬사람들의 말을 들으니 이 일은 아랫것들이 생트집을 잡아 뇌물을 받아먹으려는 계략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였다. 지난번에 어떤 자가 뒷말을 걱정했는데, 이것을 말한 것이었다. 그러나 나는 잃은 것이 없으니 어찌 꺼릴 것이 있겠는가. 서천군수를 만났고 이치를 들어 말하였다. 그러자 이해하면서 만자선의 사공을 데려가게 해달라고 청하였다. 물으니 곧바로 돌아올 수 있다고 말하기에 허락하였다. 야밤 3경에 갑자기 이문^{移文}이 왔는데, 다시 생각해보니 옳지 않아 도사공 등 모든 사람을 잡아가겠다고 하였다. 도사공은 이미 샅배를 구하러 멀리 갔고, 그 외의 사람들은 바람을 기다렸다가 떠날 예정이었기에 모두 보내지 않았다. 다만 만자선의 격군^{格軍} 2명을 보냈다. 이날 바다에 파도가 크게 일어 모든 배가 흔들리고 돛대가 허공에 떠돌아 지탱할 수 없을 듯하였다. 사공과 조졸^{漕卒}들에게 새벽까지 엄하게 경계하게 했다. 나 또한 걱정이 되어 잠들지 못했다.

77. 세곡을 납부할 호조(戶曹), 선혜청(宣惠廳), 광흥창(廣興倉) 등 서울에 있던 관청을 말한다.

初七日 雲開日朗 午時 舒川郡守趙秉完 聞昨日事出來 余念賃船 雖得稍大者 必不過六七百石容載 畢竟以賃船餘穀 播載各船矣 且聞 此洋有內灘 諸船不可久住 不如早爲之計 遂分付諸沙工 使就卸下穀 先以二百七十餘石 播載各船 待明朝 往元山波穩處 而住留穀 待賃船來登載 追到元山方播載也 舒川守及吏校 幾多名適至 以不待地方官來 而徑先播載爲咎 視同致敗推捉應問各人 余并不許送 然此欲無事中生事者也 蓋漕船致敗 以穀物之沈濕 欠縮論而 今無沈濕 又無欠縮 差使員所領運者自如矣 地方官何可勒歸(侵)之於致敗乎 彼若以箇中必不無沈濕爲慮 則有不然者 穀色乾淨者 過於上納之數 在卸運時 花竹兩島民皆見而知之 此可爲證 若以欠縮爲慮 則亦有不然者 播載者之爲幾石 其吏校適來見之矣 播載外 八百九十餘石之 積在島村者 其諸吏亦計數 而告于其官曰 并較之 勘合有剩云矣 爲其倅者 復有何疑(報)乎 設有若干沈濕欠縮 此領運官之憂也 非有關於地方官 而況初無沈濕欠縮乎 至若播載 雖云法外 我自爲法外事也 亦何預於地方官乎 中路賃船餘穀之 從權播載 固出於事勢之不得已 則京司亦應諒許 舒川倅何可執咎乎 聞島民言 此專由於下輩(背) 憑藉生事 夤緣討賂之計云 向時 或者之 以後言慮者 卽謂是也 然吾旣無失 有何可憚乎 舒川倅來見 故據理以語之 則乃以爲然請率去 該船沙工問 言卽還 故許之 夜三更忽又移文 曰 更思之 有不然者 都沙工等諸人 并復推捉矣 都沙工已爲求賃船遠去 其餘諸人將待風進發 故并不送 只送該船格軍二名 是夜海底 遊波大作 諸船搖漾 高檣麾空 若不可支 沙工漕卒 達曉戒嚴 余亦憂慮不得眠

4월 8일. 새벽이 되자 남풍이 마침 불어왔다. 사공이 떠나야 된다고 말하기에 나는 서천군의 호송선을 타고 나갔다. 모든 조운선들이 이미 섬 밖으로 나와 있었다. 뒤쫓아 가서 상선에 올랐다. 좌수와 조군색과 사령 1명에게 분부하여 쌓아 놓은 곡물

을 남아서 지키다가, 샛배가 오기를 기다려 곧바로 신고 쫓아오게 하였다. 서천군수도 장교와 향리를 보내 함께 지키게 하였다. 배를 운항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하늘이 맑아지고 파도가 잔잔해졌다. 남풍이 연달아 불어 배가 화살과 같이 빠르게 나갔다. 사공이 말하기를 신시 전에 원산진에 닿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오시가 되자 남풍이 갑자기 그쳤다. 이로 인해 조금씩 나아가니 해가 저물 무렵 원산진元山鎭 고대도古堡島⁷⁸⁾에 닿았다. 배에서 함열현에서 보낸 편지를 보고, 제사를 들째 아이가 대신 해서 지냈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었다. 큰아이의 병은 간간이 고통이 심하다 하여 다시 김정식에게 약방문을 받아서 보냈다. 또한 호장과 건장한 장교 1명에게 전령傳令⁷⁹⁾을 보내, 죽도로 빨리 가서 남겨진 곡식을 함께 지키게 하였다. 배에서 내려 민가에 들어갔다. 대호송관大護送官인 마량진 첨사馬梁鎭僉使 송응엽宋應燁과 원산진 별장元山鎭別將 이재용李在容이 와서 만났다. 지나온 비인현庇仁縣과 남포현과 홍주목洪州牧의 호송리도 함께 따라 왔다. 보령현保寧縣의 호송리만 오지 않았다. 죽도에 떨어진 후 배 1척이 서천에서 오지 못했으므로 호송장護送狀을 발급해주지 않았다. 여기에서 죽도까지 거리가 제법 멀어 샛배를 구했는지 여부를 알 수 없다. 샛배를 구했다라도 800~900석을 실을 수 있는지 확신할 수 없다. 원산진의 장교將校에게 분부하여 중선中船 한 척을 구하게 하고, 장교리와 사공 배권석裵權錫에게 죽도로 가서 우선 100여 석을 실어오게 하였다. 남포현藍浦縣에서 전례에 따라 벼루硯石 2개를 바쳤다. 고대도의 마을에는 예감고禮監考가 있어, 조운관漕運官이 도착해서 머무르면 관례에 따라 마을 각 호에서 물고기와 해물을 거두어 끼니때마다 반찬거리를 바쳤다. 들으니, 고대도는 옛날에 물고기가 잘 잡혀 민호가 많았으나 200년 전부터 어살이 나빠져서 마을은 쇠하고 호수가 줄었다고 하였다. 그래서 예감고에게 분부하여 끼니때마다 바치지 말고 하루에 한 번만 바치게 하였다. 섬의

78. 충남 보령시 오천면 고대도로 원산도 가까이에 있다.

79. 관부(官府)에서 예하의 관리나 면임(面任), 민(民) 등에게 내리는 명령서를 말한다.

북쪽에 물을 사이에 두고 안면도安眠島가 있어 가까운데, 송림이 울창하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너비가 10리, 길이가 40리라고 하였다. 이날 밤이 등석燈夕이다. 김정식과 함께 문을 나섰다. 물가에 이르러 하늘을 보니 달빛이 약간 밝게 빛났다. 11척의 배 모두 돛대 끝에 등을 걸었다. 한 개, 두 개 혹은 세 개 불빛이 수면에 비쳤다. 함열 관아에서 어린 손주 남매를 위해 장대를 세워 등을 걸고 그것을 구경하며 웃고 즐길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멀리 있어 그 광경을 볼 수 없다. 고대도에서 그대로 묵었다.

初八日 將曉 南風適至 沙工告當發 余乘舒川護送舡而進 諸大舡已出島口 迫往登上船 分付座首與漕軍色及使令一名 留守積穀 待賃船來 卽載追到 舒川官亦遣將吏 共守之 船行少頃天明波定 南風連吹 船疾如箭 稍工言 可趁申前抵元山 至午 南風忽止 以是而厖趁日暮抵元山鎮古堡島 在船見衙書 始知祀事利行仲兒代裸 長兒疋証間又添患 更得方於稚恒以送 又傳令戶長與健校 速赴竹島 共守留穀 下船入村舍 大護送官 馬梁僉使 宋應燁 元山別將 李在容來見 所過庇仁 藍浦 洪州 護送吏 并隨到 保寧吏獨不來護送狀 以竹島落後 一船未來 自舒川并姑不成給 此距竹島稍遠 賃船捉否 漠然未聞 雖得賃船 能載八九百石 未可必 分付元山鎮校 捉得一中船 使鎮校及沙工裴權錫 往竹島 先輸百餘石以來 藍浦例納硯石二坐 古堡島里中 有禮監考者 例於漕官到留 收魚鮮於里中 各戶逐時供饌需 聞此島舊賴漁利 民戶恰 過二百年來漁箭不利 里凋而戶減 故分付禮監考 使勿逐時 只日一供 島之北有安眠島 隔水而近 松林鬱茂 人言 廣十里 長四十里 是夜燈夕也(追記) 與稚恒 出門臨水 而望時月色微(漸)明 十一船皆揭燈檣頭 或一 或二 或三 光映水面 因想衙中爲幼孫甥妹 豎竿懸燈 其賞玩嬉笑之狀 遠不可見也 仍留宿

4월 9일. 고대도에서 연이어 머물렀다. 날씨가 청화하고 남풍도

불어 배를 운항하기에 적당했다. 하지만 죽도에 남겨진 곡식이 오지 않았고, 모든 배가 이곳에 도착한 뒤에 신에게 제사지내는 관례가 있어 떠나지 못했다.

初九日 連留古堡 日候清和 兼有南風 正宜行船 而竹島留穀未來 各船到此 有禱神之例 不得發

4월 10일. 고대도에서 연이어 머물렀다. 아침부터 안개가 심해져 산과 물을 분간할 수 없었다. 바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서풍이 바다에서 불어오면 안개가 끼고, 동풍이나 남풍 또는 북풍이 불면 걷힌다고 하였다. 죽도의 소식은 아는 것이 없고, 엇그제 보낸 배도 언제 돌아올지 알 수 없다. 비인과 남포의 호송리에게 분부하여 죽도로 빨리 가서 사정을 알아보고 호위하게 하였다. 엇그제 보낸 배가 돌아왔는데, 싹배를 구할 수 없어 오로지 서천군과 도사공에게 기댈 수밖에 없다고 하였다. 그래서 원산진 이방吏房과 고대도 동장洞長을 불러 널리 큰 배를 구하게 하고, 동민 10여 명을 거느리고 안흥安興 쪽으로 가게 하였다. 신시에 남풍이 잠깐 불어 안개가 차츰 개었다.

初十日 連留古堡 自朝霧漲 不辨山水 海人言 西風自海吹入則霧得 東南北風乃捲 竹島消息無以得 再昨所送船亦不知何時可還 分付 庇仁藍浦護送吏 馳往竹島 探信兼護 再昨所送船以來 賃船不可 專靠於舒川及都沙工 故招元山鎮吏房及古堡洞長 使廣求大船 率洞民十許名 向安興間而去 申時 南風乍起 霧漸捲

4월 11일. 고대도에서 연이어 머물렀다. 동이 틀 무렵 서풍이 연달아 불어 해무가 다시 심해졌다. 갑자기 남풍이 불다가 서풍이 불어 해무도 잠깐 열어젖다가 심해졌다. 바다에서 해무를 만나면 운행이 불가능하다. 죽도 소식도 없어 몹시 우울하다. 사공 정기은鄭基殷이

부시賦詩에 능해 율시律詩 한 수를 지어 봐 달라고 청했다. 그 운에 따라 시를 지었다.

누선이 저물 무렵 고대도에 정박하니	樓船暮泊古臺頭
큰 바다에 여섯 개의 섬이 떠있네	大海中分六島洲
바다 마을 살림은 고기잡이에 달렸고	村戶貧饒關捉蟹
장삿배 오고 가니 갈매기가 뒤따르네	商帆來去任隨鷗
일행들은 먼 항해에 경험이 많고	一行遠涉多經險
사흘간 머물러 쉴 겨를도 있구나	三日淹留得暇遊
조운하는 일에 신의 가호가 있음을 알기에	此役定知神有護
앞길의 바람과 해무는 근심하지 않는다네	前程風霧不須愁

마량진 첨사馬梁鎭僉使가 호송하기 위해 옆집에 머물렀다. 들으니 병이 있는데도 억지로 왔다고 한다.

十一日 連留古堡 自開東時 西風連吹 霧復漲 風忽南忽西 霧亦隨而乍薄乍重 海上值霧 則不可行 竹島信阻 憂鬱甚矣 沙工鄭基殷 能賦詩 作一律詩請(追記)考 仍步其韻曰

樓船暮泊古臺頭 大海中分六島洲 村戶貧饒關捉蟹 商帆來去任隨鷗 一行遠涉多經險 三日淹留得暇遊 此役定知神有護 前程風霧不須(滇)愁

馬梁僉使爲護行 留在傍舍 聞有病伴(係) 訊強病來謝

4월 12일. 고대도에서 연이어 머물렀다. 아침에 해무가 어제처럼 심해졌다. 죽도를 떠난 지 5일이 되었는데 배가 움직일 수 없다. 원산진 이방과 고대도의 동장이 삿배를 구하기 위해 근처의 섬으로

갔는데 역시 돌아오지 않았다. 처음에 15일 경에 생기는 조수를 따라 서울에 닿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지금 여기에 앉아 여러 날을 허송하고, 떠날 수 있는 날도 기약할 수 없으니 걱정이 많다. 사시에 해무가 조금 개어 햇빛이 났다. 갑자기 큰 배 1척이 보였는데 높은 돛을 달고 작은 배를 거느리고 남쪽에서 오고 있었다. 그 뒤에 중선中船 1척이 있었는데 쌍돛을 달고 따라오고 있었다. 이것이 죽도의 곡물을 싣고 오는 샅배로, 8일 저녁에 보낸 배와 함께 왔다고 말하였다. 사공들과 향리들이 물가에 줄지어 서서 기다리고 있다가 가까이 와서야 다른 배라는 것을 알았다. 그 거쳐 온 길을 물으니 중선이 어제 죽도 앞을 지나다가 3, 4척의 작은 배가 줄지어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았는데, 곡식을 싣고 있었는지 상세한 것을 알 수 없었다고 하였다. 큰 배는 경강선京江船인데, 선주船主가 자신의 이름이 이견양李健陽이며, 용산龍山사람이라고 했다. 그 사람의 호패號牌에 새겨진 이름을 살펴보니 견양이 아니라 다른 이름이었고, 사는 곳은 용산이 아니라 김포金浦다. 연유를 물으니 호패에 있는 이름이 본명本名이고, 김포는 옛날에 살던 곳이라고 하였다. 싣고 있는 곡식에 대해 물으니, 쌀과 벼를 합해 450섬이라고 하였다. 곡식의 주인이 누구인지 물으니, 경강京江에 사는 여러 사람이라고 하였다. 내가 “이 배를 빌려 쓸 수 있겠다.”라고 말하였다. 즉시 곡식을 내리게 하여 내가 머물던 집의 마당에 쌓게 하고 집주인과 마을의 여러 소임所任을 불러 쌀과 벼를 말로 되게 하여 섬으로 계산하여 맡긴 후, 잘 지키며 견양이 찾으러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다. 그리고 집주인과 여러 소임의 고음拷音⁸⁰⁾을 받았다. 이견양의 배에 격군이 몇인지 물으니 겨우 5명이었다. 사공 양종하梁宗廈에게 분부하여 각 배에서 격군 18명을 데리고 이견양의 배를 타고 죽도로 가서 남겨진 세곡을 싣고 오라고 하였다. 세곡은 많고 배가 좁을 일을 염려하여 마량진첨사가 타고 온 배를 빌려 함께 보냈다. 때가 이미 밤이 늦었지만 달빛이 밝아 익숙한 길을 찾을 수 있다. 양종하가 겨우 1리쯤

80. 관아에서 백성에게 다짐을 받은 문서를 말한다.

81. 뒤의 기록을 보면 강경(江鏡)으로 보인다.

갔을 때 배 한 척을 만났는데 죽도에서 오는 배냐고 물으니 어제 죽도를 지났다고 하였다. 조운할 세곡에 대해 물으니, 샅배는 진(鱗)이 강포(江浦)⁸¹에서 큰 배를 끌고 와서 어제 200섬을 실었고, 오늘 정오쯤에는 모두 실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양종하가 격군을 보내 나에게 보고하게 하였다. 8일 새벽 이후 소식이 전혀 없고 보낸 사람도 돌아오지 않았는데, 이런 소식을 들으니 참으로 다행이다. 그러나 전하는 말을 믿기 어려워서 양종하에게 죽도로 가라고 했다. 마량진 첨사가 와서 병을 앓는데 약이 다 떨어졌다고 하기에, 차와 약등을 보내 주었다.

十二日 連留古堡 朝霧漲如昨日 離竹島已五日 舟楫不得通元山吏房 此島洞長 爲賃船往近島者 亦不還 始擬趁望潮抵京 今坐此 虛送多日 進發無定期 悚悶極矣 巳時 霧少捲 日光出 忽見有一大船 掛高帆率從船 自南而來 其後有一中船 掛雙帆而隨 謂是竹島穀得賃船載來 初八夕所送船伴還 沙工輩及諸吏校 列立水邊以待之 及近至乃知爲他船 問其所由歷 中船昨日過竹島前 見有三四小船列繫 疑其有載穀事而未能詳 大船京江船也 船主自言 姓名李健陽 龍山人 考其號牌名 非健陽乃他名 居非龍山乃金浦 問之 曰 號牌本名也 金浦舊鄉也 問所載穀 曰 米租合四百五十石 問穀主 曰 京江居諸人也 余曰 此船可賃用 卽令卸穀 積于余所住家之庭 招家主及洞中諸所任 米租各數石 斗量以示後 計石授之 使善守待 健陽來覓捧家主及諸所任捧受(爻周)俸音 給李健陽 問其船中見在格軍 只五名也 分付沙工梁宗厦 使率各船格軍十八名 騎李健陽船 往竹島載留穀 以來 又有穀多船窄之慮 借馬梁僉使所乘船 伴送時已犯夜 而月色微(漸)明慣 路可尋矣 梁宗厦纔行一里許 逢一船 問汝從竹島者乎 曰 昨日過竹島 問漕穀事 曰 賃船自鎮江浦捉得大者而來 昨日登載二百石 至今日午 似應畢載 梁宗厦在船 送格軍傳報 自初八曉後 截然無消息 去者亦不還 今聞此報大(說萬)幸 然傳說猶有難信 使梁

4월 13일. 고대도에서 연이어 머물렀다. 아침에 해무가 어제처럼 심해졌다. 양종하의 배는 멀리 가지 못하고 근처에 정박하여 해무가 걷히기를 기다렸다. 오시가 되어 해무가 차츰 개었다. 도사공은 강경江鏡에서 큰 배를 구해서 11일에 죽도에 도착하여 좌수에게 배를 넘겨 곡물을 싣고 곧바로 오게 한 후, 먼저 100여 섬을 배권석이 가져간 배에 싣고 배권석과 원산진의 장교와 함께 타고 왔다. 배권석은 8일 저녁에 원산진을 출발하였는데 연달아 역풍逆風과 짙은 해무를 만나 10일야 비로소 죽도에 도착했다. 11일에 배를 돌려 출발했는데 다시 해무가 심해서 돌아오는 일이 늦어졌다. 도사공과 배권석과 원산진 장교가 들어와 알현하였다. 죽도의 일에 대해 물었다. 좌수가 12일에 샅배를 이끌고 출발하여 중간에 조수를 기다리며 정박하고 있는데, 박규섭의 만자선이 마침 그곳에 이르렀다가 성당창으로 돌아갔다고 하였다. 곡물과 조운선이 모두 잘 처리되었으니 마음을 놓아도 된다고 하였다. 양종하는 도사공과 조우하여 죽도에 남겨진 곡물은 이미 샅배를 구해 실었다는 말을 듣고 이견양의 배를 끌고 돌아왔다. 이견양에게 전에 실었던 곡물을 다시 싣게 하였는데, 그간의 비용을 헤아리니 9냥 이상이 되었다. 여러 사공들에게 나누어 걷어주게 하였다. 밤 3경에 좌수가 몰고 온 배가 정박하였다. 좌수와 조운 색리가 와서 알현하였다. 이로써 죽도의 일은 끝났다. 내일 순풍을 얻게 되면 출발할 수 있다. 그러나 보름날의 조수를 생각하면 서울에 도착하는 것은 논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경사京司를 아득히 바라보는 마음이 어떠하겠는가? 몹시 송구스럽고 걱정스러울 뿐이다. 비인과 남포의 호송리로 죽도에 갔던 사람들도 좌수를 따라 돌아와서 각각 과거장을 받아 돌아갔다. 서천의 호송리만 받으러 오지 않았다. 보령은 통과하는 지경이 멀지는 않으나 처음부터 끝까지 오지 않는다. 모두 괴이한 일이다. 원산진

이방과 고대도 동장이 170석을 실을 수 있는 배를 가져왔지만, 이제 는 쓸모가 없어 즉시 돌려보냈다. 7일, 8일, 9일에 출발한 함열의 문 안사가 모두 죽도에 갔다가 배권석과 같은 배를 타고 왔다. 아이들이 삼일 동안 연달아 보낸 4통의 편지를 받았다. 큰아이는 병이 약간 회복되었으나 아직 열이 난다고 하고, 둘째 며느리는 갑자기 목 의 오른쪽에 통증이 나고 종기가 생길까 걱정이라고 하였다. 큰 딸 아이는 입에 병이 나서 통증이 있는데 오래 낫지 않아 멀리에서도 걱정을 멈출 수 없다. 김정식에게 여러 병에 대한 약방문을 구해서 답장과 함께 보냈다. 날이 아직 저물기 전에 10일에 출발한 문안사가 또 왔다. 아이들의 편지를 보니 아이들과 며느리의 병은 모두 나 을 기미가 없다고 한다. 이 편지에 대한 답장을 밤에 다시 썼다. 호 조에서 보낸 관문이 함열 문안사의 편에 함께 왔는데 3월 30일에 발송한 문서였다. 조운선의 장발장裝發狀⁸²⁾이 기한 내에 도착하지 않아 재촉하는 내용이었다. 장발장은 3월 16일에 성당창에서 서명 하여 보냈는데, 담당 향리와 도사공이 전인專人⁸³⁾을 통해 올려 보내 지 않고 경저리京邸吏⁸⁴⁾가 돌아가는 편에 부쳤다. 경저리가 4월 초에 서울로 가서 장발장을 호조에 바쳐서, 이렇게 재촉하는 관문을 받게 된 것이다. 12일자로 죽도에서 출발한 사유를 기록하여 전라감 영과 충청감영 그리고 호조에 보고하였다. 조운선이 원산진에 도착 하자 원산진 별장이 각각의 배에 실린 세곡을 점검하여 그 수효를 기록하여 충청감영에 보고하였는데, 이것이 관례다. 별장이 와서 감합기勘合記⁸⁵⁾를 작성하고 갔다.

十三日 連留古堡 朝霧復漲如昨日 梁宗厦所帶船 不能遠行下碇近處 以待霧捲 至午霧漸捲 都沙工自江鏡捉得大船 十一日到竹島 付之座首 使載穀即來 先載百餘石於褰權錫持去 船與褰權錫及鎮校同乘而來 褰權錫以初八夕 自此發去 連遇逆風漲霧 初十日 始得達 十一日 旋發又遇霧 故其還遲也 都沙工及褰權錫及鎮校入現 問知

82. 조운선에 실은 세곡의 수량과 조운선의 출발 상황을 기록한 문서로 추정된다.

83. 소식이나 문서 등을 전하기 위하여 특별히 보내는 사람을 말한다.

84. 중앙과 지방 군현의 연락 사무를 맡아보거나 서울에 출장 온 지방 관리들의 편의를 돕는 향리를 말한다.

85. 문서의 한끝을 원본에 겹쳐 대고 그 위에 도장을 찍는 일을 ‘감합(勘合)’이라고 한다. 문서의 진위를 추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竹島事座首 十二日領賃船發 中路住碇待汐 當至朴圭燮領萬字船
 還本倉 穀物船隻 皆得區處 可以釋憂矣 梁宗厦遇着都沙工 聞竹島
 留穀 已得船登載 携健陽船而還 分付健陽還載其穀 以去其間浮費
 錢 爲九兩餘 諸沙工分徵以給 夜三更 座首所領船來泊 座首漕軍色
 使令入謁 於是竹島之事畢矣 自明日 得順風可進發 然望潮抵京今
 非可論 京司懸望 當知何哉悚悶悚悶 庇仁 藍浦護送吏往竹島者 隨
 座首還 各受過去狀而去 舒川吏獨不來受 保寧則過界 雖不遠 護送
 吏始終不來 皆可怪 元山吏房及此島洞長 捉百七十石容載船一隻
 而至今無用處 使卽放送 邑問使初七八九日發者 俱到竹島 與裴權
 錫同船而來 得兒輩連三日四度書 長兒店証幾譴祛 而尙有表熱(愁)
 仲婦忽發頸右痛 至慮成腫 長女有口病脚痛 久不快 遠外慮念 不可
 已也 并問方於稚恒 與答書伴送 日未暮 問使 初十日發者又至 得
 兒書 子女婦之病皆無勝意 其回付答書夜又追書 同送戶曹直關 邑
 問使便來 去月晦前出也 以漕船裝發狀 遇期不至促之 裝發狀去月
 十六日 在本倉署給 而該吏及都沙工(追記) 不專人上送 付之京邸
 吏之歸 京邸吏今月初 始入京呈納致有此促關也 以十二日 自竹島
 進發之由 具報于巡營 錦營 戶曹 漕船到元山 元山別將點檢各船載
 穀 數交錄報于錦營 錦營啓聞例也 別將來 膽勘合記而去

4월 14일. 고대도에서 연이어 머물렀다. 날씨가 맑고 온화하여 4일
 동안 해무가 심했던 터라 심신이 맑아지는 것이 느껴진다. 모든 사
 공들을 불러 앞으로의 일에 대해 물으니 원산진을 출발하여 마땅
 히 안흥진⁸⁶에 닿아야 한다고 했다. 그 사이는 가도에서 원산
 진까지의 거리와 같지 않지만, 역시 큰 바다이기 때문에 십분 조심
 해야만 한다고 했다. 이 섬의 입구는 얇아서 조수가 들지 않으면 나
 갈 수 없고, 앞에 있는 경해^{鏡海}는 조수가 횡으로 흘러 물을 가로질
 러 가야만 하니 오로지 남풍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오늘 날씨가
 좋지만 바람이 마침 건방^{乾方}에서 불어 올라갈 수 없다고 해서 고대

86. 충남 태안군 근흥면 정족리에 안
 흥성이 있다.

도에 머물렀다. 순풍을 얻은 후에야 움직일 수 있다. 내일 새벽이라도 조수가 들어올 때 바람이 좋아야 섬을 나설 수 있고 경해를 가로지를 수 있다. 모든 배의 조종들에게 명하여 밤에 잠을 줄이고 장비를 점검하면서 기다리게 했다.

十四日 連留古堡 天氣清和 四日大霧之餘 頓覺心神開爽(葬) 招諸沙工 問行事 曰 自此進發 當抵安興 其間雖非如駕島元山之遠 亦大海也 宜十分慎 此島之口水淺 非潮時不可出 前有鏡海橫流行 當截水而去 所須(湏)惟南楓 今日候雖好 風適自乾方來 不可遡行 姑留此島 候得順風 而後可動 雖來曉 潮入時 有好風 島口可出 鏡海可截去 第令諸船漕卒 節夜眠 檢裝具以待

4월 15일. 고대도에서 연이어 머물렀다. 닭이 울 무렵 조수가 막 들어왔고, 남풍도 마침 불어왔다. 향리와 사공들이 모두 출발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였다. 이때 나는 마침 잠깐 누워 쉬면서 기다렸다. 잠시 후에 남풍이 그치고 건풍乾風이 다시 어제처럼 불기 시작하여 오전 늦게야 그쳤다. 끝내 또 출발하지 못했다. 오늘 조수가 들어올 때 염창鹽倉까지 가야 물목水項을 넘을 수 있는데 지금은 갈 수 없다. 안흥까지 도달해야 가는 길의 절반이 되는데, 아직도 닿지도 못했으니 한양에 도착하는 것은 언제가 될지 알 수 없다. 그름에 조수가 있을 때까지 늦어질까 걱정이다. 바닷길에 정해진 기한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비로소 알았다. 아침을 먹고 김정식과 함께 문을 나서니 조수가 조금 멀어져 모래톱이 드러났다. 그 위를 걸으니 소라 껍질螺殼과 홍합 껍질紅蛤殼이 많이 보였다. 나는 소라 껍질로 술잔을 만들 수 있고, 홍합 껍질로 수저를 만들 수 있겠다고 말하였다. 지인知人을 시켜 줘게 하였다. 김정식을 돌아보며 말하기를 “이것이 이번 나의 뱃길에서 얻은 것이다. 다른 사람이 버린 것을 주웠으니 어찌 청렴함을 어겼다고 하겠는가.”라고 하였다. 김정식은 물에

닳은 조개껍질 조각을 주워 바둑알로 쓰려고 하였다. 하나하나 고운 빛을 띠는 것이 사람이 갈아서 만든 것과 달랐다. 바둑판에 갈아 놓으면 사람의 눈을 현혹시킬 것이다. 그러나 모양이 얇고 삐뚤 삐뚤하여 모두 적당하지는 않다. 마을의 늙은이 한 사람이 물고기 광주리를 지고 지나기에 내가 무슨 고기냐고 물었다. 늙은이가 광주리를 열어 보여주었다. 조기石首魚가 들어 있었는데 무척 컸다. 등의 비늘이 정황색正黃色이어서 금빛이 해처럼 빛났다. 오징어烏賊魚도 있었는데 등이 매우 검었다. 갈치曷致魚도 있었는데 길고 좁은 몸에 은색이었다. 가오리加五里魚도 있었는데 배가 넓어 치마처럼 생겼고, 등은 붉고 검었다. 꼬리는 가늘고 길었는데 끝부분 가까이에 따로 뽕족한 뼈가 붙어 있는데, 길이가 1촌寸쯤 되었다. 따르던 예속隸屬이 꼬리를 잡아들어 올리자, 늙은이가 그 뽕족한 뼈는 잘 쏘니 조심해야 한다고 했다. 김정식이 그 뼈를 쓸 데가 있다고 말하며 늙은이에게 청하니, 늙은이가 손으로 집어서 건네주었다. 내가 쓸 곳을 물으니, 김정식이 말하기를 “이 뼈를 쫓으면 죽지 않는 나무가 없다. 우리 선산의 안산을 가리는 나무에 시험해보고 싶다.”라고 했다. 또 작은 물고기 한 마리가 있는데, 길이와 너비가 모두 1촌 정도 되고 입과 눈은 보이지 않고, 다리 5개가 나있고 뽕족하다. 그 몸체의 형태를 그리면 ‘★’ 모양이다. 등은 심벽색深碧色이고 가운데에 붉은 점을 뿌려 놓은 듯하였다. 배는 주황색朱黃色이고 껍질은 모두 둔탁했고 좁쌀 같은 것이 나있다. 늙은이가 말하기를 “이 물고기는 사람이 먹지 않는다.”고 하였다. 마을의 아이들이 말하기를 “속칭 사패어絲牌魚라고 하는데, 죽은 뒤에 말라도 형태와 색이 변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저녁에 다시 김정식과 함께 나오니 마침 달이 막 떠오르는데, 바다색도 달과 같이 모두 흰색이다. 멀고 가까운 섬들 사이로 고기잡이배의 등불이 다소 점점이 붉게 빛나는데 역시 장관이다.

十五日 連留古堡 鷄鳴時 潮方入 而南風適至 吏校及諸沙工 皆以爲可發 時余方假寢以待之 俄而南風止 而乾風復起如昨日 至晚不止 竟又未發 今日潮生時也 趁抵鹽倉 水項可越 而今無及矣 安興爲半程 而亦尚未抵 到京將不知在何日 恐拖至晦潮 始知海行不可定期爲也 朝飯訖 與稚恒出門 潮纔 落沙磧出 仍步其上 多見螺殼紅蛤殼 余謂 螺殼可作杯 紅蛤殼可作匙 使知引拾取以歸 顧語稚恒曰 此吾海行所得 人棄我取 何傷乎 廉稚恒拾蛤殼片破水磨者 將以爲碁也 箇箇有具彩 與人磨者 異鋪枰 可令人眩眼 然形薄而窳 皆不合用 里中一翁 荷漁筐而過 余問何魚 翁開筐示之 有石首魚甚大 背鱗正黃 如金光彩耀日 有烏賊魚 背凝玄色 有曷致魚 長而狹 色如銀 有加五里魚 腹廣而有裙 背赤而玄 尾細而長 未至端 別有尖骨附焉 其長一寸許 陪隸執尾而舉之 翁曰 其尖骨善射 人宜慎之 稚恒謂其骨有用處 請於翁 翁手拔而予之 余問用處 稚恒曰 此骨插生木 無不死者 欲以試諸吾先山遮案之木 又有一小魚長廣皆徑一寸餘 不見有口眼 股脚五出而尖 圖其體形卽★也 背深碧色 中有撒朱點 腹朱黃色 皮皆頑厚而生粟 翁曰 此魚人所不食也 村童見之曰 俗呼絲牌魚 至死乾 形色不變 夕復與稚恒出 時月初出 海色與月共白 遠近島嶼 多少漁火 點點紅明 亦可觀也

4월 16일. 고대도에서 연이어 머물렀다. 엇그제부터 날씨가 청량한 것이 연 3일 이와 같다. 막 출발하려 하면 건풍이 그치지 않았다. 닭이 울 무렵 조수에 맞추어 출발하려 하였으나 이루지 못했다. 오시가 지나 구름이 끼고 비가 오려 한다. 오늘 내일 이틀이 진사^{辰巳}⁸⁷⁾ 일인 까닭이다. 밤에 건풍이 매섭게 불고 파도도 고르지 않았다.

87. 임진(壬辰), 계사(癸巳)일

十六日 連留古堡 自再昨 天氣清郎 連三日如此 殆發行 後初有然 乾風不息 鷄鳴時 欲趁潮發 又未果 午後 雲陰有雨意 今明兩日爲辰巳故耶 夜乾風勢猛 波濤爲之不定

4월 17일. 고대도에서 연이어 머물렀다. 아침에 구름이 끼고 바람도 역시 어제와 같았다. 오시에 가까워지면서 구름이 걷히고 하늘이 맑아졌다. 그러나 바람이 조금도 줄어들지 않고 밤이 깊어서야 점점 잦아들었다. 파도도 따라서 잔잔해졌다. 매일 바다의 조수는 15일에 생겨나 점점 성해지다가 18일에 가장 극성해졌다. 또 30일에 생겨나 점점 성해지다가 3일에 가장 극성해졌다. 지금 머무는 집은 문 앞이 조수가 들어오는 곳이어서 상세하게 볼 수 있다. 오늘 보니 조조早潮가 자정子正, 밤 12시에 들어오기 시작하여 해가 밝을 무렵 다 들어와 불어난 흔적이 보였다. 15일 이전과 비교하면 거의 2장丈 정도 높아졌다. 해안의 벼랑을 치는 소리가 매우 컸다. 만조晚潮는 오정午正, 12시에 들어오기 시작하여 신시 말에 다 들어왔는데, 조조에 비하면 1장 정도 낮았다. 조수가 하루 안에 생겨나고, 아침에 높고 저녁에 낮아지는 차이는 아침이 양陽이 되고 저녁이 음陰이 되는 이치이다.

十七日 連留古堡 朝雲陰 風勢皆如昨日 近午雲陰開 天氣朗 而風勢則無減 夜深漸息 波亦隨定 每日海潮 以十五日生漸盛 至十八日而極 又以三十日生漸盛 至初三日而極 今所住舍 門前即潮到處 故得以詳驗焉 以今日觀之早潮以子正始入 至平明爲准而漲痕 比十五日以前 殆加二丈許 拍擊崖岸(山片) 其聲甚壯 晚潮以午正始入 至申末爲準而比早減一丈許 潮之生一日之內 又有朝多夕減之異 此朝陽夕陰之理耶

4월 18일. 해가 난 후에 잠자리에서 일어났다. 조조가 다다른 곳을 보니 어제 아침에 비해 다시 2척尺 정도 높아졌다가 막 빠지기 시작했다. 이때 하늘은 청화하고 동풍이 천천히 불었다. 사공과 각 배의 조졸들이 앞일을 의논하기 위해 들어와 말하기를 “여러 날 건풍乾風, 서북풍이 연달아 불다가 이제 동풍을 만났으니, 남풍처럼 순

조롭지는 못하더라도 배를 운항하여 안흥에 닿을 수 있습니다. 안흥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경해에는 닿을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나는 원산진의 호송선을 타고 나가 상선에 올랐다. 동풍이 갑자기 변하여 서남풍이 되어, 배는 겨우 고대도의 경계를 지났다. 사공이 말하기를 “이곳의 조수는 두 갈래로 움직이는데, 수세水勢가 제법 세니 정박했다가 조수가 더 빠지기를 기다려 앞으로 나가는 것이 마땅합니다.”라고 하였다. 그래서 닻을 내렸다. 잠시 후에 서남풍이 다시 변하여 서풍이 되고, 또 잠시 후에 잠깐 남풍으로 바뀌더니 갑자기 다시 서풍이 되었다. 조수가 더 빠지니 수세가 약간 부드러워져 다시 조금 더 나아갔다. 다시 닻을 내리고 만조가 반쯤 들어오기를 기다렸다가 다시 나아갔다. 바람이 이미 잦아들어 조수의 흐름을 타고 배를 움직였다. 저녁에 섬들 사이에 다시 닻을 내리고 조조를 기다렸다. 종일 운행해도 안면도 밖으로 나가지 못했기 때문이다. 선상에 머물러 잤다.

十八日 日出後起寢 見早潮至處 較昨朝 更加二尺許 方且始退矣 時天氣清和 東風徐來 沙工與諸船漕卒 議行事入告曰 多日乾風連吹之餘 今得東風 雖不如南風之爲順亦可行船抵安興 雖未及安興 鏡海可抵 余乘元山鎮護送船 登上船 東風忽變爲西南風 船行纔過古垞島界 梢工告曰 此處潮以兩岐行 水勢稍動 姑停纜 待潮益退 前進爲宜 遂下碇 少間西南風又變爲西風 又少間乍變爲南風 忽復變爲西風 潮益退 水勢稍柔(喬) 遂復行少進 又住碇 待晚潮半入復進 風力既微 欲乘潮勢而泛也 大(爻周)夕到烏(島)嶼內復止碇 待早潮 蓋終日行不出安眠島外 仍宿船上

4월 19일. 자시에 조조가 들어오고 동풍이 잠깐 불었다. 날씨를 점쳐보니 청화하다고 하였다. 잠시 후에 다시 남풍이 불었다. 이것이 여러 날 바라던 것이었는데 마침내 이루어졌다. 바람이 연달아 불

고 그치지 않으니 천우신조라고 할 수 있다. 달빛도 낮처럼 밝았다. 드디어 배를 나가게 하니 배가 빠르게 섬 사이를 지났다. 섬들이 작은 산과 같았는데 마치 사자가 누운 모양과 같았다. 들으니 그 근처의 많은 곳이 물이 얕다고 하였다. 그래서 모든 배들에게 수심을 재어가면서 나아가라고 명령했다. 다시 안면도를 지나는데 섬의 끝 자락이 경해鏡海에 닿아 있었다. 선두가 경해에 이르렀는데 이곳이 전에 말하던 곳이라고 한다. 바다를 가로질러 가는 곳이었다. 가운데에 경도鏡島⁸⁸⁾가 있는데 유난히 뾰족하고 아름다운 산이 있고 앞이 열려 있었다. 사공이 말하기를 사람들이 산 아래에 많이 살아 잠시 머무를만하다고 하였다. 왼쪽에 세 섬이 있는데 세 산처럼 나뉘어져 있어 삼도三島⁸⁹⁾라고 하였다. 경도의 남쪽은 홍주목洪州牧에 속했고, 북쪽은 태안군泰安郡에 속했다. 태안의 호송리가 와서 기다리다가 반찬거리로 생 복어鮓魚 등속을 바쳤다. 경도와 삼도 사이를 지나 안흥진 앞쪽의 바다를 지났다. 여러 산 아래에 한 곳의 낮은 산이 싸안고 있는 곳이 안흥진이다. 산에 송림이 아주 무성했다. 안흥진에는 제승루制勝樓가 있는데 가서 올라 볼 겨를이 없는 것이 한탄스러웠다. 대호송관인 마량진 첨사가 이곳까지 따라왔다가 갔다. 다시 가도假島⁹⁰⁾, 주도廚島⁹¹⁾, 단도端島 사이로 나갔다. 가도는 왼쪽에 있었는데 매우 크고 넓어 사람이 많이 산다고 하였다. 주도와 단도는 오른쪽에 있었는데, 이곳이 안흥진의 산맥이 끝나는 곳이었다. 주도와 단도에는 여러 겹의 산이 있고, 산 아래의 호수는 30호에 달했다. 물어보니 이곳이 안흥진의 옛 터라고 하였다. 앞에는 관장목關將項이 있었다. 관장목에는 석맥石脈이 있고, 그 밖은 물결이 크게 일어 조수가 반쯤 물러난 후에 넘어갈 수 있다. 그래서 안흥진 옛터 앞바다에 닻을 내리고 기다렸다. 이때 남풍이 세게 불고 파도가 일어 배가 제법 흔들렸다. 다른 배들에 대해 물으니, 6척의 배가 이미 관장목을 넘어갔다고 했다. 이 바람을 따라 계속해서 나가면 오늘 안에 영종진永宗鎭⁹²⁾에 닿을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조수가 빠

88. 충남 태안군 남면 거아도로, 조선말까지 거울섬[鏡島]이라 불렀으나 1914년 거아도로 이름을 바꾸는데, 섬 내에 어른보다 아이가 많다하여 이름을 지었다고 한다.

89. 충남 태안군 남면 울미도, 삼섬, 지치도로 추정된다.

90. 충남 태안군 근흥면 가의도로 추정된다.

91. 충남 태안군 근흥면 신진도리 부억도로 추정된다.

92. 인천시 중구 중산동에 영종진이 있었다.

지기 전에 마침 파도가 일어나고, 서로 나뉘어졌으니 걱정이 많았다. 오시 초에 조조가 물러나 7분七分이 되었을 때 다시 돛을 올리고 나아갔다. 관장목을 넘었는데, '목項'이라고 한 것은 옛 안흥진의 산맥이 끝나다가 다시 일어나 봉우리가 되고, 흙언덕이 앙상하게 솟았다가 떨어져 맥이 이어지지 않아, 가로로 높은 바위가 되었으며, 또한 정족도鼎足島가 물속에 우뚝 솟아있는데, 봉우리의 모양과 석맥이 옛 안흥진의 산과 더불어 마주 보고 서있으며, 그 사이가 겨우 70~80보步 정도 되어 그 이름을 얻었다. 배가 이 섬을 거쳐 바다로 나가야 했기에 더욱 신중해야 했다. 여기부터 영종까지는 뱃길이 북쪽을 향했다. 관장목 밖에 이르니 물결이 과연 거세어졌다. 남풍도 더 거세지고 파도가 일어 배가 좌우로 심하게 흔들렸다. 사람들이 모두 멀미를 했다. 배의 바닥이 파도를 넘어 나가니, 배 위의 방과 배가 삐거덕거렸는데 그 소리가 두렵다. 곧바로 배를 돌리는 것이 옳았지만 형세가 어쩔 수 없었다. 믿을 것은 순풍뿐이었다. 점점 앞으로 나가면서 모든 배들에 서로 조심하게 하였다. 지나온 곳이 개항皆項, 소근진所斤鎭, 여일리如一里, 관솔리管率里, 방서方嶼, 민어리民魚里라고 했는데, 모두 태안군泰安郡에 속했다. 호송리가 과거장을 받아 갔다. 창포倉浦, 대산大山을 지났는데, 창포는 반은 서산군瑞山郡에 속하고, 반은 평신진平薪鎭⁹³⁾에 속했다. 대산大山은 모두 평신진에 속했는데, 평신진은 독진獨鎭⁹⁴⁾이다. 여러 섬의 크고 작은 형상은 내가 선옥船屋 안에서 나가지 않았기에 볼 수 없었다. 배들이 멀리 갔을 때 날은 이미 저물어갔다. 바람과 파도가 그치지 않아 내가 제문을 지어 해신海神에게 기도를 올렸다.

93. 충남 서산시 대산을 화곡리 반곡 마을에 설치되었던 진(鎭)이다.

94. 변방이나 군사요지에 위치한 독립 진영으로, 감영(監營)이나 병영(兵營)이나 수영(水營)에 속하지 않은 진영을 말한다.

‘제가 외람되게 12척의 배를 거느리는 직책을 맡았고 제가 옮기는 것은 바로 왕실의 부세인데 못 백성이 힘을 다해 바친 것이요 서울에서 쓰기 위해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직 신께서 이곳에 함께 하시어 또한 왕토王土의 신이시니 특별히 보호하시어 파도를 고르게

해주시고 무사히 바다를 건너게 해주십시오.’

축문을 적은 종이를 바다에 던졌다. 조금 지나니 파도의 급한 기세가 조금 덜해졌다. 어찌 신이 감응하신 것이 아니겠는가. 민어리 民魚里 앞에 이르러 닻을 내리고 밤을 지내려 하였으나, 사공들이 정박하기에 불편하니 난지도 蘭芝島⁹⁵⁾ 동쪽 바다로 향하는 것이 좋다고 하였다. 조금 더 나가 난지도 동쪽에 도착하니 해가 떨어지기 직전이었다. 배의 항로는 난지도의 서쪽 바다를 거쳐 곧바로 연흥도 延興島⁹⁶⁾ 앞으로 향해 나아가야 했으나, 편의를 위해 이곳에 정박하기 위해 약간 우회하여 이 바다에 들어왔다. 이곳은 당진현 唐津縣에 속하는데,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바람이 불어도 걱정이 크지 않았다. 파도도 역시 잦아들었기에 드디어 닻을 내렸다. 이날 한번 위기를 넘겼는데 놀란 마음이 가시지 않았다. 이제 모든 배들이 무사히 안전한 곳에 머물게 되었으니 매우 다행이다. 관장목에 있을 때 앞서갔던 6척의 배 가운데 윤자중이 맡은 배 1척만이 이 섬에 머무르고 있었다. 윤자중이 들어와 알현하기에, 배들의 안부를 물으니 6척의 배가 바람과 파도를 무릅쓰고 무사히 이 섬에 도착했다가, 5척은 먼저 앞서갔는데 아마 영종에 닿았을 것이라고 하였다. 윤자중은 상선에 소식을 전하기 위해 홀로 머물고 있다고 하였다. 걱정하던 끝에 이 소식을 들으니 조금 마음이 놓였다. 대호송관 소근진 所斤鎭僉使는 경계에서부터 앞서 인도하다가, 바람과 파도가 위험하여 뒤따라오지 못했다. 서산군 瑞山郡과 평신진 平薪鎭의 호송리는 아무도 와서 가다리지 않았고, 오직 당진현의 호송리만 와서 알현하였다. 선상에 서서 사방의 지계 地界에 대해 물으니, 동쪽에 긴 산이 가로로 가로막고 있는데 이곳이 당진현이라고 하였다. 남쪽에 봉수산이 높게 우뚝 솟아 있는데, 그 아래가 태안군이라고 하였다. 태안군의 서북쪽에 봉수산이 또 있는데 그 아래가 평신진이라고 하였다. 서쪽은 난지도인데 길이가 길었고, 사람은 겨우 수십 호가 산

95. 충남 당진시 석문면 난지도다.

96. 인천시 옹진군 영흥도로 추정된다.

97. 위치상 북쪽이어야 한다.

98. 경기도 안산시 단원도 풍도동 육도로 추정된다.

다고 하였다. 남쪽으로⁹⁷⁾ 육도六島⁹⁸⁾가 있는데, 크고 작은 산이 끊어졌다가 다시 일어난 것이 6개가 있었다. 조운선은 그 섬들의 동쪽을 지나야만 하는데 이곳은 수원부水原府에 속했다. 육도 밖에 연흥도가 멀리 바라보였는데 남양부南陽府의 큰 섬이었다. 배가 출발한 지 30여 일 만에 경기京畿에 속한 산을 처음으로 보게 되어 기뻐했다. 이곳 바다는 4개의 산이 둘러싸고 있는데, 둥그런 모양이 거울과 같고 물의 흐름이 편안하였다. 다만 남쪽 입구에 석탄石灘, 바위 여울이 있어 배가 처음 들어갈 때에는 신중해야 하였다. 이곳에서 나는 것은 세합細蛤 뿐인데, 여기 사람들이 캐서 짓갈을 담았다. 내일 출발해야 하는데, 언제 떠날지 알 수 없어 선옥船屋에서 밤을 지냈다.

十九日子時早潮入 東風乍起 占以日候清和 俄復爲南風 是積日懸望者 而今適得之 連吹不止 可謂天佑神助 月色亦正 明如晝 遂進船 船行疾過烏嶼 烏嶼小巒也 如獅子橫臥 聞(追記)其近多淺水 故飭諸船 量水深而進 又過安眠島 島(追記)袤入鏡海頭到鏡海 此向所云 截水行處也 中有鏡島 特巒尖秀 開淨 梢工言 人民多居其下 可暫時(爻周)住 碇云 左有三島 拳小三巒分立 故曰三島 鏡島以南 洪州地 以北泰安地 泰安護送吏來待 兼納饌需生鰻魚屬 由鏡島三島間 而出過安興鎮前界水 諸山之下 一低山內 抱而爲鎮 基山上松木甚(盡)茂 鎮有制勝樓 無暇往登可歎 大護送官 馬梁僉使隨至此而去 又由假島 廚島 端島 兩間而出 假島在左盡闊張 聞多民戶 廚端島在右 此安興鎮山盡處也 廚端島上 有數重山 山下人戶近三十間之 此安興鎮舊基也 前由關將項 項有石脈 其外水勢甚動 潮半退後 可越而進 故住碇于舊安興前洋 以待之 時南風緊 水波生 船頗搖樣 問諸船六船先已踰關將矣 得此風連進 則日內可抵永宗 然不待潮退 適值波生 相與分離 憂係多矣 午初早潮退 至七分 乃復舉帆而進 踰關將項 謂之項者 舊安興山脈 方盡而復起一峰 土崗骨立 仍落不脈 橫袤巖巖 又有鼎足島兀立水中 其峰形石脈 與(如)舊安興山

相對拱峙 其間厓七八十步 故名也 船由此出海 加慎焉 自此至永宗亦路向北去也 至關將項外 水勢果甚動 加之南風愈緊 遊波發作 船爲之左右傾撓 人皆發眩 船底過浪陳陳 如屋與船相拍 其聲可怖 宜卽回船 而勢不可爲也 所恃惟順風 遂漸次前進 諸船相與戒慎 所過歷 曰皆項 曰所斤鎮 曰如一里 曰管率里 曰方嶼 曰民魚里 皆泰安地 護送吏受過去狀而去 曰倉浦 曰大山倉浦 半屬瑞山郡半屬平薪鎮 大山全屬平薪 平薪獨鎮也 諸島大小形狀 余在船屋中不出 故未之見焉 行至遠 日亦已晡 而風濤不息 余操文禱海神人

鄙職所領十二船 是 王家惟正之賦 載輸也衆民所竭力 京師所待用 惟神 處在于茲亦 王土之神 其宜另護極定波濤 俾獲利涉

因以祝紙 投于水中 俄頃波濤劇勢少減 此豈神應耶 抑適然耶至民魚里前 欲住碇過夜 梢工輩以爲住碇不便 宜向蘭芝島東洋 行(爻周)行少傾 到蘭芝島東 日未入矣(追記) 船路當由此島西洋 直向延興島前以去 而爲便 於住碇 乍迂回入此洋 此洋唐津地 四方皆山圍 有風不甚爲憂 波勢亦頓安 遂下碇 是日經一危境 餘臧在心 今諸船得無事到穩處而住甚幸 在關將項時 先去六船中 尹滋中所掌船 獨留此島 尹滋中入現 問船安否 曰 六船具冒風濤 無事到此 五船前進而去 似應抵永宗 渠則爲候上船獨留 憂係之餘 聞之稍釋然也 大護送官 所斤僉使 自其界前導 爲風濤所迫 不得隨至 瑞山郡 平薪鎮 護送吏 皆不來待 獨唐津縣吏來現 立船上問四方地界 東有長山橫 遮 是唐津地 南有烽山高屹 其下泰安郡 郡西北又有烽山 其下平薪鎮西 是蘭芝地 長而人戶厓數十 南有六島 大小巒斷而復起者六(追記) 船行當過其東 此水原地也 六島外有延興島 遙遙入望南陽府大島也 發行幾三旬 始見畿內山 可喜此洋在四山(追記)圍之(爻周)內 其圓如鏡 其流晏如 但南口有石灘 船初入皆慎焉 所產惟細蛤 居民採而作醢 來日進發 早晚未定 故夜宿船屋

4월 20일. 하늘이 맑고 달이 밝았다. 미시에 곤풍^{坤風}, 남서풍이 천천히 불어와 배를 운항할 수 있었다. 어떤 사람이 앞바다에 파도가 있을 것이라고 말하여 걱정이 되었다. 출발하지 않은 조졸들이 물을 길기 위해 섬으로 갔다. 벽초엽^{蓰草葉}을 따왔는데, 손바닥처럼 큰 것 2넛을 가져왔다. 해당화^{海棠花}도 수십 가지를 꺾어왔다. 바다에 들어온 후에 처음 보는 화훼가 예쁘다. 여름철의 날씨를 느껴본 지가 오래되어, 배에서 사람들은 오히려 한기에 떨며 이불을 끌어안고 있다. 바다와 육지의 날씨가 너무 다르다. 정오가 되자 배 한 척이 북쪽에 내려오다 지나갔다. 지나온 곳의 수세^{水勢}가 어떤지 물으니 걱정할 일이 없다고 한다. 이를 물은 까닭은 아침에 어떤 사람이 말한 것이 의심스러웠기 때문이다. 조조를 타고 7분^分 가량 빠지기를 기다렸다가 수력이 약간 부드러워졌을 때 출발하려고 하였다. 어떤 사람이 지금 조수가 물러나는 때를 타고 나아가면 매우 좋다고 하였다. 그러나 또 다른 사람은 만약 저녁에 조수가 다시 들어오면 거슬러 올라가는 일이 어려우니, 내일까지 기다렸다가 조수가 다 들어오기 전에 출발하여 중로에 잠깐 머물렀다가 새벽에 조수가 반쯤 들어오면 다시 나가는 것이 옳다고 하였다. 그의 말에 따랐다. 하인들이 섬마을에 가서 밤을 지낼 것을 권하였다. 내가 일찍이 강배에 여러 번 타봤지만 멀미가 나지 않았는데, 요즘 바다에 있으면서 작은 배를 타면 번번이 멀미가 났다. 바다에서 타는 작은 배는 바닥판이 좁고 파도를 이기지 못하여 요동이 심한 까닭이었다. 섬마을이 제법 멀어 가려면 작은 배를 타야만 했다. 멀미가 날지 알 수 없어 계속 배에 머물면서 출발을 기다렸다. 내가 섬으로 가지 않으니 조복감관^{漕復監官}이 초한연의^{楚漢演義} 1권을 가지고 왔다. 김정식에게 빌렸는데 나를 위해 가져온 것이다. 한신^{韓信}이 구리산^{九里山}에서 10면^面에 매복한 일을 말하다가, 병기에 대한 이야기에 이르니 일와봉^{一窩蜂}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다. 내가 일와봉이 어떤 모양이며, 그 구조를 아는 자가 있는지를 물으니, 송도^{松都}의 백기진^{白岐鎭}⁹⁹⁾

99. 1814~?. 본관은 수원이고, 자(字)는 기문(基文)이다. 1835년 증광시(增廣試) 진사에 합격하였다.

이라는 사람이 재략이 있어 스스로 그 제도를 밝혔는데, “연환鉛丸을 9되 정도 잔뜩 한 개의 와窩 속에 넣고 불을 이용해 쏘는 것이지만, 설령 모든 군대를 공격해서 깨뜨릴 수 있다고 하더라도 신묘한 조화를 부리는 자는 반드시 복이 없어질 것이다.”라고 했다 하였다. 내가 백기진의 나이가 어떻게 되냐고 물으니, 지금 49세 또는 50세라고 하였다. 일전에 송도松都와 장단長湍 경계의 화장산華莊山에 집을 지었다고 들었는데, 어디로 옮겨 갔는지 알 수 없다고 했다. 밤에 선옥에 묵었다. 바람이 오전 늦게까지 더욱 거세어 바람소리가 썩 썩 났지만, 파도는 일지 않았다.

二十日 天晴月朗 未坤風徐吹 可以行船 而或說前洋有遊波 賊餘也 咨 且未發漕卒 爲汲水往島中 摘碧草葉 掌大者二片 海棠花數十朵 而來 入海後始見 花卉可愛 且知夏令之行久矣 船中人 尚怕寒擁綿 水陸儘異候矣 日將午 有一船自北來過 問此去水勢 曰 無可憂 聞此言 知朝者或說妄矣 欲乘早潮 退至七分 水力稍柔時進發 或者以爲 今乘潮退而行固好矣 若夕值潮復入 則遡行爲難 待明日潮未盡入 時發 中路乍住 候曉(追記)潮半入 而更進爲宜也 從其議 下人輩勸 以往島村以(爻周)過夜 余嘗屢乘江船 了無眩意 近者在海 乘小船 則輒眩 蓋海上小船 底板狹 不勝水力 搖棹甚故也 今島村稍遠 欲往 則當乘少船 不知仍在 大船 以待發 遂不往 漕復監官携楚漢演義一卷來 稚恒借看之爲余道韓信九里山十面埋伏事 仍語及兵器 有一窩蜂者爲最要 余問一窩蜂 是何許樣 其制有知者否 曰 松都 白岐鎮 有才略 自言曉其制 蓋以鉛丸升斗之多 納于一窩中 用火放去 雖全陣軍可以攻破 其制神妙 與造化參作之者 必損福云 余問 白岐鎮年齒 曰 今爲四十九 或五十 向聞築室於松都 長湍兩界之交 華莊山中 未知間已移處否也 夜宿船屋 風勢至晚愈緊 有聲颼颼而水則無波

4월 21일. 새벽에 남풍이 불기 시작했는데 거세지도 약하지도 않

아 조운선을 운항하기에 적당했다. 해가 뜰 무렵 아침 밀물이 반쯤 들어와 7척의 배가 돛을 올리고 나아갔다. 육도六島에 가까워지자 당진 호송리가 과거장을 받아 사례하고 물러갔다. 육도를 지나 좌우를 보니 가까운 곳에 가로지른 작은 섬이 있는데, 산과 골짜기에 인가가 50~60채 정도 되었다. 물어보니 수원 풍도豊島¹⁰⁰라고 하였다. 출발한지 25일 만에 경기의 경계에 처음 도착한 것이었다. 수원부의 호송리가 와서 알현하였다. 앞서간 5척의 배에 대해 물으니, 답하기를 19일에 호송하여 영종의 수차항水次項까지 갔다가 돌아왔다고 하였다. 그날 바람과 파도가 어떠하였는지 물으니, 없었다고 답하였다. 그 배들이 무사히 앞으로 나갔음을 알 수 있었다. 풍도 앞을 지나니 수원의 호송리가 과거장을 받아 물러갔다. 이곳에 이르니 바닷물이 평탄하고 파도가 일지 않았다. 하늘은 맑고 밝았고 마침 순풍을 만났는데, 출발한 후에 가장 좋은 날이었다. 옥상屋上에 올라 사방을 두루 바라보니 모두 큰 섬들이 있었다. 왼쪽에 승왕도升旺島와 이적도伊適島 두 섬이 크고 넓게 서로 잇대어 있는데, 모두 남양부에 속하고 말을 기르던 곳이었다. 또 덕적진산德積鎮山¹⁰¹이 있는데 역시 크고 넓으며, 다른 섬들에 비해 조금 멀리 있었고 이 또한 독진獨鎭이었다. 자오도子午島가 있는데 일명 소호蘇湖라고도 했고, 남양부에 속한 목장牧場이다. 오른쪽에는 여러 산이 중첩되어 있었는데 길이가 100리 정도 되었다. 그리고 죽추도竹筵島와 선제도先濟島 두 섬이 그 사이에 있었는데 이 또한 남양에 속한 목장이었다. 그 앞으로 여흥도餘興島, 일명 어도於島라는 섬이 있는데 길이가 수십 리 정도 되었으며, 역시 남양에 속한 목장이었다. 모든 조운선이 돛을 올리고 앞을 향해 나아갔다. 동쪽에 작은 섬 하나가 있는데, 산의 형태가 고깔처럼 생겨 변도弁島¹⁰²라고 불렀다. 조운선이 그 섬 옆을 지나 앞으로 나가면 지름길이 되지만 다만 석탄石灘이 있어 급하지 않으면 피해간다. 서쪽에는 자오도子午島가 있다. 자오도는 큰 섬과 작은 섬이 있어 여흥도와 서로 마주보며 뱃길을 내어주고 험한 여

100.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풍도동 풍도다.

101. 인천시 옹진군 덕적면 덕적도에 진이 있었다.

102.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북동 변도로 추정된다.

울이 없기 때문에 모든 배들이 이곳을 거쳐 운항했다. 여흥도의 서
 쪽으로 가서 모든 배들이 닻을 내렸다. 이때 아침 조수가 물러나고
 남풍이 서북풍으로 변하여 약하게 불었다. 만조가 들어올 때 순조
 로운 기세를 만나야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머물면서 그때를 기다
 렸다. 남양의 호송리가 이제야 도착하였다. 늦게 도착한 것을 꾸짖
 고 남양부사에게 편지를 부쳤다. 뒤에 올 모든 조운창의 조운선들
 을 잘 호송하도록 엄하게 명령하라고 부탁했는데, 남양부사는 족
 질^{族侄} 임한수^{林翰洙}¹⁰³다. 오시에 다시 닻을 거두고 앞으로 나갔다.
 여흥도의 입구를 나가 팔산^{八山}¹⁰⁴을 향하니 만조가 들어오려 하고,
 서풍이 알맞게 불었다. 모두 운항에 도움이 되었다. 여흥도의 바깥
 바다는 역시 원활하였고, 그 가운데에 산 하나가 불룩하게 솟았는
 데 이곳이 팔산이다. 가까이에 이 섬과 같은 곳이 8개가 있어 그렇
 게 부른다고 한다. 준어^{鰻魚}가 여기에서 나는데 고기잡이배들이 많
 이 몰려 있었다. 섬의 동서 모두 항로가 되는데, 서쪽은 물살이 조
 금 거세고, 동쪽은 작은 여울이 있었다. 조수가 들고 나갈 때 운항
 할 수 있는데, 미시에 만조가 들어오면서 갑자기 바람이 없어졌다.
 조운선은 더디게 움직이며 여흥도를 나섰다. 자오도의 두 섬 사이
 로 비스듬히 북쪽을 향하다가 동쪽으로 가니 팔산에 닿았고, 그 섬
 의 동쪽으로 나가니 날이 이미 저물었다. 영종도^{永宗島}와 대궐도<sup>大
 闕島</sup>¹⁰⁵가 가까이 있지만, 물이 밀려들어 나갈 수 없다. 대궐도는 섬
 안에 옛날 행궁^{行宮}이 있어 그렇게 부른다. 바다에서 머물면서 밤을
 보냈다.

103. 1817~1886. 1846년 문과에 급제하였고, 1863년 2월 7일에 남양부사에 임명되었다.

104. 인천시 중구 무의동 팔미도로 추정된다.

105. 인천시 중구 북성동 월미도로 추정된다.

二十一日 曉南風吹起 不急不徐 適可行船 平明早潮半入 七船舉帆
 而進 將近六島 唐津護送吏受過去狀辭去 過六島東見 西近有一小橫
 山 山谷人家可爲五六十 問之 水原 豐島(都)也 發行二十五日 始到
 圻界 水原府護送軍校來謁 問先去五船 曰 十九日 護送至永宗 水次
 項而還 又問其日風濤有無 曰 無矣 其無事前進 蓋可知也 過豐島前

水原校受過去狀而去 海水到此平圓 波濤不興 天清氣朗適又得(以) 順風 殆發行後 最好日也 登屋上 四方八望 皆大島也 左則有升旺 伊適兩島 闊張而相接 皆南陽地 牧馬處也 有德積鎮山亦闊張 較諸島稍遠 是獨鎮也 有子午島 一名蘇湖 亦南陽牧場也 右則諸山重疊 長袤可百里 有竹筭 先濟兩島 在其間 亦皆南陽牧場也 前有餘興島 一名於島 長袤數十里 亦南陽牧場 諸帆直向而進 其東有一小島 巒形如弁 名曰弁島 船由其間而出爲捷徑 但有石灘 故不忙 急則避之 其西卽子午島 子午島有大小 與餘興相對 爲疊無灘險 故船皆由此而行 行餘興之西 諸船下碇 時早潮退 南風變爲西北風而微吹 晚潮入時 得其順勢 可以進行 故留待也 南陽護送校始到 責其晚 付書主倅 囑以後來 諸倉漕船 嚴飭善護 主倅族侄翰洙也 午時復收碇前進 出餘興島口 向八山 晚潮將入 西風適至 蓋(爲)利於行矣(也) 餘興島口外海亦圓闊 有一巒突立於中 此八山也 近有如此山者八 故名云 鯪魚產於此 漁艇多聚其東西皆船路 西則水稍動 東則有微灘 潮(追記)出入時可行 未時晚潮入 而忽無風 船行遲 出餘興 子午兩島之間 斜迤向北之 挨東處 抵八山而出其東 日已暮矣 永宗及大關島 只隔一帆 水入矚而不得進 大關島以島中舊有行宮故名 駐帆中洋而宿

4월 22일. 새벽에 달이 높고 파도가 잔잔했다. 동남풍이 불었는데 순풍이었다. 대궐도의 봉우리를 향하여 나아갔다. 남쪽에서 서쪽으로 비스듬히 물살을 거슬러 항해했다. 오른쪽이 인천부(仁川府)다. 인천의 호송리가 와서 알현하였다. 조금 뒤 하늘이 밝아지고 대궐도를 지났다. 대궐도의 남쪽에 강이 있는데, 이곳은 인천에 속한다. 강을 나르면 남쪽은 인천에 속했고, 북쪽은 영종진에 속한다. 영종진 앞에 이르렀다. 여기가 바닷길의 끝이다. 한양과 송도의 두 강이 만나 바다로 나가는 곳이다. 영종진의 관아는 강과 바다가 만나는 평평한 땅 위에 바다를 바라보며 동쪽으로 세워졌다. 홍살문(紅箭門)은 마치 바다에 제사를 지내듯 깎아지는 평평한 언덕 위에 동쪽

을 향해 있었다. 그 아래 낮은 산이 하나 다시 솟아 있는데, 소나무로 덮혀 있어 송산¹⁰⁶⁾이라고 한다. 산은 부평부^{富平府}에 속하고, 소나무는 영종진에 속했다. 송산 동쪽이 대궐도¹⁰⁷⁾다. 송산과 대궐도 사이가 강이 바다로 흘러가는 곳인데, 이곳을 수차항^{水次項}이라고 했다. 항로는 여기를 지나 강으로 들어가는데, 강이 마치 바다처럼 크다. 강에는 응도^{鷹島}, 호도^{虎島}를 비롯한 작은 섬들이 있다. 강에 막 들어서니 큰 산 하나가 보이는데 영종진 북쪽에 우뚝 솟아 있다. 물으니 강화^{江華} 마니산^{摩尼山}이라고 했다. 또 응도 아래를 보니 큰 배 여러 척이 돛을 내리고 정박해 있었다. 인천의 호송리에게 물으니, 이들이 19일에 먼저 온 조운선들이라고 하였다. 조금 있으니 먼저 갔던 조운선의 사공 두 사람이 와서 알현하였다. 배의 안부에 대해 물으니 과연 무사히 운항하여 19일에 영종진에 도착했다고 하였다. 이 말을 듣고 근심과 걱정이 말끔하게 풀렸다. 응도에 정박한 배가 몇척이나고 물으니, 2척이 있고 3척은 이미 황산^{黃山}¹⁰⁸⁾으로 갔다고 하였다. 황산은 통진부^{通津府}에 속한 섬으로 영종진에서 50리를 더 가야 하는 곳인데, 손돌목^{孫石項}¹⁰⁹⁾ 아래에 있다. 손돌목의 오른쪽이 통진이고, 왼쪽이 강화다. 여울이 험하고 물이 얇아 조수가 들어오지 않으면 지날 수가 없다. 그래서 황산은 배들이 운항하다가 조수를 기다리는 곳이다. 조금 지나서 황산으로 갔던 3척의 배에 탔던 사공들이 와서 알현하였다. 먼저 갔던 5척의 사공들을 함께 잡아다가, 제멋대로 떨어져 나갔던 죄를 문책했다. 그러나 조운선이 무사하여 특별히 곤장으로 다스리는 벌을 면해주었다. 드디어 황산을 향해 나아갔다. 강의 왼쪽은 모두 강화고, 오른쪽은 앞쪽이 부평이고 뒷쪽이 통진이다. 응도에 머물던 2척의 배도 뒤따랐다. 12척의 조운선이 모두 황산 아래에 모여 줄지어 배를 매었다. 모든 사공들을 불러 배의 준비를 미리 갖추고, 만조가 들어올 때를 기다렸다가 즉시 손돌목을 넘어가라고 명령했다. 모든 사공들이 말하기를 “만조는 신시에 들어올 것이며 신시 말에 넘어갈 수 있을

106. 인천시 중구 운남동에 있다.

107. 원문에 ‘대궐도’를 ‘영종진’으로 고쳤는데, 문맥상 대궐도가 옳은 것으로 보인다.

108. 인천시 강화군 길상면 초리리 황산도다.

109.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신안리의 앞쪽으로, 반대편의 강화도 광성보(廣城堡)와 사이가 좁은 여울을 이루고 있다.

것입니다. 그러나 손돌목의 안쪽은 마치 양羊의 장腸처럼 구불구 불하고 물살도 거셉니다. 운항이 더디게 되어 밤이 늦을까 걱정입니다. 조수의 흐름을 살피다가, 만일 출발하지 못하면 내일 아침까지 기다렸다가 나아가야 합니다.”라고 하였다. 부평의 호송리가 오전 늦게 도착하여, 경계를 지난 후에 비로소 나타나 알현하였다. 대호송관인 제물진 만호濟物鎭萬戶가 관례대로 풍도豊島에서 기다렸다. ■■ 영종진의 호송리도 왔다. 영종진의 호송리와 제물포의 향리들을 모두 입암入巖에 잡아들여 문책하였다. ■■ 강江의 항로 좌우에 배를 배치하여 인도하게 하는 일에 대해 제물포의 향리들에게 단단히 타일렀다. 인천, 부평, 통진의 호송리가 모두 과거장을 받아 물러갔다. 통진부의 수향리首鄉吏와 장교將校가 ■■ 와서 알현하였다. 강화부江華府의 호송리는 오지 않았다. 물어보니 각각의 진에서 알아서 하게 하였다고 한다. 월곶첨사月串僉使와 ■■ 이방吏房은 감합기勘合記를 작성하고 갔다. 점검을 위한 관례가 있기 때문인데, 원산진에서와 같았다. 만조가 신시 말에 들어오기 시작하였지만 오늘은 여력이 없어 출발하지 못하고 배 위에서 묵었다. 처음에는 섬마을로 가려 했으나 집이 깨끗하지 않다 하여 그렇게 하지 못했다.

二十二日 鷄三鳴 月高波明 東南風吹順風也 於是向(抵)大關島岑而進 自南之挨西處 斜截流而行海右 是仁川地 仁川護送校來現小頃天明 過大關島 島之南(後)有江 自仁川地 出江之南屬仁川 北屬永宗 至永宗鎭前 於是海盡 而漢陽松都兩江來會而出(爲江之初頭也) 永宗鎭衙在江海之交平崗上 臨水向東而設 紅箭門若可醮水平崗斷而向東復起一低巒 松樹蒙被 名曰松山 山屬富平 松屬永宗 松山之東 卽 大關島 松山 永宗鎭(大關島)之間 是江出處 謂之水次項路由而入其內 江之大幾如海 有鷹島 虎島及小小諸島 方入也 見一大山 竣立於永宗鎭北 問之 江華 摩尼山也 又見鷹島下 有大船數隻 落帆而住 問仁川護校 是十九日先去船也 俄而先去船沙工二名來

謁問船事 果無事進程 十九日得抵永宗 於是憂慮快釋矣 問鷹島所住船幾隻 曰 二隻也 三隻已往在黃山 黃山通津島名過永宗五十里地 在孫石項下 孫石項右(半)是通津地 左(半)是江華地灘險水淺 非潮入時 不可越 故此島爲船行待潮處也 俄而黃山住三舡沙工亦來現 乃并(追記)遂(交周)捉入先去五船沙工 責其擅自分離之罪 而船(得)無事 特恕棍治 遂進向黃山 江左皆江華地 右先富平地 後通津地 鷹島所住二船亦追至 十二船齊會列繫於黃山下 招諸沙工 使預備船裝 待(晚潮)入時 卽踰孫石項 諸沙工曰 晚潮申時當入 至申末可踰(內羊腸之曲 項外(交周)水力勁 船行遲 恐或值暮第觀潮(勢) 若未可發 則當待明朝進行 富平護送校晚至校過境後始來現 大護送官 濟物萬戶例待於豐(島) 永宗始來 永宗吏校及濟物隨陪 并捉入巖 責恕 以江路左右排船指導事 申飭於濟物隨陪 仁川 富(平) 三邑鎮吏校 皆受過去狀而去 通津府 首鄉吏校爲來現 江華府護送吏校不來 問之 使各鎮舉行云 月串僉使吏房 膽勘合記而去 蓋有點檢例 如元山也 晚潮申末始入 日無餘力 不得進發 宿船上 始欲投島村 聞村家不淨 未果

4월 23일. 하늘에 구름이 점점 있다가 해가 나자 밝아지고 북풍이 불었다. 진시에 아침 밀물이 거의 반쯤 들어왔을 때 모든 배에 돛을 올리고 닻을 거두라고 명령하였다. 북쪽을 향해 나아가니, 좌우에 산무리가 있고 그 아래에 긴 제방이 평평한 언덕을 이루고 숲에는 나무가 파랗게 줄지어 있었다. 인가와 염막(鹽幕)이 물가에 연달아 자리 잡고 있었다. 오른쪽은 통진에 속하고, 왼쪽은 강화에 속한다. 초지진(草芝鎭)은 긴 제방 머리의 돈대(墩臺) 언덕 위에 있다. 그 북쪽에 또 돈대 언덕이 있었는데 비교적 크다. 위로는 깎아지른 성첩(斷堞)이 있는데, 강화의 외성(外城)이다. 손돌목에 이르러 양쪽의 산이 엇갈리는데 어디서 시작되는지 알 수 없다. 손돌목 입구에 들어

서니 막 여울을 넘어 물이 오다가 비스듬히 돌아서 들어오는 것을 보았는데, 이 또한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알 수 없었다. 굽이굽이 도는데 이곳이 한양의 수구水口로 하늘이 내린 험한 지형이다. 첫 굽이에 들어서기 시작하니 강화 외성의 동문이 보였다. 강수는 한 줄기가 외성으로 가는데 안팎의 수림을 끼고 있어 초록 그림자가 물에 드리웠다. 한 굽이를 돌 때마다 높은 언덕이 있고 언덕에 작은 원첩圓堞을 설치했는데, 원첩마다 안에 군기고軍器庫를 마련했으니 모두 비어지備禦地¹¹⁰다. 다만 성첩이 1장丈이 못되고, 무너져 내린 지 오래였지만 수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한탄스러웠다. 강물 가운데 깊은 곳과 얇은 곳이 있어, 조졸들이 양해승量海繩으로 재어가며 나갔는데, 얇은 곳은 겨우 2장 정도로, 퇴조潮退 때에는 1장이 안되었다. 양해승은 단단하게 꼬은 줄 끝에 철추를 달아 물 속에 던져 얇고 깊은 곳을 헤아리는 도구다. 굽이를 돌다가 왼쪽에 작은 절이 언덕 위에 있는데, 절 이름을 물으니 아는 사람이 없었다. 물이 많은 곳에 도착하니 갑자기 털 달린 동물이 하나 나타났다. 물 위로 잠깐 나타났다가 다시 사라지는데 세 번이나 물 위로 올라왔다. 머리와 등이 보였는데 털이 적황색赤黃色이고 모양이 개와 같았다. 개보다 작고 몸이 가늘었다. 내가 해구海狗인지 의심스러워 물어 보니 말하기를 이것이 속칭 상괭이上廣伊라는 것이었다. 바다에 사는 돼지의 일종으로 고기는 먹지 않고, 기름을 짜서 등불로 쓴다고 하였다. 여섯 굽이에 이르니 언덕이 제법 컸는데 사람들의 사는 집이 가장 많았다. 물으니 갑곶진甲串鎭이라고 하였다. 그 아래에 성문과 초루가 물결에 비쳤다. 크고 작은 배 4, 5척이 그 앞에 매여 있는데, 강화에서 한양으로 가는 길이라고 하였다. 성문 안에 사찰이 있다. 강의 오른쪽은 통진에 속하는데, 짧은 성첩이 높은 산 아래에 있었다. 성첩에는 4개의 문이 있는데, 2개의 문에는 문루門樓가 없고 2개의 문에는 문루가 있다. 문루 가운데 하나는 바다를 향해 열려 있다. 문루 안쪽으로 관사館舍와 창고倉庫가 있고, 인가가 40~50채

110. 미리 방비하여 막는 곳이라는 뜻으로 방어의 요충지를 말한다.

정도 있다. 강화 성문과 더불어 강물을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는데, 이곳이 문수진^{文殊鎭}이다. 일곱 번째 굽이에 들어서니 수면이 조금 넓어지고, 제방과 성첩이 길게 두르고 있다. 제방의 중간에 조해루^{朝海樓}와 월곶진^{月串鎭}이 있다. 월곶진에 못 미쳐 닻을 내리니, 시간이 정오가 되기 전이다. 강 북쪽에 높은 봉우리와 큰 산들이 층층이 있는데, 물으니 장단^{長湍}, 풍덕^{豐德}, 송도^{松都} 세 군현의 산이라고 하였다. 송악산^{松嶽山}이 가장 크고 멀리 있는데, 강물이 산을 둘러 해서^{海西}의 경계로 통한다고 하였다. 한강의 출처^{出處}에 대해 물으니, 사공이 동북방향의 송제^{松堤}를 가리키며 말하기를 저 제방 뒤에서 나온다고 하였다. 제방의 북쪽에 긴 언덕이 있는데 섬이다. 조운선이 송제와 장도^{長島}의 사이를 거쳐 나아가려 하는데, 제방 옆은 물이 얇고 섬 옆은 물이 깊었다. 따라서 조운선들이 섬 옆을 끼고 나가야만 했다. 점심을 먹고 작은 배를 타고 물에 내렸다. 남여를 타고 월곶진 관아로 갔다. 월곶진 침사가 일이 있어 나갔기에, 동헌에 올라 잠깐 쉬었다. 그리고 걸어서 연미정^{鸞尾亭}¹¹¹⁾에 갔다. 연미정은 월곶진 관아에서 동북쪽으로 높은 언덕 위에 있는데, 강물이 둘러싸고 있다. 잠깐 사이에 선상에서 보던 여러 산들이 모두 눈앞에 있으니, 참으로 빼어난 정자다. 또 조해루^{朝海樓}에 올랐다. 조해루는 월곶진 관아의 왼쪽 강물 가까이에 있다. 조해루가 외성 동쪽의 문루다. 문루 안밖에는 인가가 70호 정도 된다. 해가 기울려고 하여 다시 남여를 타고 월곶진 아랫마을의 집을 잡아 머물렀다. 전에 죽도에 있을 때 만자선^{萬字船}의 일로 충청감영과 호조, 선혜청에 보고했었는데 회제^{回題}¹¹²⁾가 모두 도착하였다. 충청감영의 제사^{題辭}는 물에 젖지 않게 곡물을 나른 일은 다행이지만, 356섬의 곡식을 나누어 실은 것은 법에 어긋난 것이니 소홀했음을 문책하였다. 내가 356섬을 나누어 실은 일을 보고한 일이 없는데, 이는 서천군수의 보고만을 따른 것이었다. 가소롭다. 선혜청의 제사는 조운하는 길에 좋지 않은 일이었지만, 곡물로 따지면 물에 젖는 일을 면하였고

111. 인천시 강화군 강화읍 월곶리에 있는 정자로, 고려시대에 지어졌다고 한다. 1244년(고종 31)에 이종주(李宗胄)에게 명하여 과거를 보게 하였다는 기록이 있으며, 조선시대에는 삼포왜란 때 전라좌도방어사로 큰 공을 세운 황형(黃衡)에게 정자를 하사하였다.

112. 보고에 대한 답변인 제사(題辭)를 기록한 문서를 말한다.

조운선도 심하게 파손되지 않았으니 편안하게 처리하라고 하였다. 설령 모든 배가 엉망이 되었더라도 본래 죄의 경중을 헤아리는 관례가 없었다. 지금 이와 같은 제사가 온 것은 반드시 그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호조의 제사는 이 일이 천만다행이라고 하면서 곡물을 나누어 싣는 일은 거론하지 않았다. 한 배에 싣든지 여러 배에 나누어 싣든지 빨리 도착하는 것이 상책이라고 하면서 좋을 대로 하라고 하였다. 세금의 납부는 오직 호조와 관계되어 있으므로, 호조에서 이렇게 제사를 내렸으니 다행이다. 저녁에 구름이 끼고 흐렸다. 비가 올 듯하다가 밤에 다시 밝아졌다.

二十三日 天有駁雲 而日光則明 北風吹 辰時早潮幾半入 飭諸船舉帆收碇 向北而進 左右群嶂之下 長堤平崗 林下木列翠 人家鹽幕 臨水聯連 右則(是)通津地 左則(是)江華地 草芝鎮在長堤頭墩阜上 其北又有一墩阜較大 上有斷堞 江華外城也 至孫石項口(交周) 兩山交衽 不知有出處 及入其口 方見水通避灘踰項 迤回而入 又不知出處(迤回而入 又復如前) 曲曲皆然 此漢陽水口(京江入海處) 天爲之設險也 始入一曲 有江華外城東門 蓋江水以去一行外城 而內外樹木夾持 翠影倒水 每一曲轉處 高阜上輒設小圓堞 圓堞內輒置軍器庫 皆爲備禦地也 但城堞不盈一丈 頽夷久矣 而不爲之修可歎 江水有深處 有淺處 漕卒以量海繩試之 淺處僅二丈 潮退則當不滿一丈 量海繩以堅絲爲索 末懸鐵錘 投水中以量淺深者也 行曲左(追記)有小寺 在曲阜上 問寺名 無知者 到水闊處 忽有一毛物 瞥躍出水上 復沒者 三其躍也 頭背露見 毛赤黃色 其形如狗 而小且狹 余疑爲海狗 而問之 曰 是俗呼上廣伊者也 卽海中猪屬 肉不可食取膏作燈用云 至六曲崗阜稍大 人家最多 問之 甲申鎮也 其下有城門 譙樓映波 大小船四五隻繫在其前 江華赴京之路也 門內有寺刹 江右通津地 有短堞倚高山 堞有四門 二門無累 二門有樓 其一臨水而開 內有館舍倉庫 人家可四五十 與江華城門 隔水相對 此文殊鎮也 入(出)

七曲 水面稍闊 堤堞長繞 堤腰有朝海樓及月串鎮 未及月串鎮而下
 碇 日未午矣 江北有高峰巨巒層疊羅列 問之 長湍 豐德 松都 三邑
 山也 松嶽最大而遠 江水繞而西通于松都(交周)海西之界 問漢江出
 (來)處 稍工指東北間松堤 曰從此堤後而出 堤之北長崗是島也 今
 船行將由松堤長島之間而進 堤邊水淺 島邊水深 故船必附島邊而
 行 午飯訖 乘小舟下陸 以藍輿入月串鎮衙 僉使因事而出 登軒少憩
 因步往鷺尾亭 亭在鎮軒東北高阜上 江水圍抱 俄者(在)船上所見
 諸山皆在前 儘名榭也 又登朝海樓樓在鎮軒之左 迫臨江水 是外城
 東門樓也 門內外人家 可爲七十戶 日將斜 復乘藍輿 就鎮下村家而
 住 向在竹島時 以萬字船事 報錦營 戶曹 惠廳 回題皆來 錦題以準
 卸無沈濕爲幸 又以三百五十六石播載爲法外 責以疎忽 吾未嘗以
 三百五十六石播載爲報 此徒憑舒川倅報也 可笑 惠題以爲領運不
 善事 當論勘以穀物 得免水沈 船隻不至甚破 安徐云 雖或全船致敗
 本無論勘之例 而今乃有此題其必有由也 戶題以爲此非但萬幸也
 毋論播載各船 又或專船 或分幾船裝載 速到爲上策 從長善處云 稅
 納專關於戶曹 戶題如此可幸 夕雲陰 有雨意 夜復開明

4월 24일. 아침에 구름이 점점 끼었다. 조해문^{朝海門} 아래에서 작
 은 배를 타고 가서 상선에 올랐다. 진시에 조조^{早潮}가 반쯤 들어왔
 을 때 돛을 올리고 나아갔다. 송제와 장도의 사이를 거쳐 강에 들
 어와 동쪽으로 향해 나아가 여러 군데 굽은 곳을 지났다. 각 군현
 에서 보낸 작은 배 몇 척이 좌우에 줄지어 서서 풀섬^{草嶼}과 석탄^{石灘}
 을 막아 호송했다. 강진포^{康津浦}를 지나니 통진의 큰 마을이다. 조강
 祖江¹¹³⁾을 지나도 역시 통진이다. 왼쪽으로 송도와 풍덕의 경계를 끼
 고 지나 산이 교하군^{交河郡}의 장릉 앞에 이르렀다. 오른쪽으로 시암
 리^{時巖里}¹¹⁴⁾를 지나 후평리^{後坪里}¹¹⁵⁾ 포구에 이르러 정박하였다. 시암
 리와 후평리도 통진에 속한다. 이 강에 들어선 이후 오직 서풍이 유
 리한데, 돛을 올린 이후 남풍이 불다가 갑자기 동남풍이 불었다. 파

113.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조강리다.

114. 경기도 김포시 하성면 시암리다.

115. 경기도 김포시 하성면 후평리다.

도도 점점 거칠어졌다. 적당한 파도를 만나도 동풍이 불면 거슬러 올라갈 수 없기에 멈추었다. 해가 정오에 이르기 전에 40~50리를 갔다. 여기부터 행주幸州까지 30리고 서강西江까지 70리다. 삼각산三角山의 우뚝 솟은 모습이 북쪽에 보였다. 출발한지 약 30일 만에 여기에 이르렀으니 매우 지루한 길이었다. 강변의 여러 군현에서 호송리를 보내지 않은 것이 괴이하다. 정오 무렵 뜨거운 더위가 마치 한여름과 같다. 동풍과 심한 파도가 오전 늦게까지 그치지 않았다. 내가 조운선들을 걱정하니 사공들이 말하기를 “강은 바다와 다르니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라고 하였다. 해질 무렵 갑자기 구름이 끼고 흐려져 비가 올 듯했다. 모든 배들에 우장雨裝을 미리 갖추라고 명령하였다. 밤에 비가 조금 내렸다. 배 위에 머물렀다.

二十四日 朝有駁雲 自朝海門下 乘小艇 往登上船 辰時早潮 半入 遂舉帆而進 由松堤長島之間而入 向東而行 多曲折處 各邑遣(追記)小船幾隻 列于左右 以防草棲石灘爲浩送 過康津浦 通津大村也 過祖江 亦通津地 左挾松都豐德界 山至交河長陵前 右則過時巖里 至後坪里浦而住碇 時巖里後坪 亦皆通津地 自入此江 惟西風爲利 而舉帆以後 南風吹 又忽爲東南風 波濤漸起潮勢 雖得順波濤之中 東風 不可遡往 故止 日未午 行四五十里矣 自此去幸州三十里 西江 七十里 三角山在北屹然入望 發行近三旬 始得到此 甚支離矣 江華 諸邑無護送吏校 可怪 午際曝暑 如盛夏 東風激波 晚亦不息 余爲諸 船憂 梢工輩曰 江異於海 不足爲憂 至晡忽復雲陰 有雨意 飭諸船豫 備雨裝 夜微雨 宿船上

4월 25일. 아침에 동남풍이 다시 불고 잠시 동안 비가 내렸다. 바람과 비가 잠깐 불고 내리다가 그치기를 반복하는 것이 종일 이어졌다. 밤에는 비가 계속 내렸다. 낮과 밤 동안 1보지락¹¹⁶⁾ 정도 내렸다. 가뭄 끝에 좋은 일이기도 했다. 배 위에 머물렀다. 교하군의

116. '리(梨)'는 보지락 즉 비가 온 분량을 헤아리는 말로, 빗물이 땅속에 스며들어 그 깊이가 보습이 들어갈 만큼 된 정도를 이른다.

호송리가 아침에야 비로소 와서 알현하였다.

二十五日 朝東南風又吹 少頃雨下 風與雨皆乍作乍止 以終昵夜雨
連下 并晝夜 可一犁許 旱餘可喜 宿船上 交河護送吏朝始來現

4월 26일. 새벽부터 바람도 잦아들고 파도도 없어졌다. 아침 일찍
흐리고 구름 낀 날씨도 걷혀, 하루 종일 청명했다. 정오가 되어 조
수가 들어올 때 돛을 올리고 나아가려 하다가, 남풍이 갑자기 크게
불어 실행하지 못했다. 밤에 바람이 잦아들었다. 배 위에 머물렀다.

二十六日 自曉風息 水亦無波 早朝雲陰解駁 終日清明 至午潮入時
舉帆欲進行 南風忽大作 未果 夜風息 宿船上

4월 27일. 이른 아침에 다시 구름이 끼고 비가 올 듯하였다. 해가
난 후에 점점 개어 밝아졌다. 오시에 조수가 들어와 모든 배가 돛을
올리고 나아가려 할 때 남풍이 갑자기 크게 불어 운항하지 못했다.
저녁에 바람이 잦아들었다. 밤에 배 위에 머물렀다.

二十七日 早復雲陰 有雨意 日出後 漸開明 午時潮入 諸船舉帆將進
南風忽又大吹 不得行 夕風息 夜宿船上

4월 28일. 새벽에 하늘이 맑고 남풍이 약하게 불었다. 모든 배에
명하여 일찍 아침을 먹게 했다. 먼동이 트자 조수가 6분분에 이르러
돛을 올리고 나아갔다. 왼쪽으로 반석리蟠石里와 백암리白巖里를 지났
는데, 여기서 교하군의 경계가 끝났다. 이곳부터 위로는 고양군高陽郡
에 속한다. 호송리가 와서 알현하였다. 오른쪽으로 절류리折柳里, 포
계리浦界里를 지났는데, 여기에서 호송리가 과거장을 받고 물러갔다.
다시 김포金浦의 장릉章陵 앞 현암리玄巖里를 지났다. 그 동쪽에 강 가

운데 섬이 있는데 하나의 산과 같았다. 길을 바꾸어 현암리를 거쳐 섬의 동쪽으로 운항하였다. 조졸들이 말하기를 현암리 앞이 정박하기 좋다고 하였다. 통포通浦에 이르니 조수가 다하여 배를 멈췄다. 여기는 고양에 속한다. 좌우에 모래 제방이 길고 좁게 나있다. 왼쪽 제방 위 낮은 산 밑에 큰 마을이 있는데, 삼각산이 정동 쪽으로 보였다. 신시 말에 조수가 7분分에 이르기를 기다려, 다시 돛을 올리고 앞으로 나아갔다. 석동목石洞項을 넘었는데, 물속에 모래제방이 있었다. 정기은이 맡은 조운선이 잘못 들어가 그 위에 걸렸다가, 순식간에 조수가 더 밀려오자 배가 저절로 떠올랐다. 오른쪽으로 김포의 마지막 경계를 지났는데, 호송리가 과거장을 받고 물러갔다. 김포의 경계 위쪽은 양천에 속하는데, 호송리가 와서 알현했다. 왼쪽은 고양에 속한다. 날이 저물 무렵 행주杏洲에 도착하여 정박하고 머물렀다. 행주도 고양에 속하는데, 주원廚院¹¹⁷에서 고기를 잡는 곳이다. 푸른 산이 길게 늘어서고 그 아래에 인가가 많았다. 밤에 천둥소리가 나고, 남풍이 불었으며 비가 조금 내렸다. 배 위에 머물렀다.

117. 궁중의 음식을 맡아보던 관청을 말한다.

二十八日 曉天氣清 南風微(漸)吹 飭諸船蓐食開東 潮入至六分 乃舉帆 天明進發 左過蟠石 白巖兩里 交河界盡於此以上高陽地也(附箋_此行多脫誤)護送吏來現 右過折柳 浦界里 於此護送李校受過去狀而去 又過金浦 章陵前 玄巖里 其東有鳥嶼在江中 一拳山也 轉而由玄巖 鳥嶼之東而行 漕卒輩言 玄巖前可住碇云 至通浦潮盡 靈(爻周)遂停帆 是高陽地也 左右沙堤長挾 左堤上 低巒下 有大村 三角山在正東入望 申末待潮至七分 復舉帆進行 踰石洞項 水中有沙堤 鄭基殷所掌船誤入而掛 須與潮添至 船自浮 右過金浦終界 護送監色受過去狀而去 金浦界上 陽川地也 護送監色來現 左皆高陽地 日暮至杏洲住碇 杏洲亦高陽地 廚院捉魚所也 翠巒橫張 其下多人戶 夜有雷聲南風作雨微(漸)灑 宿船上

4월 29일. 이른 아침에 구름이 끼고 흐렸다가 오전 늦게 비가 내렸다. 모든 배들이 덮개와 우장을 갖추었다. 이날 서강까지 나아가서 도박장¹¹⁸을 올리려고 돛을 올렸다. 고양과 양천으로 가는 일을 헤아리니 길을 잘 아는 사공이 말하기를 “양천목^{陽川項}의 물은 겨우 무릎에 닿을 정도여서 내일까지 기다렸다가 조수가 더 밀려왔을 때 넘어갈 수 있습니다.”라고 하여 다시 돛을 내렸다. 비가 밤까지 내리다가 정오가 못되어 그쳤다. 광흥창^{廣興倉}의 사령^{使令} 2명이 와서, 호조의 서리가 광흥창에 보낸 사통^{私通}¹¹⁹을 보여주었다. 성당창의 조운선이 양천목에 도착하거든 사령을 많이 보내어 오늘 내에 도착하게 하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앞에 있는 양천목의 물이 얇고 비에 곡물이 젖을까 두려워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내일이나 모레쯤 서강에 닿을 수 있을 것이다. 왕종팔에게 이런 뜻으로 봉감^{捧甘}¹²⁰을 작성하게 하여 보냈다. 배 위에 머물렀다.

118. 조운선의 도착을 알리는 문서로 추정된다.

119. 공적인 일로 관리들끼리 편지 등으로 사사로이 주고받은 문서를 말한다.

120. 상급 관청에서 하급 관청에 보내는 문서를 ‘감결(甘結)’이라 하는데, 이 문서에 대한 답을 기록한 문서를 말한다.

二十九日 早雲陰 晚朝雨下 諸船具蓋裝欲趁 是日呈西江到泊狀 舉帆擬進高陽 陽川 指路沙工言 陽川項水僅至脛待明日 潮添至可越 遂復落帆 雨至夜止午前 廣興倉使令二名來到 示戶曹吏私通於廣興倉者 以爲聖堂倉漕船來在項下 多發使令以送 使之今日內到泊云 而前項水淺 雨又恐沾穀 明再明間 可以抵泊西江 陪吏以此意 作捧甘付送 宿船上

5월 1일. 날씨가 청량하다. 조수가 밀려오고 서남풍이 약하게 불었다. 진시 말에 출발하여 왼쪽으로 고양을 지나고, 오른쪽으로 양천현의 관아 밖을 지나며 양천목을 넘었다. 염창목^{鹽倉項}에 들어가려 할 때 상선과 구자선^{駒字船}이 물속의 퇴사^{堆沙}에 걸렸다. 돛을 내리고 거두기를 반복하여 겨우 떠오를 수 있었고, 물이 깊은 곳으로 옮겨갔다. 앞서간 양종하, 윤자중, 정기은이 맡은 조운선도 염창목을 나서다가 퇴사에 걸려 모두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제자리에 멈

121. 임건수(林健洙, 1839~1876)로 추정된다.

추었다. 밤이 지나고 오시에 경저리와 함열의 문안사가 와서 알현하였고, 관아에서 보낸 편지를 받았다. 둘째 아이¹²¹를 본지 23일이 되었다. 둘째는 함열 관아에서 지난달 27일에 출발하여 한양에 들어왔다. 우리 행차가 한양에 가까워졌다는 소식을 듣고 서강에서 배를 타고 왔다. 위험한 곳을 지나온 후에 부자가 서로 만나니 기쁨을 어찌 말로 하겠는가. 법성창^{法聖倉}의 조운선이 나보다 거의 한 달 후에 출발했으나, 마침 25일 이후에 3일 간의 남풍을 만나 바다를 넘어와서 통포^{通浦}에 나란히 정박해 있는 것이 멀리서 바라다보였다.

初一日 晴朗 潮入而西南風微(漸)吹 辰時末進發 左過高陽地 右過陽川縣治外 踰陽川項 將入鹽倉項 上船及駒字船掛於水中堆沙 解碇復收 屢得浮起 移下於水深處 前去梁宗厦 尹滋中 鄭基殷所掌船 亦至出項掛沙 并不得前進 皆止於在處 過夜午者 京邸吏及邑問安使來現 得衙中書信 仲兒爲相見去念三日 自衙中發念七日入京 聞吾行近京 自西江乘船而來 經涉危地 父子相面 喜不可言 聖堂¹²²倉漕船後 我幾一朔發 而適遇二十五日以後 三日南風 得以越海 來泊於通浦 遙望衆帆列立

122. 法聖의 誤

5월 2일. 새벽에 안개가 끼었다가 해가 난 후에 점차 개었다. 사시 초에 조수가 들어와 8분^分에 이르렀을 때 다시 출발하였다. 염창목을 나서자 걸려 있던 3척도 조수를 타고 떠올랐다. 양화진^{楊花津}을 지나 서강점검소^{西江點檢所} 앞에 이르러 정박하였다. 천자선과 백자선 2척의 샅배만이 뒤에 있었고, 모래톱에 걸려 있어 종선들을 급히 보내 싣고 있던 곡물의 절반을 내리게 하였다. 백자선은 다시 떠올라 뒤따라 도착하였다. 천자선은 제법 높은 곳에 걸렸는데 조수가 이미 빠져나가기 시작하고 떠오르지 못해서 도착하지 못했다. 사람을 보내 형세를 살피게 하니, 평평한 모래톱에 걸려있어 내일 아침의 조수에 떠오를 수 있을 만하다고 했다. 도박장은 모든 배들이 도착하기

를 기다렸다가 올리는 것이 관례다. 광흥창 하급 관리의 말을 들으니, “호조판서 김병기¹²³ 대감이 지금 휘경원^{徽慶園}의 천봉소^{遷奉所}¹²⁴에 있습니다. 휘경원의 구묘^{舊墓}는 옛그제 파묘하였고, 새 원소^{園所}에서의 하현궁^{下玄宮}¹²⁵은 8일에 있을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경창^{京倉}에서 관록^{官祿}과 군료^{軍料}를 나누어 주는 일이 하루가 급하니, 도박장을 보게 되면 내일 당연히 한양으로 돌아올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그래서 도사공을 광흥창의 관리에게 보내, 배 1척이 도착하지 않았지만 지금 도박장을 호조와 광흥창, 선혜청에 올리면 어떠한지 의논하게 하였다. 또한 전라감영에도 도박장을 보냈다. 다시 사람을 보내 천자선의 형세를 탐문하게 하니, 실었던 곡물은 이미 여러 종선을 이용하여 반 정도를 내렸다고 하고, 들어오는 조수에 떠 오르면 도착하는 일에 걱정이 없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오후에 배에서 내려 보교^{步輦}를 타고 한양으로 들어갔다. 한양에 들어가면 당연히 즉시 입래숙배^{入來肅拜}¹²⁶를 위해 예궐^{詣闕}해야 하지만, 영운관의 입래숙배는 호조판서의 점검 후에 며칠 내에 하는 것이 관례다. 호조판서가 광흥창에 미리 훈유^{訓諭}하기를 영운관의 숙배는 호조판서가 돌아오기를 기다렸다가 하라고 하였다. 나는 바로 상동^{尙洞}¹²⁷의 조가^{趙家}¹²⁸ 사위집으로 가서 머물렀다. 둘째 아이와 김정식이 따라와 머물렀다.

初二日 早霧 日出後漸捲 巳時初潮入 至八分復進發 出項掛在三船 亦得潮而浮 過楊花津 抵泊于西江點檢所 前惟天字 白字兩賃船在 後掛沙急送諸從船 卸下載穀之半白字船得浮而追至 天字船掛稍高 處 潮已始落 不得浮故未到 遣人看審 則掛在平沙 來日朝潮 乃可浮起 到泊狀待諸船齊到後 呈納例也 聞廣興倉下隸言 戶判金台炳冀 方在 徽慶園遷奉所 徽慶園破舊在昨日 新 園所下玄宮 在初八日故 也 京倉官祿軍料頒放 一日爲急戶判若見到泊狀 來日當入京云 故 都沙工往議于廣興倉吏 雖一船未到 卽呈到泊狀於戶曹 廣興倉 宣

123. 1818~1875. 할아버지는 김조순(金祖淳)이고, 아버지는 김영근(金泳根)이며, 김좌근(金左根)에게 입양되었다. 1860년 윤 3월 15일에 호조판서에 임명되었다.

124. 휘경원은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에 있는 정조(正祖)의 후궁 수빈 박씨(綏嬪朴氏)의 무덤이다. 수빈 박씨는 순조(純祖)를 낳았으며, 순조 22년(1822)에 죽어 휘경원에 묻혔다. 1863년에 풍수지리상의 이유로 지금의 자리에 옮겼는데, ‘천봉’은 왕실의 묘를 이장하는 일을 말한다.

125. 왕실의 관을 무덤에 내리는 일을 말한다.

126. ‘입래(入來)’는 서울을 떠났던 관원이 다시 돌아와서 임금에게 아뢰는 일을 말하며, ‘숙배(肅拜)’는 관원이 궁정에서 감사의 뜻으로 국왕에게 절하던 의식을 말한다.

127. 서울시 중구 남창동, 북창동, 남대문로 3가, 태평로 2가에 걸쳐 있던 마을로 조선 명종 때 영의정을 지낸 상진(尙震)이 살았으므로 상정승골이라 하고, 한자로 상동(尙洞)이라고 표현한 데서 유래되었다.(서울지명사전)

128. 큰딸의 남편이 조희일(趙熙一, 1838~?)이었다. 본관은 풍양(豐壤). 자는 순유(舜惟)이고, 아버지는 조규년(趙奎年)이다. 『을해조행록』을 기록한 조희백(趙熙百, 1825~1900)의 동생이다.

惠廳 又送呈巡營 更遣人探天字船形止 所載穀已以諸從船卸下過
半 來潮浮到可保無慮 故午後下船 乘步輦入京 既入京 當即詣 闕
爲入來肅拜 而差員爲入來肅拜 則戶判點檢例不得過日 故戶判預
諭廣興倉 差員肅拜使之待其還爲之 余乃直向尙洞趙婿家留住 仲
兒與稚恒隨住

5월 3일. 종 한 명을 서강으로 달려가게 하여 천자선을 다시 탐
문하게 하였다. 오전에 조수가 들어올 때 이미 배가 떠올라 뒤따라
모였다고 하였다. 이리하여 12척이 모두 도착하였다. 어제 선상에
서 아래와 같이 시를 지었다.

조운선을 이끌고 세곡 수송을 마친 것을 고하니	領船輸漕告竣役
겹겹 바다 긴 항로에 몸을 보전할 수 있었구나	疊海長程得自持
이 일을 딸과 사위에게 전하고	此事爲傳阿女壻
또 편지를 써서 관아의 아이에게 알렸네	馳書又報在衙兒

오후에 모든 사공이 와서 알현하기에 모두 즉시 선소로 돌아가라
고 명령하였다. 도박장은 지난밤에 원소_{圖所}에 보내 호조판서에게
올리게 하였다. 호조판서가 오늘 한양에 들어오지 못하여 점점이
늦어져 8일 이후에 가능할 듯하다. 모든 배들이 여러 날을 머물러
야 하는데 하늘에 비가 많이 올 듯하다. 상류에 물이 불어 물살이
급하고 거세면, 배가 머물 수 없어 하류나 포구 부근으로 도로 옮
겨가야 한다. 사공 무리가 이것을 걱정한다고 하였다. 법성창_{法聖倉}
의 배들도 이날 모두 도착하여 도박장을 올렸다고 한다. 함열 관아
의 앓고 있는 식구들이 모두 낫지 않아서, 김정식을 권유하여 보내
약으로 치료하게 하였다.

初三日 馳一隸於西江 更探天字船事 午前潮入時 已浮起追會 於是

十二船皆齊到矣 昨日在船上有時曰

領船輸漕告竣役 疊海長程得自持 此事爲傳阿女婿 馳書又報在衙兒
午後諸沙工來現 故飭以卽還船所 到泊狀昨夜抵 園所 呈納于戶判
而戶判今日不得入京 點檢遲退 初八日以後 乃可爲之 諸船將淹留
多日 天且有雨意多注 而上流漲 則水勢急勁 船不可住 勢將還移于
下流或邊浦 沙工輩以是爲慮 聞法聖倉船亦是日齊到 呈到泊狀 衙
中諸病皆未瘳 權送稚恒爲藥治之道

5월 8일. 가랑비가 내렸다. 호조판서가 휘경원 천봉소에서 돌아왔다.
나는 신시가 지나서 숙배를 올리기 위해 예궐했다. 시복¹²⁹을 입
고 대전¹³⁰에만 숙배했다. 법성포 첨사도 와서 함께 숙배례를 올
렸다. 법성진 첨사¹³¹가 말하기를 호조와 선혜청에 들러 사례
하는 것이 전례인데 어쩔 수 없이 오늘을 넘겨야 할 듯하다고 하였
다. 내가 여러 사람에게 물으니, 저리¹³²가 말하기를 “성당창은 군산
창, 법성창과는 달라서 호조판서가 점검할 때에 공장¹³³을 올리면
한번 볼 뿐입니다. 선혜청의 당상은 혹 만나기도 하고 만나지 않기도
합니다. 시원임대신¹³⁴과 이조¹³⁵의 세 당상¹³²은 점
검 후에 하직 명함지¹³³로 어느 날이건 사례하면 됩니다.”라
고 하였다. 돌아가는 길에 영의정이신 회동¹³⁴의 정합장¹³⁵에
게 인사드렸다.

初八日 微雨 戶判自 園所還 余以申後詣 闕 爲入來肅拜 以時服 只
行於 大殿 法聖僉使亦入來 同爲行禮 法聖僉使言 戶惠堂歷辭例 不
得踰當日云 余問諸代邸里 曰 聖堂則與群山 法聖有異 戶判則點檢
時 呈公狀一見而已 惠堂或見或不見 時原任大臣及吏曹三堂上 點
檢後 以下直名啣紙 無論某日歷辭云 歸路拜領相 會洞鄭閣丈

- 129. 문무백관이 입시(入侍)할 때나 공무(公務)를 볼 때 입던 옷으로, 단령(團領)에 사모(紗帽)를 쓰고 목화(木靴)를 신었다.
- 130. 국왕이 기거하던 건물로, 국왕을 뜻한다.
- 131. ‘시임(時任)’은 현직(現職), ‘원임(原任)’은 전직(前職) 대신을 말한다.
- 132. 이조의 세 당상은 판서(判書), 참판(參判), 참의(參議)를 말한다.
- 133. 하직 인사를 위해 관직과 이름을 적은 종이를 말한다.
- 134. 서울시 중구 회현동 1가, 회현동 2가, 총무로 1가, 남대문로 3가에 걸쳐 있던 마을로 조선 중종 때 학자 정광필(鄭光弼)을 비롯한 어진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살았던 데서 회현동이라 하고, 이를 줄여 부른 데서 유래되었다.(서울지명사전)
- 135. 이때 영의정은 정원용(鄭元容, 1783~1873)이었다. 1848년에 이미 영의정에 올랐으며, 1862년에 임술민란이 일어나자 노령임에도 불구하고 삼정이정청(三政廳正廳)의 총재관(總裁官)이 되어 다시 정계에 나섰다.

5월 9일. 가랑비가 내렸다. 아침에 점검한다는 명령이 있어, 나는 동이 트기 전에 서강 점검소로 나가 호조판서가 와서 개좌하기를 기다렸다. 공장公狀을 올리고 들어가니 법성진 첨사도 함께 들어왔다. 호조판서가 성당창의 선기船記를 들고, 만자선과 백자선 아래에 X자형 표기를 하였다. 또 그 아래에 ‘광흥창廣興倉’ 석자를 각각 썼다. 광흥창의 관원이 만자선과 백자선 위로 가서 제비를 뽑아 쌀과 콩 각각 1섬石을 가져왔다. 아울러 상선에 실린 곡대斛俵를 가져다가 뜰로 들어왔다. 곡斛으로 계량한 후에 돌려주었다. 법성창도 똑같이 하였다. 호조의 아전이 성당창의 모든 사공을 뜰로 불러 들였다. 차례대로 계단 위로 올라 각각 통에서 제비를 뽑게 하였다. 최득수崔得壽는 별고別庫를 뽑았다. 서국현徐國賢과 박태우朴泰祐는 군자감軍資監을 뽑았다. 금남열琴南烈과 박태혁朴泰赫은 광흥창을 뽑았다. 안필재安弼在와 안태욱安泰郁, 정기은鄭基殷, 배권석裵權錫은 별영別營을 뽑았다. 별고는 모든 사공이 원하는 곳이었고, 별영은 모두 원하지 않는 곳이었다. 성당창과 법성창의 제비뽑기가 끝나자 나와 법성진 첨사는 사례하고 나왔다. 별영, 별고, 군자감은 모두 용산龍山 부근에 있어 안필재, 서국현, 최득수 등의 배 7척은 곧바로 용산으로 올라가라고 명령하였다. 광흥창으로 빨리 들어가야 하는 배는 점검소 부근에 있었기에 금남열과 박태혁의 배 2척은 서강에 그대로 머물렀다. 전종환, 윤자중, 양종하의 배 3척은 모두 대동미여서 선혜청에 납부해야 했기 때문에 추첨이 없었다. 선혜청은 용산에서 가까워 모두 용산에 옮겨서 정박하게 하였다. 호조판서는 점검을 마친 후에 도성으로 들어가고 나는 상동으로 돌아왔다. 오후에 시임과 원임 삼대신三大臣¹³⁶⁾과 이조의 세 당상을 뵈고 사례하였다. 그리고 전라도 구관당상句管堂上¹³⁷⁾에게도 들러 사례하려 하였는데, 호조판서가 겸직하고 있었기 때문에 따로 찾아뵈지 않았다. 심암心菴 조상趙相¹³⁸⁾에게 죽도에서의 일을 말씀드렸더니, 말씀하시기를 “세곡을 실은 배 한 척이 치패되었는데 온전히 일을 마쳤으니 참으로 다행

136. 의정부에서 국가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일을 맡아보던 세 벼슬로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을 말한다.

137. 비변사에 속하여 각 도의 군무(軍務)를 맡아보던 벼슬로 여기에서는 전라도를 담당하던 당상관을 말한다.

138. 조두순(趙斗淳, 1796~1870). 이때 이미 좌의정(左議政)을 지냈기 때문에 조상(趙相)이라 하였다.

이다. 군산창의 배도 모두 무사히 염창항 밖에 도착했다고 들었다. 올해 호남 삼창의 세곡선은 하나도 탈이 없다. 이는 거의 처음 있는 일이다.”라고 하셨다. 또 말하기를 “서천군수는 우리 집안의 사람이다. 조운선이 죽도의 암탄에 걸렸을 때, 치패가 발생하면 지방관이 죄를 입고 파직될 것을 염려하여 급하게 달려와 아뢰었다. 내가 웃으며 답하기를 지나친 걱정이라고 하였다. 서천군수가 파직을 두려워하여, 상부에 알려야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허물을 드러내었다.”라고 하였다. 날이 저물어 상동으로 돌아왔다.

初九日 微雨 點檢以平明出令 余以開東前 出西江點檢所 待戶判出來開坐 呈公狀入見 法聖僉使亦同入 戶判取聖堂倉船記 劃作又字形於萬字 白字兩船下 又其下各書廣興倉三字 廣興倉官員往萬字白字兩船上 抽牲米太各一石以來 并上船所在斛倍 封入于庭 斛量後還出給 法聖亦如之 戶曹吏招聖堂諸沙工入庭使以次陞階 各抽筒籤 崔得壽得別庫 徐國賢 朴泰祐得軍資監 琴南烈 朴泰赫得廣興倉 安弼在 安泰郁 鄭基殷 裴權錫得別營 蓋別庫沙工所願也 別營不願者也 聖堂 法聖抽籤畢 余與法聖僉使辭出別營 別庫 軍資監皆在龍山之近 故安弼在 徐國賢 崔得壽等七船并令當刻移上于龍山 卽速解入廣興倉 在點檢所之近 故琴南烈 朴泰赫二船 仍在西江 全宗煥 尹滋中梁宗厦三船 皆大同也 當納于惠廳 故無抽籤 惠廳近江卽龍山 故亦皆移繫于龍山江 戶判視事畢 入城 余亦還尙洞 午後歷辭時(追記)原任三大臣及吏曹三堂上 本道句管堂上亦當歷辭 而戶判兼帶 故不別見 心菴趙相語及竹島事 曰 稅船一隻幾敗得完甚幸也 聞群山倉船亦皆無事到鹽倉項外 今年湖南三漕倉稅船無一臭載 此殆勦有 又曰 舒川倅吾家兒也 船掛竹島灘時謂是致敗 以地方官罪罷爲慮 走急足報來 余笑而答之曰 是過慮也 蓋舒倅恟於罪罷 不知蔬以爲計 致出瘡疣也 日暮還尙洞

139. 서울시 중구 정동으로, 조선 태조의 계비 신덕왕후 정릉이 현재의 정동 4번지에 있었던 것을 정릉동이라 하였고, 이를 줄여 정동이라 한 데서 유래되었다.(서울지명사전)

5월 10일. 오후에 비가 계속 내렸다. 둘째 딸과 만나려고 정동¹³⁹⁾의 딸네 집으로 가서 머물렀다.

初十日 午後雨連下 爲與次女會面 移次貞第

5월 11일. 비가 계속 내렸다. 모든 사공들에게 빨리 곡물을 옮겨 며칠 내로 납부를 마치라고 전령을 보냈다.

十一日 雨連住¹⁴⁰⁾ 傳令諸沙工 使之速運穀物爲趁 不多日畢納之道

5월 12일. 오전 늦게부터 비가 많이 내려 밤까지 그치지 않고 천둥소리가 났다. 장마가 지려고 한다. 세곡을 납부하는 일이 늦어질까 걱정되었다. 6일에 떠난 함열의 문안사가 와서 아이들의 편지를 보니, 큰아이의 병은 나아가고 있고, 큰딸과 둘째 며느리와 젓먹이 손자는 모두 나왔다고 한다. 참으로 다행이다.

十二日 晚雨大注 至夜不止 雷聲作 有成霖意 稅納將遲退 可慮 邑問安使初六日發者至 見兒書 長兒病証向快 長女仲婦乳孫所苦皆差 可甚幸

5월 13일. 비가 계속 내렸다. 5월 14, 15, 16일에는 간혹 맑은 하늘이 보였으나, 17, 18일에는 비가 많이 내렸다. 강물이 크게 불었는데 근래에 처음 있는 일이다. 전종환의 배는 아직 곡물을 실은 채로 있고, 배권석의 배는 겨우 반을 내렸다. 모두 거센 파도에 밀려 하류로 내려가다 걸렸기 때문이다. 전종환의 배는 우관이 부서져서 거의 파손될 뻔하였다. 모든 사공이 힘을 합해 곡물을 내려 무사했다. 배권석의 배는 물결이 거세어 이동하지 못하고 걸린 곳에 머물렀다.

140. 注의 誤

十三日 雨連注 十四五六日 間或見青天 至十七八日 雨大注 江水大漲 殆近年 朞有 全宗煥船尙載穀 褻權錫船纔半卸 皆爲勁波所逐 走掛下流 全宗煥船隅板觸傷 幾乎致敗 諸沙工并力下穀 得以無事 褻權錫船水勢勁 不可移動 因住在掛處

5월 19일, 20일, 21일, 22일, 23일. 비가 점점 그치고 간간이 잠깐 맑았다.

十九日二十日二十一日二十二日二十三日 雨勢漸間間乍晴

5월 24일, 25일, 26일. 비가 내리지 않았다. 강물이 불어 점차 물러나 배권석의 배를 강가에 옮겨 정박하고 쌀과 콩을 날랐다. 그 밖의 여러 배는 스스로 점검한 후에, 간간이 일기를 보아 곡물을 날라 각각의 창고에 들였다.

二十四日二十五日二十六日 不雨 江漲漸退 褻權錫船 移泊近岸卸運米太 其餘諸船 自點檢後 間間乘晴運穀 入各倉

5월 25일. 외사창外四倉에 납부를 마쳤다.

二十五日 外四倉畢納

5월 26일. 선혜청에 납부를 마쳤는데 모두 흠축이 없었다. 나머지 곡물은 모두 도사공과 궁납사공宮納沙工에게 취합하게 명령하고, 각 궁방에 나누어 납부하게 하였다. 전세와 대동은 이미 납부를 마쳤으나 자문尺文¹⁴¹⁾을 받지 못하고 나는 관아로 돌아가야만 했다. 마침 이때 전라도관찰사가 바뀌어, 신임 관찰사가 조정에 사은하는 일이 멀지 않았다.¹⁴²⁾ 전라도의 수령들이 갑자기 먼저 하직하는 것은

141. 영수증을 말한다.

142. 5월 15일에 전라도관찰사를 정헌교(鄭獻教)에서 홍우길(洪祐吉)로 교체한다는 명이 내려왔다. 홍우길은 병을 이유로 나아가지 않았고, 6월 20일에 다시 정건조(鄭健朝)가 전라도관찰사에 임명되었다.

불가하므로 나란히 왕래해야만 했다. 다음날 하직하고 속히 관아로 돌아가라는 말을 들었다.

二十六日 惠廳畢納 皆無欠縮 餘穀并令聚合于都沙工及宮納沙工處 使之分納于各宮房 稅大同既畢納 尺文雖未及出 余當還衙 而時巡使遞易 新使辭朝 姑遠 本道守令(直)不可遽線下直 故聯臂往復 得明日下午直 斯速還官之語

5월 27일. 새벽에 궐에 들어가 하직하고, 둘째 아이와 함께 길을 나섰다. 올해는 나의 회갑回甲이 되는데, 옛날 나를 낳으시고 기르시던 은덕과 정다웠던 일들을 생각하니 한없이 슬펐다. 길을 돌려 시포市浦¹⁴³⁾에 가서 선산을 참배하고 술과 과일, 포脯와 혜醢를 차려 차례茶禮를 지냈다. 또 안곡安谷¹⁴⁴⁾과 사천沙川¹⁴⁵⁾의 두 산소에 들러 참배하였다. 처음에는 진천鎭川¹⁴⁶⁾과 양지陽智의 두 산소에도 성묘하려 하였으나, 물이 많아 참배하지 못하였고 병이 심해져서 이를 수 없었다.

143. 충남 아산시 둔포면 시포리로, 아버지 임영철(林穎喆)의 묘가 있다.

144. 충남 논산시 연산면으로, 고조부 임세집(林世諶)의 묘가 있다.

145. 충남 논산시 연무읍 안심리로, 증조부 임상원(林象元)의 묘가 있다.

146. 충북 진천군 이월면 월촌리로, 할아버지 임연호(林淵浩)의 묘가 있다.

二十七日 曉詣闕下直 卽與仲兒起程 今年是吾回甲 念昔生我鞠我之德 情事罔極 轉進市浦 親山省掃 以酒果脯醢行茶禮 又歷入安谷沙川兩楸 榮掃始擬 兼省鎭川陽智兩楸 以潦水未收 疹疾方熾 未果

6월 2일. 낮에 함열 관아에 도착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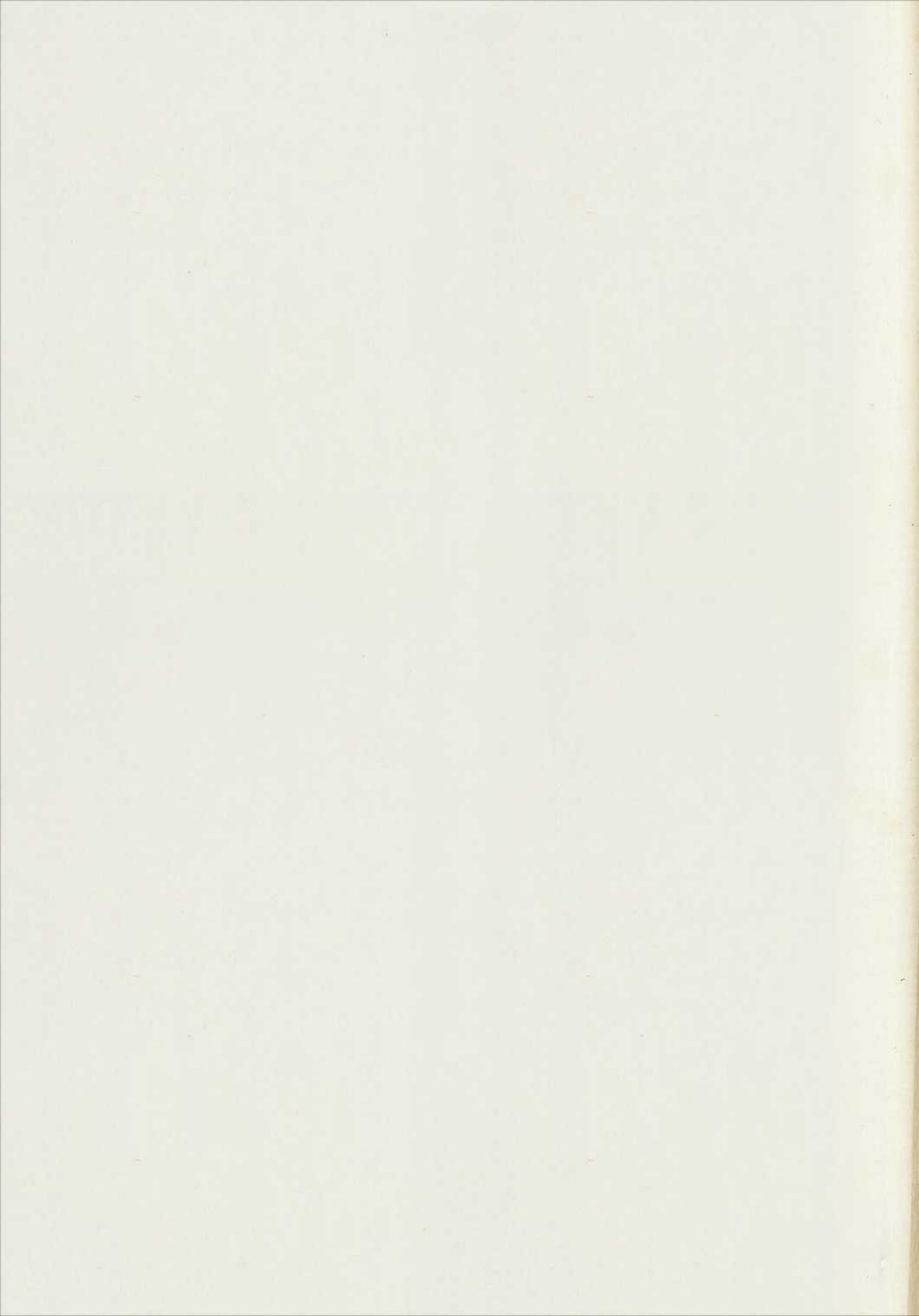
六月初二日 午抵衙



漕行日錄 影印

조행일록 영인

조행일록 영인 부분은 원문을 그대로 반영하기 위해
우철(오른쪽 묶음)을 하여, 이 책의 마지막부터 시작됩니다.



聚合于都沙工及宮納沙工處使之分納于各宮房稅大
同既畢納尺文雖未及出余當還衙而時巡使適易新
使辭朝姑遠本道守自不可還先下直故聃臂往復得
明日下直斯速還官之語二十七日曉詣 闕下直即與仲
兒起程今年日死吾回甲念廿日生我鞠我之德情事因極
轉進市浦親山省掃以酒果脯醢行茶禮又歷入安谷
沙川西楸榮掃始擬兼省鎮川陽智西楸以潦水未收珍
疾方熾未果六月初二日午抵衙

仲歸乳孫所苦比日差可甚幸

十三日雨連往十四五六日間或見青天至十七八日雨大注江水大漲殆近年初有人全宗瘦船尚載穀裝權錫船緣半卸皆為勁波所逐走掛下流全宗瘦船隅板觸傷幾乎致敗諸沙工并力下穀得以無事裝權錫船水勢勁不可移動因住在掛處十九日二十日二十一日二十二日二十三日雨勢漸間之乍晴

二十四日二十五日二十六日不雨江漲漸退裝權錫船移泊近岸卸運米太其餘諸船自點檢後間之乘晴運穀入各倉二十五日外四倉畢納二十六日惠廳畢納比日無欠縮餘穀并令

倉船亦皆無事到藍倉項外今年湖南三漕倉稅船無一
自大載此殆荆有又曰舒川倅五日家兒也船掛竹島灘時
謂是致敗以地方官罪罷為慮走息足報來余笑而答
之曰是過慮也蓋舒倅恟於罪罷不知所以為計致出瘡
疣也日暮還尚洞

初十日午後雨連下為與次女會面移次貞弟

十一日雨連住傳令諸沙工使之速運穀物為趁不多日畢納
之道

十一日晚雨大注至夜不止雷聲作有成霖立息稅納將遲退可
問邑問安使初六日發者至見兒書長兜痘証而快長女

郁鄭其基殷裴權錫得別營蓋別庫沙工所願也別營不
願者也聖堂法聖抽籤畢人余與法聖人使辭出別營別
庫軍資監皆在龍山之近故安弼在徐國賢在得壽可等
七船并令當刻移上于龍山即速解入廣興倉在點檢
所之近故琴南烈朴泰赫二船仍在西江全宗煖尹滋中
梁宗厦三船皆大同也當納于惠廳故無抽籤惠廳近
江即龍山故亦比皆移繫于龍山江戶判視事畢入城余
亦還尚洞午後歷辭^時原任三大臣及吏曹三堂上本道
勾管堂上亦當歷辭而戶判兼世甲故不別見心菴趙
相語及竹島事曰稅船一隻幾幾敗得完甚幸也聞羣山

堂上點檢後以下直名啣紙無論某日歷辭云歸路拜
領相會洞鄭閣文

初九日微雨點檢以平明出令余以開東前出西江點檢
所待戶判出來開坐呈王公狀入見法聖令使亦同入戶
判取聖堂倉船記劃作乂字形於萬字白字兩船下又
其下各書白廣興倉三字廣興倉官負往萬字白字兩
船上抽柱米太各一石以來并上船所存斛中封入于庭斛
量後還出給法聖亦如之戶曹吏招聖堂諸沙工入庭
使以次陞階各抽筒籤崔得壽得別庫徐國賢朴泰
祐得軍資監琴南烈朴泰赫得廣興倉安弼在安泰

京點檢遲退初八日以後乃可為之諸船將淹留多日天
且有雨意雨多入注而上流漲則水勢急勁船不可住勢
將還移于下流或邊浦沙工此事以是為慮聞法聖倉船
亦是是日齊到呈到泊狀衙中諸之病皆未瘳勸送稚恒為
藥治之道

服

初八日微雨戶判自園町還余以申後詣關為入來甫
拜以時輒只行於大殿法聖人靈使亦入來同為行禮
法聖人靈使之言戶由忠堂歷辭例不得踰當日云余問諸
代郎吏曰聖堂則與羣山法聖有異戶判則點檢時呈
公狀一見而已忠堂或見或不見時原任大臣及吏曹三

下過半來潮浮到可保無慮故午後下船乘步輦入京既入
京當即詣闕為入來甫拜而差負為入來甫拜則戶
判點檢例不得過日故戶判預諭廣興倉差負甫拜使之
待其還為之余乃直向尚洞趙婿家留住仲兒與稚恒隨
住

初二日馳一隸於西江更探天字船事午前潮入時已浮起
追會於是十二船比自齊到矣昨日在船上自詩曰領船
輸漕告竣役置海長程得自持此事為傳何女婚馳
書又報在衙兒午後諸沙工未現故飭以即還船所到
泊狀昨夜抵園所呈納于戶判而戶判今日不得入

掛在三船亦得潮而浮過楊花津抵泊于西江點檢所前惟
天字白字兩貨船在後掛沙急送諸從船卸下載穀之半
白字船得浮而退至天字船掛稍高處潮已始落不得浮
故未到遣人看審則掛在平沙來日朝潮乃可浮起到泊狀
待諸船齊到後呈納例也聞廣興倉名下隸言戶判金台相
冀方在 徽慶園迂奉所 徽慶園破舊在昨日新 園
野下玄宮在初八日故也京倉官祿軍料頒放一日為急
戶判若見到泊狀來日當入京云故都沙工往議于廣興
倉吏雖一船未到即呈到泊狀於戶曹廣興倉官惠廳又
送呈巡營更遣人探天字船形止所載穀已以諸從船卸

初一日清朗潮入而西南風微吹辰時未進發左過高陽地右
過陽川縣治外踰陽川項將入鹽倉項上船及駒字船掛
於水中堆沙解碇復收厘得浮起移下於水深處前去河泉
宗厦尹滋中鄭其基殿所掌船亦至出項掛沙并不得前
進皆止於在處過夜午者京郎吏及邑問安使來現得衙
中書信仲兒為相見去念三日自衙中發念七日入京聞
吾行近京自西江乘船而來經涉危地父子相面喜不可
言法聖倉漕船後我幾一朔發而適遇二十五日以後三日
南風得以越海來泊於通浦遙望眾帆列立

初二日早霧日出後漸捲巳時初潮入至八分復進發出項

護送監色來現左比自高陽地日暮至杏洲住碇杏洲亦高
陽地厨院捉魚所也翠巒橫張其下多人戶夜有雷聲
南風作雨微灑宿船上

二十九日早雨陰晚朝雨下諸船具蓋裝欲趁是日以至西江
到泊狀舉帆擬進高陽之川指路沙工言陽川項水厓至捩
待明日潮添至可越遂復落帆雨至夜止午即廣興人君
使令二名來到示戶曹吏私通於廣興人君者以為聖堂
倉漕船來在項下多發使令以送使之今日內到泊云而
前項水淺雨又恐沾穀明再明間可以抵泊西江陪吏以此
意非捧甘付送宿船上

二十八日曉天氣清南風微吹飭諸般厚食開東潮入至六

以行多此序

分乃舉帆天明進發左過蟠石白巖西里交河界盡於此

以上高陽地也護送吏來現右過折柳浦界里於此護送吏

校受過去狀而去又過金浦 章陵前玄巖里其東有

島嶼在江中一拳山也轉而由玄巖島嶼之東而行漕卒

輩之言玄巖殿前可住旋云至通浦潮盡因遂停帆是高陽

地也左右沙堤長挾左堤上低巖下有村三角山在正

東入聖申末待潮至七分復舉帆進行踰石洞頂水中有

沙堤鄭基殷所掌船誤入而掛須臾潮添至船自浮右過

金浦終界護送監色受過去狀而去金浦界上陽川地也

江左諸邑無護送吏校可恠午際曝暑如盛夏東風激波晚
亦不息余為諸船憂稍工輩曰江異於海不足為憂至晡
忽復雲陰有雨意飭諸船預備雨衣夜繼雨宿上船

二十五日朝東南風又吹少頃雨下風與雨皆乍作乍止以終
日夜雨連下并晝一夜可一移晷許日半餘可喜宿船上交荷護
送吏朝始來現

二十六日自曉風息水亦無波日早朝雲陰解駁絡日清明至午
潮入時舉帆欲進行南風忽大作未果夜風息宿船上

二十七日早復雲陰有雨意日出後漸開明午時潮入諸船
舉帆將進南風忽又大吹不得行夕風息夜宿船上

於戶雷日戶題如此可幸夕雲陰有雨意夜復開明

二十四日朝有駁雲自朝海門下乘小艇往登上船辰時早潮

半入遂舉帆而進由松堤長島之間而入向東而行多曲折

處各處小船幾隻列于左右以防草嶼石灘為護送過康津浦

通津大村也過祖江亦通津地左挾松都豐德界山至交河

長陵前右則過時巖里至後坪里浦而住碇時巖後坪

亦皆通津地自入此江惟西風為利而舉帆以後南風吹又忽

為東南風波濤漸起潮勢雖得順波濤之中東風不可逆

往故止日未午行四五十里矣自此去幸州三十里西江七十

里三角山在北屹然入望發行近三旬始得到此甚支離矣

上江水圍抱俄音船上所見諸山皆在前儘名榭也又登朝海樓
樓在鎮軒之左迫臨江水是外城東門樓也門內外人家可為
七十戶日將斜復乘藍輿就鎮下村家而住向在砂島時以
萬字船事報錦營戶曹由忠廳回題比皆來錦題以准十卸無
沉濕為幸又以三百五十六石播載為法外責以疎忽五口未
嘗以三百五十六石播載為報此徒憑舒川倅報也可笑由忠
題以為領運不善事當論勘以穀物得免水沉船隻不至
甚破安徐云雖或全船致敗本無論勘之例而今乃有此題
其必有由也戶題以為此非但萬幸也毋論播載各船又或
專船或分幾船裝載速到為上策從長善處云稅納專關

高山堞有四門二門無樓二門有樓其一臨水而開內有館舍
倉庫人家可四五十與江卒城門隔水相對此文殊鎮也
七曲水面稍濶堤堞長繞堤腰有朝海樓及月串鎮未及月
串鎮而下碇日未午矣江北有高峰巨壑層疊羅列間
之長湍曲豈德松都三邑山也松嶽最大而遠江水繞而西
通于~~四~~都海西之界間漢江~~因~~^出處稍工指東北間松堤
曰從此堤後而出堤之北長崗是島也今船行將由松堤
長島之間而進堤邊水淺島邊水深故船必附島邊而
行午飯訖乘小舟下陸以籃輿入月串鎮衙令使因事
而出登軒少憩因步往營尾亭，在鎮軒東北高阜

軍器庫皆為備禦地也但城堞不盈一丈顧夷久矣而不為
之修可歎江水有深處有淺處漕卒以量海繩試之淺處
厘二丈潮退則當不滿一丈量海繩以堅絲為索末懸鐵
鑊投水中以量淺深者也行曲左有小寺在曲阜上問寺名無
知者到水濶處忽有一毛物瞥躍出水上復沒者三其躍
也頭背露見毛赤黃色其形如狗而小且狹余疑為海
狗而問之曰天俗呼上二廣伊者也即海中猪屬肉不可食
取膏作燈用云至六曲崗阜稍大人家最多問之甲申
鎮也其下有城門譙樓映波大小船四五隻繫在其下則
江萃赴京之路也門內有寺剎江右通津地有短堞倚

申末始入日無餘力不得進發宿船上始欲投島村聞村家
不淨未果

二十三日天有駁雲而日光則明北風吹辰時早潮幾半入飭
諸船舉帆收旋向北而進左右群嶂之下長堤平崗林木
列翠人家坊壑皆奔臨水聯連右州通津地左州江萃地皆變

鎮在長堤頭墩阜上其北又有一墩阜較大上有新堞堞江

萃外城也至孫石頂漢陽水口兩山交脊不知有出處及入其口方見水通

又不知出處復曲比自然險天為之設險也始入一曲有

江萃外城東門呈四濫水以去一行外城而內外樹木夾持翠
影倒水每一曲轉處高阜上輒設小圓堞圓堞內輒置

船亦退至十二船齊會列繫於黃山下投諸沙工使預備船裝待
入時即踰孫石頂諸沙工曰晚潮申時當入至申末可踰
如羊腸之曲內外水力勁船行遲恐或值暮暮觀潮
方若未可發則當待明朝進行富平護送校晚至
似過境後始來現大護送官濟物萬戶例待於豐
永宗始末永宗吏校及濟物隨陪并提入巡殿責其怨
以江路左右排船指道事申飭於濟物隨陪仁川富
三邑鎮吏校比自受過去狀而去通津府首鄉吏校為
來現江華府護送吏校不來問之使各鎮舉行云月津
令使送吏房騰勅令記而去蓋有點檢例如元山也晚潮

大關島松山永宗鎮之間是江出處謂之水次項路由而入其內江

之大幾如海有鷹島席島及小諸島方入也見一大山竝立於

永宗鎮北間之江萃摩尼山也又見鷹島下有六船數隻又落

帆而往問仁川護校是十九日先去船也俄而先去船沙工二名來

詢問船事果無事進程十九日得抵永宗於是憂慮快釋矣問

鷹島所住船幾隻曰二隻也三隻已往在黃山黃山通津島名

過永宗五十里地在孫石項下孫石項右是通津地左是江萃地

濼險水淺非潮入時不可越故此島為船行待潮處也俄而黃山住三船沙工亦未現乃并投入先

去五船沙工責其擅自分難之罪以船得無事時怒棍治遂

進向黃山江左皆江萃地右先富平地後通津地鷹島所住二

其東西皆船路西則水稍動東則有微灘潮出入時可行未時晚潮入而忽無風船行遲出餘興子午兩島之間斜迤向北之挨東處抵八山而出其東日已暮矣永宗及大關島只隔一旣水入曠而不得進大關島以島中嘗有行宮故名駐帆中洋而宿二三日鷄三鳴月高波明東南風吹順風也於是向大關島岑而進自南之挨西處斜截流而行海右是仁川地仁川護送校來現少頃天明過大關島南之國有江自仁川地出江之南屬仁川北屬永宗至永宗鎮前於是海盡而為江之漢陽松都兩江未會而出初國也永宗鎮衙在江海之交平崗上臨水向東而設紅箭前門若可懸水平崗斷而向東復起為一低巖松樹叢被名曰松山屬富平松屬永宗松山之東即

也右則諸山重疊長袤可百里有竹箒先濟兩島在其間亦皆南陽
牧場也前有餘興島一名松島長袤數十里亦南陽牧場諸帆直向而
進其東有一小島巒形如弁名曰弁島船由其間而出為捷徑但有石
灘故不忙急則避之其西即子午島子午島有大小與餘興相對為壘
無灘險故船皆由此而行之餘興之西諸船下碇時早潮退南風變為
西北風而微吹晚潮入時得其順勢可以進行故留待也南陽護送
校始到責其晚付書主倅囑以後來諸舍漕船嚴飭並護主
倅族侄翰洙也午時復收碇前進出餘興島口向八山晚潮將
入西風適至^皆利於行^策餘興島口外海亦圓濶有一密突立
於中此八山也近有如此山者八故名云鯪魚產於此漁艇多聚

而水則無波

二十一日曉南風吹起不急不徐適可行船平明早潮半入七船舉帆
兩進將近六島唐津護送吏受過去杖辭去過六島東見西近有
一小橫山山谷人家可為五六十間之水原豐也島發行二十五日始到折
界水原府護送軍校來謁問先去五船曰十九日護送至永宗水次
項而還又問其日風濤有無曰無矣其無事前進蓋可知也過豐
島前水原校受過去杖而去海水到此平圓波濤不興天清氣朗
適又四順風殆哉行後最好日也登屋上四方八望皆大島也左
則有升旺伊適兩島濶張而相接皆南陽地牧馬處也有德積鎮山
亦濶張較諸島稍遠是獨鎮也有子午島一名蘇湖亦南陽牧場

乍住候潮半入而更進為宜也從其議下人輩勸以往島村~~以~~過夜余嘗屢乘江船了無眩意近者在海乘小船則輒眩蓋海上小船底板狹不勝水力搖掉甚故也今島村稍遠欲往則當乘小船不如仍在大船以待發遂不往漕復監官推乃楚漢演義一卷來稚恒借看之為余道韓信九里山十面埋伏事仍語及兵器有一窩蜂者為最要余問一窩蜂是何許樣其制有知者否曰松都白岐鎮有才略自言曉其制蓋以鉛丸并斗之多納于一窩中用火放去雖全陣軍可以攻破其制神妙與造化參作之者必損福云余問白岐鎮年齒曰今為四十九或五十向聞等壘於松都長滿兩界之交葦莊山中未知間已移處否也夜宿船屋風勢至晚愈緊有聲耳聽

數十南有六島大小密斷而復起者六船行當過其東北水原地也六島外
有延興島遙入望南陽府大島也發行幾三旬始見畿內山可喜
此洋在四圍之內其圓如鏡其流晏如但南口有石灘船初八皆慎焉所
產惟細蛤居民採而作鹽來日進發早晚未定故夜宿船屋

二十日天晴月朗未坤風徐吹可以行船而或說前洋有游波賊餘也咨且
未發漕卒為汲水往島中摘碧州葉掌大者二斤海棠花數十朵而
未入海後始見花卉可愛且知夏令之行久矣船中人尚怕寒擁綿水陸
儘異候矣日將午有一船自北來過問此去水勢日無可直度聞此言知朝
者或說妄矣欲乘早潮退至七分水力稍柔雨時進發或者以為今乘潮
退而行固好矣若夕值潮復入則溯行為難待明日潮未盡入時發中路

行少頃到蘭芝島東日未入船路當由此島西洋直向延興島前以去而
為便於住碇乍透回入北洋北洋唐津地四方皆山圍有風不甚為憂波
勢亦頓安遂下碇是日經一危境餘賊在心今諸船得無事到穩處而
住甚幸在闕將項時先去六船中尹滋中所掌船獨留此島尹滋中入
現問船安否曰六船俱冒風濤無事到此五船前進而去似應
抵永宗渠則為候上船獨留憂係之餘聞之稍釋然也大
護送官所斤人僉使自其界前導為風濤所迫不得隨至瑞山
郡卒薪鎮護送吏比日不來待獨唐津縣吏來現立船上問四
方地界東有長山橫遮是唐津地南有烽山高屹其下泰安
郡之西北又有烽山其下卒薪鎮西是蘭芝地長而人戶塵

發作船為之左右傾撓人皆發眩船底過浪陣如屋與船相拍其聲
可怖宜即回船而勢不可為也所恃惟順風遂漸次前進諸船相與戒
慎所過歷曰皆項曰所斤鎮曰如一里曰管樂里曰方嶼曰民魚里皆
表安地護送吏受過去杖而去曰倉浦曰大山倉浦半屬瑞山郡
半屬平蘄鎮大山全屬平蘄獨鎮也諸島大小形狀余在
船屋中不出故未之見焉行至遠日亦已晡而風濤不息余操文禱海神
人鄙職所領十二船是 王家惟正之賦載輸也眾民所竭力京師
所待用惟神處在于茲亦 王土之神其宜易護亟定波濤俾獲利
涉因以祝紙投于水中俄頃波濤劇勢少減此豈神應耶抑適然耶
至民魚里前欲住碇過夜稍工北軍以為住碇不便宜向蘭芝島東洋行

上有數重山，下人戶近三十間之。此安興鎮舊其全也。以前有閘將
項項有石脉，其外水勢甚動。潮半退後可越，而進故住碇
于舊安興前洋以待之。時南風緊，水波生，船頗搖漾。問諸船
六船先已踰閘，將矣。得此風連進，則日內可抵永宗。然不待
潮退適值波生，相與分離。憂係多矣。午初早潮退，至七
分乃復舉帆而進。踰閘將項謂之項者，舊安興山脉方
盡而復起一峰，土尚骨立，仍落石脉。橫袤山斬，巖又有昇足
島兀立水中，其降形石脉如舊安興山相對拱峙，其間塵
七八十步，故名也。船由此出，每加慎焉。自此至永宗亦路向
北去也。至閘將項外水勢果甚動，加之南風愈緊，遊波

明如畫遂進船二行疾過島嶼，，小巒也如獅子橫卧其
近多淺水故飭諸船量水深而進又過安眠島島之裏入鏡海
頭到鏡海北向所云截水行處也中有甲有鏡島中特巒尖秀開
睜梢工言人民多居其下可暫時住碇云左有三島拳小
三巒分立故曰三島鏡島以南洪州地以北泰安地泰安護
送吏來待無納饌而生鯪魚屬由鏡島三島間而出過
安興鎮前界水諸山之下低山內抱而為鎮其山上松木
甚盡茂鎮有制勝樓無暇往登可歎大護送官馬梁僉使
隨至此而去又由假島厨端島兩間而出假島在左盡
濶張聞多民户厨端島在右此安興鎮山事五王處也厨端島

入告曰多日乾風連吹之餘今得東風雖不如南風之為順
亦可行船抵安興雖未及安興鏡海可抵余乘元山鎮護
送船登上船東風忽變為西南風船行纔過古堡島界稍
工告曰此處潮以兩歧行水勢稍動姑停纜待潮蓋退前進
為宜遂下碇少間西南風又變為西風又少間乍變為南風
忽復變為西風潮蓋退水勢稍柔遂復行少進又住碇待
晚潮半入復進風力既微欲乘潮勢而泛也因夕到島澳內
復止碇待早潮蓋終日行不出安眠島外仍宿船上

十九日子時早潮入東風乍起以占日候清和俄復為南風是積
日懸望者而今適得之連吹不止可謂天佑神助月色亦正

十七日連留古代士朝雲陰風勢比前如昨日近午西云陰開天氣
氣朗而風勢則無減夜深漸息波亦隨定每月海潮以
十五日生漸盛至十八日而極又以三十日生漸盛至初三日而
極今所住舍門前即潮到處故得以詳驗焉以今日觀之
早潮以子正始入至午明為准而漲痕比十五日以前始加二
丈許拍擊山崖山片其聲甚壯晚潮以午正始入至申末為准
而比早減一丈許潮之生一日之內又有朝多夕減之異此朝
陽夕陰之理耶

十八日日出後起寢見早潮至處較昨朝更加二尺許方且
始退矣時天氣清和東風徐來沙工與諸船漕卒議行事

挿生木無不死者欲以試諸吾先山遮案之木又有一小魚
長廣皆徑一寸餘不見有口眼股脚五出而尖圓其體形
即☆也北目深碧色中有撒朱點腹朱黃色皮皆頑厚
而生粟公翁曰此魚人所不食也村童見之曰俗呼絲牌魚
至死乾形色不變夕復與稚恒出時月初出海色與月共
白遠近島嶼夕夕少漁火點二紅明亦可觀也

十六日連留吉望自再昨天氣清朗連三日如此殆發行後
初有然乾風不息鷄鳴時欲起潮發又未果午後雲陰
有雨意今明兩日為辰巳故耶夜乾風勢猛波濤為之
不定

落沙磧出仍步其上多見螺殼紅蛤殼余謂螺殼可作杯紅蛤殼
可作匙使知印拾取以歸顧語稚恒曰此五口海行所得人棄我
取何傷乎廉稚恒拾蛤殼片破水磨者將以為碁也箇之有
貝粒與人磨者異鋪枰可令人眩眼然形薄而竅皆不合用
里中一翁荷漁筮而過余問何魚翁開筮示之有石首魚
甚大北背鱗正黃如金光彩耀日有烏賊魚北背凝玄色有
烏致魚長而狹色如銀有加五里魚腹廣而有裙背赤而
玄尾細而長未至端別有尖骨附焉其長一寸許倍隸
孰尾而舉之公羽曰其尖骨善射人宜慎之稚恒謂其骨
有用處請於公羽之手授而予之余問用處稚恒曰此骨

工問行事曰自此進發當抵安興其間雖非如駕島元山之遠亦大海也宜十分慎此島之口水淺非潮時不可出前有鏡海橫流行當截水而去一畝須惟南風今日候雖好風適自乾方來不可進行姑留此島候得順風而後可動雖來曉潮入時有好風島口可出鏡海可截去當分令諸船漕卒蒞夜眠檢裝具以待

十五日連留古坐鷄鳴時潮方入而南風適至吏校及諸沙工皆以為可發時余方假寢以待之俄而南風止而乾風復起如昨日至晚不止竟又未發今日潮生時也趨抵塹倉水項可越而今無及矣安興為半程而亦尚未抵到京將不知在何日恐拖至晦潮始知海行不可定期為也朝餞訖與稚恒出門潮繞

有表○仲婦忽發頸右痛至慮成瘡長女有○病脚痛久不
快遠外慮念不可已也并問方於稚恒與卷書伴送日未暮問使
初十日發者又至得兒書曰子女婦之病比自無勝意其回付卷書
夜又追書同送戶曹直開也問使便來去月晦前出也以漕船
裝發狀過期不至促之裝發狀去月十六日在本倉署者給而該
吏不專人上送付之京邸吏之歸京邸吏人今月初始入京呈納
致有此促開也以十二日自竹島進發之由具報于巡營錦營戶
曹日漕船到元山元山別將點檢各船載穀數文錄報于錦營錦
營營聞例也別將來騰勘合記而去

十四日連留古堡天氣清和四日大霧之餘頓覺心神開爽招諸沙

穀物船隻比日得區處可以釋憂矣梁宗夏遇著都沙工聞於
島留穀已得船登載携健陽船而還令付健陽四遂載其穀以
去其間浮費錢為九兩餘諸沙工分微以給夜三更座首所願
船來泊座首漕軍色使令入謁於是始島之事畢矣自明日
得順風可進發然望潮抵京今非可論京司懸望當如何哉
悚問：此仁監浦護送吏往於島者隨座首還各受過去狀
而去舒川吏獨不來受保寧則過界雖不遠護送吏始終不
來皆可恠元山吏房及此島洞長捉百七十石容載船一隻而至
今無用處使即放送邑問使初七八九日發者俱到於島與裴
權錫同船而來得兒北軍連三日四度書長兒痘証幾瀆祛而尚

自初八曉後截然無消息去者亦不還今聞此報大幸然傳說
猶有難信使梁宗厦仍持船進去馬梁人僉使來見之言病餘而
藥盡送給茶藥芋腐

十三日連留古堂朝霧復漲如昨日梁宗厦所帶船不能遠行
下碇近處以待霧捲至午霧漸捲都沙工自江鏡捉得大船十
一日到沙島付之座首使載穀即來先載百餘石於裴權錫
持去船與裴權錫及鎮校同乘而來裴權錫以初八夕自此發
去連遇逆風漲霧初十日始得達十一日旋發又遇霧故其不還
遲也都沙工及裴權錫及鎮校入現聞知沙島事座首十二日
領貨船發中路住碇待沙當至朴圭燮領萬字船還本舍

金浦舊鄉也問所載穀曰米租合四百五十五石問穀主曰京江
居諸人也余曰此船可賃用即令卸穀積于余所住家之庭招
家主及洞中諸所任米租各數石斗量以示後計石授之使善
守待健陽來覓捧家主及諸所任捧音給李健陽問其
船中見在格軍只五名也分付沙工梁宗廈使率各船格軍
十八名騎李健陽船往妙島載留穀以來又有穀多船窄之
慮借馬梁宗廈使所乘船伴送時已犯夜而月色微明慣路可
尋矣梁宗廈纔行一里許逢一船問汝從妙島者乎曰昨日
過妙島問漕穀事曰賃船自鎮江浦提得大者而未昨日夕
載二百石至今日午似應畢載梁宗廈在船送格軍傳報

病來謝

十二日連留古岱朝霧漲如昨日離丹島已五日舟楫不得通
元山吏房此島洞長為賃船往近島者亦不還始擬趁望潮
抵京今坐此虛送多日進發無定期悚悶極矣巳時霧少捲是
出忽見有一大船掛高帆率從船自南而來其後有一中船掛
瘦帆而隨謂是守島穀得賃船載來初八夕所送船伴還沙
工輩及諸吏校列立水邊以待之及近至乃知為他船問其所由
歷中船昨日過竹島前見有三四小船列繫疑其有載穀事
而未能詳大船京江船也船主自言姓名李健陽龍山人考其
號牌名非健陽乃他名居非龍山乃金浦問之曰號牌本名也

何時可還分付庇仁藍浦護送吏馳往竹島探信無護柁昨所
送船以來賃船不可專靠於舒川及都沙工故招元山鎮吏房
及古岱洞長使廣求大船率洞民十許名向安興間而去申時
南風乍起霧漸捲

十日連留古岱自開東時西風連吹霧復漲風忽南忽西霧亦
隨而乍薄乍重海上值霧則不可行竹島信阻憂鬱耐甚矣沙
工鄭基殷能賦詩作一律詩考諸方仍步其韻曰樓船暮泊古其室
頭大海中分六島洲村戶人負饒閑捉鱟商帆來去任隨鷗
一行遠涉多經險三日淹留得暇遊此後纔定知去神有護前程
風霧不須愁馬梁僉使為護行留在傍舍聞有病評記強

鮮於里中各戶逐時供饌需聞此島嘗賴漁利民戶恰過二百年來
漁箭不利里凋而戶減故分付禮監考使勿逐時只日一供島之北
有安眠島隔水而近松林鬱茂人言廣十里長四十里是夜與燈夕也稚
恒出門臨水而望時月色微明土船皆揭燈樞頭或一或二或三光
暎水面因想衙中為幼孫甥姝豎竿懸燈其賞玩嬉笑之狀遠
不可見也仍留宿

初九日連留古堂日候清和無有南風正宜行船而竹島留穀未
來各船到此有禱神之例不得發

初十日連留古堂自朝霧漲不辨山水海人言西風自海吹入
則霧得東南北風乃捲竹島消息無以得再昨所送船亦不知

天明波定南風連吹船疾如箭稍工之言可趨申前抵元山至午南
風忽止以是而塵趨日暮抵元山鎮古堡島在船見衙書始知
祀事利行仲兒代裸長兒疝証間又添患更得方於稚恒以送
又傳令戶長與健校速赴竹島共守留穀下船入村舍大護送
官馬果令僉使宋應燁元山別將李在容來見所過上庇仁蓋
浦洪州護送吏并隨到保寧吏獨不來護送狀以竹島落後一
般未來自舒川并姑不成給此距竹島稍遠貨船提否漠然
未聞雖得貨船能載八九百石未可必分付元山鎮校提得一
中般使鎮校及沙工裴權錫往竹島先輸石餘石以來蓋浦例
紬硯石二坐古岱山島里中有禮監考考者例於漕官到留取魚

言此專由於下軍自憑藉生事當緣討賂之計云向時或者之以後言慮者即細謂是也然吾既無失有何可憚乎舒川俸未見故據理以語之則乃以為然請車去該船沙工問言即還故許之夜三更忽又移文曰更思之有不然者都沙工等諸人并復推捉矣都沙工已為求賃船遠去其餘諸人將待風進發敢并不送只送該般格軍二名是夜海底遊波大作諸般搖漾高檣麾空若不可支沙工漕卒達曉戒嚴余亦憂慮不得眠

初八日將曉南風適至沙工告當發余乘舒川護送舡而進諸大舡已出在島口追往登上船分付座首與漕軍色及使令一名留守積穀待賃船未即載追到舒川官亦遣將吏共守之船行少頃

人余并不許送然此欲無事中生事者也蓋漕船致敗以穀物之沉濕欠縮論而今無沉濕又無欠縮差使負所領運者自如矣地方官何可勒侵故之於致敗乎彼若以箇中必不無沉濕為慮則有不然者穀色乾淨者過於上納之數在卸運時花子兩島民皆見而知之此可為證若以欠縮為慮則亦有不然者播載者之為幾石其吏校適來見之矣播載外八百九十餘石之積在島村者其諸吏亦計數而告于其官曰并較之勘合有剩云矣為其倅者復有何疑乎設有若干沉濕欠縮此領運官之憂也非有關於地方官而况初無沉濕欠縮乎至若播載雖云法外我自為法外事也亦何預於地方官乎中路賃船餘穀之從權播載固出於事勢之不得已則京司亦應諒許舒川倅何可執咎乎聞島民

載者未易求主抄四千石可載者其得尤難勢將隨所執登載餘穀則從
權播載各船具此由先報于巡營錦營戶曹日宣惠廳廣興倉移
支于地方官托速提賃船又遣都沙工人全宗燬於熊鏡兩浦之間以求
之沙工朴圭燮不可任使以朴泰祐改差至晚雨止風浪亦向息仍留宿
初七日雲開日朗午時舒川郡守趙秉完聞昨日事出未余念
賃船雖得稍大者必不過二三百石容載畢竟以賃船餘穀播載
各船矣且聞此洋有內灘諸船不可久住不如早為之計遂分付諸沙
工使就卸下穀先以二百七十餘石播載各船待明朝往元山波穩處而
住留穀待賃船來登載追到元山方播載也舒川守及吏校幾多
名適至以不待地方官來而徑先播載為咎視同致敗推提應問各

是領運官吾所領運者何必待地方官謀乎吾惟為吾職耳後言
非所畏也遂冒雨出立於風浪之頭嗚聲以督之間卸運者言曰
穀已被濕者必不下百數十船亦未免觸傷全體有反張於頃潮
落望見灘巖露尖高低不齊船掛其上離水丈餘余謂今可無添
濕之患連督諸小船使之迨此忙運及盡運逐包檢之皆乾淨無沾濕
數較勤令而有剩後穀也惟糧米者數十石間多被水者人皆以船既掛灘穀如
是完前所未見言誠萬幸也因積于島村淨地復指也指糧米連運
諸小船使并力曳掛船以末視之反張之狀已復正矣但傍下數處
板戾而朴綻略加修改可復入用而此巨艦也非倉卒可為故不得
已為賃船之計聞近日各浦諸大船皆散出遠地雖六七百石容

竹藪被焉基地窄居民屋六七戶也時雨霏灑至午乃止而雲陰未開
乾風不止仍留宿

初六日自夜復雨至朝連下方潮入時乾風忽大作波濤猛湧沙上朴
圭燹所掌萬字船為風浪所暴拍拖碇南走其疾如箭前勢不可
任適掛於中流巖灘而止破敗在即因措莫甚急促諸船沙工漕卒
一齊棹從船而進又捉島近諸漁船以送日入風濤圍泊於萬字船下
卸載穀物以來人或言船必破敗矣穀物待地方官來會眼同卸
下可無後言余曰此穀京師所懸待衆民所竭力余亦費心收捧
者也雖一二包及其未沈而卸下為當然事何可坐視其沒入沉濕
而不為之計乎徒欲免後言遲待地方官來會則其必無及矣且余

衆囂如市上村百餘戶崗麓拱抱不見海洋亦有潮汐水進退於巷
口其內水田連膝可為數三五落亦名島也余因下船乘藍輿向下
村道側有樵髻六七人相告曰吾寨前主來料是咸悅浦民為漁
來者也就民舍而宿自駕島至此塵十里而船行則殆二十里以
遇迎風故順潮出入而為迂回也

初五日去夜四垂雖陰豎中天星朗謂來日可清明早起視之雲
陰滿天昨今辰巳日也恐有雨沙工入告曰天雖雲陰南風方起時不
可失請出上船余乘小船向竹島前諸大船已出在島外方促棹忙
赴諸大船忽復回帆問之曰俄得南風而進今遇乾方風不可行故
還諸船停纜於花守兩島之間余入竹島民舍而憩島向東而開

西是沃溝終境舒川西界沃溝吏過去狀而去烏島之外有飛鴻二
島小島也其西即古羣山勢長袤滿水入壖萬頃縣大島
也古羣山之北有同鉢孟島稚恒之言嘗聞是島無人居有窆穴
喝作全雞抱卵形稱為大地帆外東北道見有特密卓立問之
洪州舒川界烟島也去路當過其下帆前數里許海形忽高如
堤其下漁箭設處也有漁艇百許艘皆掛帆橫海羅立作一字形
亦奇觀也晚後有西北風不可進行申末向開花島是竹島隣島
舒川地也舒川護送吏一人至此始未現故捉入責其初境不待
無校獨來之罪夕飯訖以小船入島二村有上下二村二四五家門
皆臨水而開有漁船六七十隻高檣落帆列繫於前風旗聳飄

又無一點風行事甚悶然沙工輩言今日未發則勢將留過燈久而
後發今晚後若雲開風生猶可行船抵馬梁鎮令各船舉帆乘退潮
出島外以待從之是日先祀忌祀也先諭兒輩使以領漕赴京措辭祝
中果品已有備置以是俸供祀需即五月初有而未得躬將祀事無
洩不洎之慟方帶公役在旅舍又不可為望哭子初可行祀時盥
洗^冠服而坐以送昨日為長兒痘直若至夜作痛則祀事應屬
之仲兒以行也巳時雲陰稍開沙工告當發人余乘從船而進諸大
船已出在大洋中登上船四顧一色碧石波溜二汪三無涯無際
直與天接大小島嶼往々其奈置儘大觀也時忽有北風船將逆
^去然潮勢則順故稍工以不好言徑行遲不可遠去過烏沙島之

餘甚幸而長兒症証甚苦云即繼未可知是為念也午際霧務在銷旋
 復漲塞向夕始漸捲而西望海上猶遮蔽不開邑問安使早發者
 又至得兒曹去之夜書知一行果趨未肯吞安稅但長兒症証昨日登
 船後送痛還衙中因委席遠外憂念多矣惟恒先裁一方以送養
 冒湯加紫胡黃芩葛根快此即瘳則幸而邑無可議之醫此尤為
 悶沃溝吏又納道味等魚以親忘入齋自是日行素

初三日連留駕島天氣雖未清明霧收日出南風乍吹時宜泛海
 猶有審慎未果發邑問使及通引昨日未者告還付書于兒輩
 沃溝吏又納鮑魚生大蝦

初四日去夜天清星明南風微吹至曉忽復雲陰天明久而不見日

初二日霧漲如昨樣連留駕島恒字從船為駟船所拍邊板傷恒船
沙工朴泰赫求新板改修招諸梢工問晚若霧捲可發船否曰比
島下水淺潮至可泛船此島以外唯元山鎮可以停纜元山以內有
馬梁稍可而亦不如元山之穩故自此起發須乘早潮終日而行
直抵元山可無憂也今日雖霧捲必晚不可發明日若晴和無
有南風則大幸不得南風則雖朝東風暮西風亦可隨宜行船
如此則當過一夜於馬梁而抵元山也巳時也問使昨日發者至見
內衙書知老幼無恙其回付書於兒由日通引北軍昨日未末者為
下直末漕軍也趙俊國例當騎船而有事由還今始來現言昨
日脯後見三兒行無撓到熊浦下憇店舍抵衙可趨未首存慮

班乘其乘未艀兩船皆有帆是時西風微吹晚潮初至水晏無波人皆
言兩船可趨補後穩達熊浦在昧日以風濤憂今日如此甚幸而
惟長兜之疵之壯為慮矣送去後坐望雙帆漸遠無事度楸海至長巖
界其後為島密所遮不可見明日有便可聞安稅之報招騎船色
吏點考各邑監色益山高山龍潭監色各一人不待或移文或飭
該邑監色使之趨速未現申時西北雲開日光出可喜邑問安使
再昨發者今日午始到昨日發者申未至此皆以昨日有風浪也夕
飯訖與稚恒扶節上島山巔以望時霧起大海全形羣島真面目
皆入迷昧唯見水之南扶安邊山高從耳濶張西南古羣山飛梁島
并詩人言邊山廣四十里長八十里日將入霧大漲咫尺不可辨

可慮也。比雨止而至初。二三日則南風可得。余在熊浦。文先達言。豈為行事卜之來。月初二日。必得順風。一帆利達。今兩言相符。其將有中耶。分付沃溝吏。別投完艀。以待為送。三艀也。龍潭色吏。益山稅大同色吏。追到現身。沙工尹滋中。安彌錄到中路。不告而歸。今始復來。并別付過。

四月初一日。風勢頓息。而雲陰如昨。行船例忌。初一日。連留駕島沃溝。官又送生鳥賊魚。岸魚。生大蝦。已末色中公。兄三班。四十餘人。為下直。未嘗以勿未分付。在下道理。不敢不來。云伶樂一部。伴至使作於前。足以破愁鬱。午飯後。送三艀。還衙中。長艀宿症。臨發。忽有漸得。方於稚恒帶去。三班亦辭。歸三艀。登沃溝。投待船。伶樂從三

果

雨灑三更行海若祭於船上祭文自制不吏告宜祭畢脫所著單襦
黑豕牲投水中間之例也從之祭後與三鬼及稚恒曰日雨乘從艇
就駕鳥山村舍宿沃溝官送道味魚鮫魚

三十日仍留駕鳥山雨連下東風大吹潮浪翻白晚後益甚雖咫尺
間不得往未糧饌在船中闕午炊至申初雨心風亦少減而濕
慮雲猶未解來日將送三鬼還衙中雖霽日船行為無况風雨

未可知乎見壁書王維歸山詩步其韻曰長風翻打海潮飛与
竹島前舟楫稀不怕吾行千里涉却憂未日送鬼歸五日行之
歲惟待南風而南風未易得今雨又如此且聞來月燈夕前後各
三日例有風濤不可行艇恐留此費多日招稍工問日事曰雨犯明日

背舍嚴列時十八艘船繫在其前聞來月十二三日可載發云酉
時到舒川浦止泊携三兒及稚恒出長巖鎮民舍宿鎮屬舒川
地長巖鎮送秀魚大蠟所過各邑鎮隨宜送魚鮮以助饑需例
也羣山長巖吏校各於其終境受過去狀而去

二十九日子時還船所晚朝又得東風行船到沃溝楸海中前有遮
堤非潮漲不可越故住碇楸海小海也稍工言自此北出可直抵大
海而水淺而險故將捨其路西由烏_{鳥島}嶼兩間而出迤回向北而抵
大海大海渡涉惟南風為利云未末潮至復行船申時到駕島
前心泊駕島在烏島兩島之間亦沃溝地島外即大海故山嶺
湖之倉漕船皆到此候得南風而後發時天漸陰風西起之夜三更

未望西浦村聞在中江直夜深莫可往真所謂潮回從之道阻且
長所謂伊人宛在水中央其意蓋歎有子矣爰卓與兜鼈及客共
飽人既為我遠來我在咫尺之地不可無往謝欲以輕舟進稍工
曰夜黑風動不可動橈遂止

二十八日天朗東風起平明乘從舟往西浦村見臨陂倅談話
間酒盤進少飲訖至無有煖寒令具喫罷即還臨陂倅隨到
船所移時而去已時待潮行船少進風忽西吹停帆申時乘退
潮復行過韓山臨陂兩邑終界介作過去狀投兩邑護送吏座首
陪吏都沙工行龍堂奈還現申末過沃溝地羣山鎮前江水濶
如海羣山亦湖南三漕倉之一也濱江小巖山下鎮軒在焉密之

書額曰凌波樓書壁曰春水船如天上坐又曰 玉靈攸暨木道
坦二又曰河伯海若隨處護送達于千里達于一瞬又曰天無烈風
海不揚波是領運官居也以米包環積為堵層排為塔屋內坐
處下鋪南草上展艾褥為御雨冷濕也屋之高與舷齊坐屋內
張不見外安重如處陸不知船之動而去屋上設_登巡席結翠幕為
出坐之所登此乃可觀水望遠余既_登船先坐屋上翠幕下頌校教使
教令放砲作聲吹諸船一時舉帆前進是日天氣清朗東風連吹行
至韓山波浦東臨使西浦西下破中江而宿自熊浦至此計可二千里
夜復登屋上以望水外諸村燈火點々昏黑無一月當大辨其為何
地也四更臨波倅遣吏致書曰送餅麵酒肉一大卓其書曰為叙別

宜東風而近多西吹昨夜之風將反西為東故大吹此好兆也是日果有東風

二十七日午潮將退余以盞輿出伶樂前導子隨從甚衆男女老少觀者滿路遍山可以幾十計到津乘從船泊于第一鹹字船下緣梯而上鹹字船大以堅故定為領運官乘是謂之上船三兜及全稚恒從登漕復監官座首全海福陪吏王鍾八領船將校趙得柱通引王萬津李福翊使令全根洪庚奉甲全務順全萬淳朴壽福吸唱孫甲太山刀子夫祿房子龍孫并隨座首陪吏及都沙工即送于舒川龍堂待夜殺祭之文自制上船深五丈長十二間廣二間半中有一間屋之上下四面皆板塗以紙前甍戶右獨窓

為二十里間多淺水用小船卸運費七八日二十一日齊泊熊浦二
十六日熊浦市也沙工漕卒待以質饌物管臺笠鞋故余亦還
衙以待之二十六日晚朝吏告行事備余乃命駕出熊浦之戶
蓋四百餘有櫛比形局完氣明前臨鎮江之大殆冠於一國商
帆來去儘名浦也下輜民舍留宿時三兒俱從尚州黑土坊士
人金昇植字稚恒有同行約趨到韓山舟徐相學龍安母客
金先達鳳集林川人文先達錫瓊叔侄及李載厚及稚恒子與
孫為叙別未邑中三班例比日未送余念官衙空虛命勿未惟
七八吏校三數父老未辭林川郡吏為護送未受過去狀而去
昨日夜有大風余於枕上聞而憂之到熊浦問梢工曰船初發

貢字般新造也沙工徐國賢載得雲峰田稅載米八百五十一升
六合三夕太二百九十五石一斗三升九合六夕茅十天字樂安貢
般沙工裴權錫載得龍潭田稅載米八百二十七石一斗六升三合
太三百九石二斗六升五合五夕加载益山大同米一百三十一石四斗茅
十德字般沙工尹滋中載得益山大同載米八百十二石一斗四升太
二百九十四石一斗六升五合六夕茅土宙字般沙工梁宗履載得
益山大同載米八百三十三石四斗三合太二百九十五石一斗五升一
合十二般合米一萬九百三十七石十斗二升三合合太二十九百
七十四石九升四合每般漕卒十五名八邑監邑各掌其般十
五日并浮出江上待風移下熊浦熊浦在邑西十里自聖堂

南原田稅載米八百六十三石三斗九升三合四勺太二百九十五石
三斗六升一合六勺第四歸字般沙工安彌在畿得南原田稅載
米八百三十三石十斗七升二合五勺太二百九十四石十一斗七升五勺第
五白字般德積賃般沙工崔得壽畿得南原田稅載米八百四十八
石六斗五升九合七勺太二百九十五石二斗六升二合七勺第第六駒字
般沙工安彌錄畿得益山田稅載米八百四十九石十一斗三升六合一
勺太二百九十五石五斗七升七合三勺第第七萬字般沙工朴奎一變
畿得錦山田稅載米八百五十五石十斗九升一合九勺太二百九十四石五
斗三升二合五勺第第八黎字般沙工鄭基殷以掌務例載高山
田稅米九百十六石四斗二升八合一勺太三百五十七石七合七勺第九

斗一升二夕一里高山田稅米五百四十石
斗二升六夕八里太三百八十
二石三升六夕五里龍潭田稅米二百七十五石
斗一升七合八夕太
二百二十三石一斗四升五合五夕五里合米一萬二千五百九十八石
斗八升九合內田稅米七千二百四十石
斗三升二合一夕六里太
二千九百四十六石
斗三升五升六合八夕四里大同米二千四百三十七石
斗此元上納也
又有各官房上納及^後米^後糧米
三月初一日初分載
先上艇初五日行順風祭
土三日六分載
第一賊字艇新
差都沙工琴南烈例載本縣田稅米一千一百三十六石
斗一升三合
茅二暑字艇都沙工全宗燠例載本縣大同米一千一百八十五石
四斗五升二升六夕
茅三恒字艇沙工朴泰赫抽載得

峰南原錦山三庫之既盈露積於之庭畔名曰積訥凡九處其
高比皆出大樹上本縣與益山二月晦畢捧六邑後二旬次第告
畢咸悅田稅米八百九十八石四升四合一夕太一百九十三石十斗八升六合
七夕三里大同米八百七十五石土斗南原田稅米三千一百三十七石三
斗九升二合三夕太一千三十三石三斗三升一合五夕六里珠山田稅米一
百六十二石一斗八升四合一夕六里太一百五十三石土斗八升四合一里
益山田稅米一千三十三石六斗九升七合一夕四里太二百九十六石十斗
七升三合五里大同米一千五百六十一石十斗雲峰田稅米五百十
二石二斗七升九合一夕三里太一百三十七石十斗九升二合一夕一里
錦山田稅米六百七十四石三斗九升六合七夕五里太五百二十七石九

漕行日錄

余六十歲之壬戌夏五月二十九日蒙 恩除咸悅縣監兼聖堂倉八邑漕稅領運官八邑南原珠山益山錦山高山雲峰龍潭咸悅也聖堂倉在縣治東北二十里六月十三日到縣是歲被澇失稔村里往往有飢愁吏鄉以稅事憂余曰民亦知正供之重雖力艱自當辦納遂以十一月初二日詣聖堂開倉始捧顧災民不可以鞭笞督也乃分遣吏使勸導之誨責之每定日為納限至臘月凡七開坐翌年癸亥春連坐間或還衙在前斛上石打石濫色升大民以為言余乃精削斛上色升較前減三分之一打石準上色升設春具於庭有納麩米者使更春之隨納諸雲

斗雲峰田稅米五百十二石二斗七升九合二勺三厘太一百二十七石十
 斗九升二合八勺一里錦山田稅米六百七十四石十二斗九升六合
 七勺五厘太五百二十七石九斗一升二勺一厘高山田稅米五百四十
 石六斗二升六勺八厘太三百廿二石三斗六勺五厘龍潭田稅米
 二百七十五石七斗一升七合八勺太二百二十三石一斗四升五合五勺五厘
 合米太一萬二千五百九十八石六斗八升九合內田稅米七千二
 百六十五石三斗三升二合一勺六厘太二千九百四十六石三斗五升
 六合八勺四厘大同米二千四百三十七石六斗三勺三月初一初分
 載先上船初五日行順風祭十三日大分載第一鹹字船新差
 都沙工琴南烈例本縣田稅米一千一百三十六石十四斗

斗雲峰田稅米
 錦山田稅米
 高山田稅米
 龍潭田稅米

此先上船地又有官房五

厚打石濫色并大民以為言余乃精削斛上色并較前減三分
之一打石準色并設舂具於庭有納鹿米者使更舂之隨納
儲雲峰南原錦山三庫之既及盈露積於庭畔名曰積訥凡九處
其高皆出大樹上本縣與益山二月晦果捧之色後二旬次第
告畢咸悅田稅米八百九十八石四升四合一夕太一百九十三石十斗八
升一合七夕三二里大同米八百七十五石十一斗南原田稅米三千一
百三十七石三斗九升二合三夕太一千三十三石三斗三升一合五夕六
里珍山田稅米一百六十二石一斗八升四合一夕六里太一百五十三石
一斗八升四合一八里益山田稅米一千三十三石六斗九升七合一合四
里太二百九十六石十斗七升三合五里大同米一千五百六十一石十

溥行日錄

余于子歲之壬戌夏五月二十九日蒙 恩除威悅
縣監丞兼學堂令八月九日溥初領運道八月九日
山蓋山移山宜崇龍潭高山國稅也雲雲令
在縣治東下二十里六月十日判署是歲被僭失
稔村里法者既無吏紳之稅事多子余曰民不知
正供之重能方報自當辦他區二十一月初二日
望書聞命會如林形實民不知之報業替如八分
進中使物導之海者之安定以子初限之隱月凡
六開坐望中初及春在坐間或還德在之前解上

漕行日録

一

之

心

之

心

之

心

之

心

一

之

心

之

心

之

心

之

心

一

之

心

之

心

之

心

之

心

一

之

心

之

心

之

心

之

心

一

之

心

之

心

之

心

之

心

一

之

心

之

心

之

心

之

心

一

之

心

之

心

之

心

之

心

一

之

心

之

心

之

心

之

心

一

之

心

之

心

之

心

之

心

一

之

心

之

心

之

心

之

心

癸亥年

漕行日錄

이문현 前 국립민속박물관 학예연구관.
조선후기 사회사, 생활사 전공. 번역서 《윤이후의 지암일기》 등이 있다.

하영휘 성균관대 동아시아 학슬원 부교수 및 가회고문서연구소장.
조선후기 사회사, 사상사 전공, 번역서 『변하는 세상에 맞선 유학자』, 『옛 편지 낱말사전』,
『양반의 사생활』, 『한마고전총서 2-19』, 『근묵』 등 다수가 있다.

조행일록 漕行日录

총괄 이종배
기획 윤리나·권유리
진행 김현수
번역 이문현
감수 하영휘
교정 권유리, 제아름, 김현수
제작 한스디자인

발행처 국립해양박물관 www.knmm.or.kr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45
대표전화 051-309-1900
발행일 2020. 12.

©국립해양박물관(Korea National Maritime Museum), 2020

이 도서의 저작권은 국립해양박물관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도서의 모든 내용에 대하여 무단전재와 복제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박물관의 서면 동의 없이는 어떠한 형태나 의미로든 재생산하거나 재촬영할 수 없습니다.

